

2020 활동가 이야기 주간

결과자료집



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98개의 이야기모임, 435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2020활동가이야기주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무엇일까? 인권과 환경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때로는 권력을 바꾸는 일이다. 정보를 공유하고 지인을 설득하는 일,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드는 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활동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말, 글, 유인물,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한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한다. 우리의 삶과 사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일은 꼭 비영리조직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영리조직에서 일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활동가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과 조직,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이런 활동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활동을 통한 변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2018년 〈아름다운재단〉과 〈더 이음〉이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삶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역에서 개최한 활동가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개최하게 된 이유는 활동가들이 조직의 목적 사업과 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회의를 많이 하지만 정작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의 발전이나 조직 운영, 활동 방식, 활동가로서의 삶과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활동가이야기주간2020〉행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2018년 4개 지역에서 시작한 이야기모임은 올해 전국적으로 98개의 모임에 435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활동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일과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도 털어놓고, 좀 더

나은 조직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활동의 좋은 사례, 실패한 사례 등을 공유하는 이야기모임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활동가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분야, 방식의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다름을 공감하고 인식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임의 주제 또한 다양해졌다. 올해 제안한 모임주제는 조직문화, 세대차이, 마음건강, 재난시대였는데 이 주제는 2019년 활동가이야기모임의 회고지와 결과지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이 결과자료집에는 각 지역의 활동가들의 주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았다. 2021년에도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기를, 활동가이야기주간이 활동가들의 연결과 만남, 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활동가이야기주간

- 일시 : 2020년 11월 2일 ~ 6일 / 5일간
- 장소 : 전국 곳곳에서
- 주관 :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 공동주최 :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
- 협력 : 광주NGO센터,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천희망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북NGO센터

2020 활동가이야기모임 개최 현황

조직 문화	[서울] 2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르는 조직문화 가능할까?	8
	[제주] 각 지역단체 조직문화와 구성원 및 세대별 인식 차이 알아보기	10
	[김해] 조직문화에서 민주주의란?	12
	[서울] 여러 단체의 다양한 조직문화에 대해 듣고 싶어요.	14
	[대구] 1인 리더십이 없는 조직, 가능할까?	17
	[대구] 달성군 활동가들의 지역과 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	19
	[진주] 서로를 성장시키는 활동가 조직문화	21
	[서울] 회의에 회의적인 활동가들, 왜 우리 회의는 이 따위지?	24
	[서울]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	28
	[파주] 한번도 하지 않아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33
	[아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가들의 노동(인)권	36
	[김해] 활동가들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38
	[군산] 1인 상근인력과 조직운영의 고충	41
	[청주] 2030세대와 4050세대가 바라보는 시민사회 조직문화 진단	44
	[서울] 청년활동가들의 활동경험 나누기와 그 속에서의 조직문화 털기	46
	[수원] 조직의 규칙, 활동가들이 직접 만들면 더 좋은거	49
	[서울] 지속가능한 단체 활동을 위한 조직문화 돌아보기	53
[음성]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은 왜 연대를 하지 못할까?	58	
세대 차이	[용인] 청년이 마을 안에서 살아가는 법	62
	[거창] 개인활동가들의 세대 갈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의견 나누기	64
	[서울] 94학번과 94년생이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	67
	[청주] 조직문화는 세대차이가 아니라 감수성의 차이입니다	71
	[대전] 세대차이 말해보자고요	73
	[여수] 2030이 바라보는 여순항쟁 그리고 과거사	75
	[서울] 내가 곧대가 되는걸까? 낡은세대들의 어중간한 세대차이 극복방법	80

마음 건강	[부산] 다친 마음 들여다보고 함께 다독이기	84
	[대전] 코로나로 개인주의가 더 심해진 지금, 마음건강 지키는 방법	89
	[김해]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마음 품앗이	91
	[순천]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도 성장한다.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적기교육	95
	[대구] 내 안의 세상을 돌보는 시간	98
	[홍성] 이주민 통역활동가들의 마음 챙기기	100
	[춘천] 여성 시민활동가들과의 유쾌한 토담임	103
	[서울] 활동가 소진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갑니다	105
	[서울] 활동가들이 서로의 마음상태를 보살피고 지지해주고	107
	[서울] 예민해도, 예민하게 살아남기	110
	[광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공허함 털어내기	112
	[천안]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내 마음도 돌봐야 할 듯	114
	[광주] 마음 바이러스 백신 찾기, 현실 앞에 흔들리는 신념	117
	[춘천] 신중년 활동가들의 수다 카페	120
	[남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얻는가?	123
	[청주] 코로나로 인한 마음 달래기	126
	[익산]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 나는 안녕한가?	129
	[서울] 마음책방, 또 다시	134
	[용인] 활동가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보듬는 시간	137
	[인천] 마음건강-코로나 시대 마을, 마을활동가의 안부를 묻다	140
	[청주] 활동가의 힐링 스토리	143
	[서울] 짬을 내서 마음건강 챙기기 모임	146
	[광주] 재난 시대에 마음챙김	148
	[옥천] 우리는 무엇에 아파할까요?	153
	[부천] 토닥토닥, 마음 끌어안기	156
	[대전] 마음은 공익마음과 사익마음으로 나누어지나요?	159
[서울] 내 머리 속의 무지개, 보드게임을 통해 마음의 균형찾는 법 모색하기	162	
[원주] 활동가들의 마음은 누가 지켜주나요	164	

재난 시대	[청양] 코로나시대 사람들에게 쉽고 시간과 공간을 나누자	168
	[광주] 코로나의 긍정적 발견	171
	[부산] 재난시대, 환경보호는 모두의 활동이어야 한다	173
	[경주] 지역의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활기를 키워갈 것인가?	175
	[제천] 공공의료지원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78
	[광주] 현 시대에서 활동가의 활동 방법	181
	[창원] 쓰레기 어쩔? 자원순환을 고민하는 모임	183
	[서울] 코로나19 시대의 지속가능한 생태활동	186
	[서울] 재난 시대의 식문화와 건강	190
	[부천] 코로나19, 청소년활동가들의 좌충우돌 도전 이야기	194
	[서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영리-소수자 연대 문화행사의 가능성 모색	199
	[부천] 그린뉴딜과 탈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모임	204
	[천안]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206
	[서울]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208
	[김해]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대한 공유와 대응	211
[부천] 재난시대 교육과 돌봄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214	

자유 주제	[광주] 자급이 삶은 가능할까?	220
	[청주] 청주고을 와와 우리 동네 이야기	223
	[김해] 활동가의 비움과 채움	226
	[김해] 사진기록의 방식과 중요성 - 사진가와 지역을 기록하는 지역활동가	228
	[부산] 운동모임을 핑계삼아 뜬금없이 만들어진 활동가모임, 우리는 왜 모였나?	231
	[창원]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활동가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34
	[청주] 차별금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	237
	[대구] 우리는 어떻게 재난시대와 마주하고, 이겨낼 것인가?	241
	[광주] 공익 콘텐츠(인권 포함)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243
	[보은] 보은에 있으면 좋은 것들	246
	[김해] 우리 마을에 도움 되기 첫걸음	248
	[서울] 청년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 마을민주주의	250

[안산] 지역 내 청년활동가 만나기	252
[서울] 지역활동가들의 허허심심탄회	254
[서울] 마을 주민들에게 펼칠 재미있는 놀거리 생각하기	257
[창원] 새내기 활동가들의 고충과 고민, 앞으로의 방향	260
[부산] 온택트 시대,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수다방	262
[제천] 작은 단체에게 가증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263
[대구] 청년NGO활동 확산사업과 청년활동가 이야기	265
[광주]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생활 즐기기	267
[진주] 경남에서 청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사는걸까?	270
[온라인] 환경활동가들의 정서적 연결과 활동 연대	272
[부천]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75
[부천] 학생이지만 활동가, 대학에서 인권활동하기	279
[온라인] 장애,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당당하게 맞서라	283
[구미] 구미지역 활동가들의 공감 모임	287
[창원] 새내기 사회혁신활동가들의 활동시작이야기	290
[대구] 자발적 비영리 활동가는 지속가능한가?	291
[창원] 50대 이후의 문화활동가인 우리들의 미래	294

조직문화

#서울 #조직문화 #11.6

2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르는 조직문화 가능할까?

김상은 한국YWCA



다양한 연령층이 일하고 있는 NGO 단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일지, 비영리단체 선배활동가 세대와 후배활동가 세대가 어우러지기 위한 가치와 즐거운 규칙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의 강점 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논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특히 일과 생활이 불균형한 이유를 세대차이, 개인차로부터 토론했음.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팀의 긍정적 문화를 이야기함.
- 팀원들의 현재 상황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매월 1회

씩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함. 안전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의 이야기는 참 필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다.

-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팀 내 행동강령을 정함. 그 내용은 1) 문제가 있으면 바로 말하기, 2) 돌려 이야기하지 말고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기, 3) 월간 이야기마당 진행하기, 4) 업무 외 시간 메신저 끄기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함께 합의한 공동의 약속을 신뢰를 갖고 실천하자.
- 조직문화는 서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눈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는 가능하다.
- 선배 활동가의 일과 생활 불균형 모습이 후배에게는 희생을 당연시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
-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든 세대의 활동가의 눈빛과 마음이 좋았다.
- 소통은 필수적이다. 일과 개인의 생활이 불균형적일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는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 활동가이야기주간 모임 너무 좋은 기획입니다. 관점카드 덕분에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 이야기주간, 정말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감사합니다. 카드 종류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 이런 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시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조직문화 #11.5

각 지역단체별 조직문화와 그에 대한 구성원 및 세대별 인식 차이 알아보기

김성수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계약된 16명의 활동가 및 지원을 통하여 참여하는 인원을 초대하여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의 조직문화와 조직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나누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조직이 요구하는 내용과 활동가가 생각하는 활동의 방향이 다를 경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만약 이도저도 안 된다면 1인으로 활동해야 하는가?

-
- 오프라인으로 제주에서 만날 예정이었던 분들의 급작스러운 단체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3명의 이야기를 길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최근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힌 앙트러프러너십(Entrepreneurship), 어딘가에서는 기업자정신, 누군가는 창업가정신으로 해석하고 곳곳에서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의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학교 다니던 시절, 이런 이런 아쉬움도 무척 컸던 나는 스무 살을 맞아 머리모만 아는 것을 실현하는 삶에 도전하고 있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난 1년의 삶을 정리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남았으면 그것으로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직장인이 아닌 활동가의 자세 아닐까.
- 사람이 누구나 같을 수는 없기에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내가 속한 조직과 리더는 같은 사람인가? 보고 배우고 싶은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활동과 개인 삶 사이에 경계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 일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공과 사가 명확했고 직장 동료들도 공과 사의 구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현 조직에 들어와서는 이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나만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 아직까지도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인 방향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김해 #조직문화 #11.4

조직문화에서의 민주주의란?

김애리 진영희양연구소, 마을활동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활동가 조직에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이 조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주의가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거의 민주주의와 현재의 민주주의 시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주최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게 잘 참여해주고 본인들이 느꼈던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웠습니다. 부족했지만 이번 활동으로 좀 더 나은 제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의미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살고 있는 건지, 일제 치하와 군사정권의 오랜 습관대로 주체성을 잃으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민주시민답게 자발적이고 주체성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싶다.
 - 집 밖 민주주의란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조직에서나 아직까지 위계가 있고 그걸 요구한다는 것이요.
 - 합리성, 통일성, 빨리빨리주의, 결과중시적인 운영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군사정권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던 우리나라에서는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막상 조직이나 집에서는 위계나 질서, 나이를 따지는 모습이 곳곳에 있어요. 우리부터 조금 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 어려운 주제라 힘들었지만 함께 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 단체의 다양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문세경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각자가 속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들어본다. 각기 다른 조직문화의 배경은 무엇이고, 활동가는 본인이 속한 조직문화가 만족스러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하는지, 우리의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이야기 카드에서 '공익적 미션과 비전에 맞추어 일한다'와 '구성원 모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평가가 중요하다' 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모임의 핵심 주제인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참가자 세 분 모두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속한 조직의 긍정, 부정적 문화를 소개했다. 비영리조직이라도 영리조직과 다를 것 없는 문화가 있다.
- 조직문화는 단 몇 시간의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심층적인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
- 바쁜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조직문화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활동가들에게 쉽고 놀이문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많이 필요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문화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로서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고민이 깊지 않은 것 같다. 노동생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시도하는 영리 조직의 사례도 연구하는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면 좋겠다.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활동가의 유입 등을 위해서는 비영리와 시민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 영리 문화와 비영리 문화를 비교해봤다. 영리 기업에서는 오히려 직급 파괴 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비영리 단체에서는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집행부 독주 체제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연구 검토해볼 만한 주제이다.
- 조직문화를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닌 조직 시스템에 대한 분석, 소통과 운영기술, 책임과 권한 분배 체계 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 작은 조직도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대표 인물이 단체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조직의 숨은 인력들도 조명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가 이야기를 응원한다.
- 이런 이야기모임이 많아지고 있다니 좋다. 활동가들도 이런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동영상 콘텐츠로도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

후기 에세이

조직문화를 이야기모임 주제로 정한 이유는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건강한 활동이 담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25세부터 사회단체 활동을 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활동을 시작한 곳은 장애인인권단체였다. 그곳은 장애인 당사자가 만든 조직이므로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지체장애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의 제약은 받는 것이 첫 번째 차별이라고 여겨서 이동권 쟁취 싸움을 했다. 오늘날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탑승 리프트, 모든 지하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그때부터 싸워서 이룬 피눈물의 결과다.

나는 청각장애인이다. 조직에서 단 한 명 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이었기에 지체장애인 중심의 조직문화가 낫설었다. 장애의 유형별로 결속력에 차이가 있고 지향하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조직의 문화란 때론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때다.

지난 11월 6일 진보네트워킹센터 회의실에서 모인 네 명 활동가들의 조직은 모두 달랐다. 월간 <작은책>의 독자사업부 일꾼, IT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 시민연대조직의 간사, 그리고 나. 나는 먹고 살기위해 10개월짜리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하는 일은 모두 달랐지만 조직문화라는 키워드를 꺼내자 거짓말 안 보태고 붓물 터지듯이 이야기가 나왔다.

“OOO(은퇴 후 시민단체 활동한지 3년 차)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는 끈대문화가 있었

다. 술 안 마시면 강제로 먹이고, 거절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그만 둔다. 좋은 말로 하면 민주적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의 끈끈한 분위기는 다 깨졌다. 조직문화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 연구논문으로 써서 발표해도 좋은 주제다.”

“OOO(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상임활동가) 요즘은 활동가가 아닌 일반 대중이 더 탈권 위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사람을 보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에서 누군가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영리기업이 조직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를 바꾸려는 의도보다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비영리조직은 아직까지 기존의 권위주의와 카리스마가 먹히기 때문에 권위주의 문화가 남아있다. 이런 모습들이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OOO(월간 <작은책> 독자사업부 일꾼) 가족같은 조직문화가 싫다. 관계를 중요시 하면 일이 뒤쳐진다. 추구하는 사업이나 방향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게 바로 전횡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을 우선 하고 일이 잘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사회관계망 속에서 일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적인 관계에 우선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무슨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끌어들이면 나중에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다. 잘 굴러가던 일이 사적인 관계 때문에 깨지는 걸 봤다.”

많은 이야기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인용해 보았다. 이러한 경험이 조직에 어떤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각각의 조직에는 나름의 특징과 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다. 조직문화는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은 나 혼자 만들 수 없듯이 틈나는대로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 바쁘게 굴러가는 프로그램이 문제라면 문제다. 누군가 불편하게 느끼는 조직문화라면 그것이 조직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총대를 매고 나서길 바란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밤을 새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는 2부로 이어졌다. 서대문 영천시장 인근의 중국집에서 독한 연태고량주를 마시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난상토론을 했다. 오늘따라 고량주는 왜 그렇게 달던지. 모임비가 조달되지 않았다면 그림의 떡이었을 주종이다. 시간은 흐르고 이야기는 계속 되었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뒤플이는 다음날 새벽 세 시가 돼서야 끝났다.

신기한 것은 술자리가 3차까지 이어졌는데도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가 주당들만 초대한 것인지, 이야기에 굶주린 사람들만 골라서인지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구 #조직문화 #11.3

1인 리더십이 없는 조직, 가능할까?

박성미 대구지역 활동가



올라온터, 리더십, 역량, 권한, 책임... 조직의 리더에게는 필요한 역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조직문화, 조직형태. 조직에서 1인 리더십이 없어도 과연 운영이 가능할까요? 누구나 리더가 되는 조직, 또는 리더가 없는 조직은 과연 어떤 모습 일까요? 대구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이 새로운 조직의 개념과 형태, 운영, 문화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모임지기가 청년활동가를 초대하여 이야기모임을 진행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서로의 신뢰에 기반한 조직 문화에서 좋은 리더십이 발현한다.
- 협업과 연대활동에서 좋은 경험이 없는 청년 세대. 강제성을 가지는 회사가 아닌 NPO영역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가

가능할까?

- 소수의 인원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많은 이야기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리더십은 혼자 잘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구성원에 대한 애정, 책임감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동체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 리더는 힘들고 외로운 일이다. 그래도 팀원들과 같이 성장해야 한다.
- 각자 좋았던 리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좋았다.
- 이야기주간, 처음 경험해봤는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의미있었다.

#대구 #조직문화 #11.2

달성군 활동가들의 지역과 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

박소영 마을활동가, 제로웨이스트대구, 논공주민환경모임



대구시 달성군에서 공동체를 조직하여 마을활동 중인 활동가 3인이 지역현안과 공동체 운영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공감 있는 토론, 비판이 아닌 피드백이 있는 대화가 좋았다.
- 일정한 주제에 관해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

-
- 를 요구하여 발상을 찾아내려는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 이야기카드가 유용하게 쓰였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추가모임을 가지고 싶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조직문화 카드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졌다.
- 조직의 크기, 성격 등에 따라 조직 문화도 다양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시민 소양이 높아지면 조직 문화도 좋아진다고 생각된다.
- 공동체의 색깔이 곧 문화이다. 조직 문화는 각 공동체마다 고유하게 가질 수 있다.
- 한 사회의 수준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진주 #조직문화 #11.3

서로를 성장시키는 활동가 조직문화

데메테르 진주아이쿱생협 활동가



활동가이며 집행 결정자로서 진주아이쿱생협의 운영과 조직문화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론한다.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이론을 학습하고, 현실에서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보다 민주적이고 활기찬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만든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조직문화의 대가 에드가 샤인의 이론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진주아이쿱생협과 시민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조직문화 카드의 질문으로 체크해보며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 탁월한 개인의 리더십보다 집단 역동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를 제시해줘서 일상의 이야기를 넘어 조직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각자에게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개인의 능력 발휘도 중요하지만 함께 협업하여 목표달성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직의 성장이 일어난다.
- 이야기주간이라는 기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획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서 활동가들의 소그룹의 이야기 모임이 생산적인 주제 논의를 통해 시민의식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후기 에세이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신념의 집합이다. 조직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신념을 바꾸는 것이다. 가치관과 신념은 같은 말이다. 조직의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낸다. 신념이 모여 조직문화로 드러나게 된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체계에 들어와 조직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신념을 갖고 있구나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분위기라면 그걸 믿게 된다. 혼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지? 고객이 우선인지? 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진심인지? 등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다.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내부 통합을 만들어 간다. 관련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등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전수 받게 된다.

리더들은 퍼실리테이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조직이 만들어질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성원들의 참여는 무엇이었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승되어 온 역사와 갈등 이야기도 중요하다.

에드가 샤인이 조직문화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설립자의 철학, 통제, 권장, 금지 등이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어떤 것이 옳은지, 불리한지, 유불리를 따라주는 것도 신념이 된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재화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고객이나 조합원들이 민원제기할 때 조합원 우선인지, 형식적인지,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구성원들은 그대로 내재화한다. 고객, 조합원을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조직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누구를 보상하는지도 보게 된다.

구성원의 인선이나 일을 그만두는 과정 등도 조직문화 형성에 영향이 크다. 조직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은 신념을 만들게 된다. 조직의 구조를 만들고, 사람에 대한 의례, 행사에서의 의전으로 드러나게 된다.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사건이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된다. 평소 말로 하는 것과 실제의 차이를 보게 된다. 평소에는 조직의 철학이나 신조, 이념 등 문서나 슬로건으로 접하게 되지만 조직문화는 실제 구성원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게 된다.

회의는 구체적인 조직문화 표현이다. 회의에서 교환되는 정보나 방식은 신념이 교환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기본 가정이 교류된다. 신념은 경험에서 온다. 일차 정착이 리더의 행위, 결정에서 만들어진다. 보고 들으며 학습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신념은 바뀔 수

있다.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학습하고 적용하고 또 신념을 만든다. 사람들은 신념을 바탕에 두고 행동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조직문화를 바꾸려면 경험과 신념을 바꾸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시도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리더가 조직문화를 알고 시도하고 제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교육이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조직을 운영하는 이론들이 대부분 기업 경영이나 영리 조직을 다루고 있으나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터득해 온 활동가들의 고민이 이론가들이 정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진주 아이쿱생협의 조직문화를 카드 질문을 통해 성찰하고 돌아본 것은 의미가 있었다. 활기차고 수평적이며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일상을 쌓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모범과 성실이 자연스럽게 이사회 팀워크를 만들고, 조합원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모임과 토론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웨덴 현장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다. 아이쿱생협의 마을모임이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활동가 이야기모임이라는 소소한 프로젝트가 국민들의 모임으로 정착된다면 우리사회도 활발한 토론으로 보다 나은 시민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서울 #조직문화 #11.5

회의에 회의적인 활동가들,
왜 우리 회의는 이 따위지?

열종 비영리 연구단체



회의는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어떤 일인지 회의를 할수록
일만 복잡해지는 상황.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도 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일만 많
아지고 의사소통을 하기는커녕 오해만 쌓일까요? “비영리는 다 이래? 이럴 거면 차라리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하면 좋겠다”는 영리 조직 출신 동료의 말에 저는 선뜻 “아니야
”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리고 우리 조직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다 비슷한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구요.

우리 회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가 겪은 '회의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공유하고, 그동안 쌓인 갑갑한 마음에 공감하며 서로 위로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조금 더 괜찮은 회의를 하기 위한 개선점이나 대안을 이야기해보면 더 좋겠고요.

사실 회의는 조직문화와 구조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한 번의 모임으로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활동의 전문가일 뿐 경영이나 조직문화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힘들었던 이유는 단순히 회의시간이 길고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조직 안에서 겪는 불합리한 의사소통이나 업무진행 방식 때문일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한결 단단해질 거예요. 그 힘으로 조금 더 괜찮은 회의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각자 경험한 쓸데없고 답답한 회의 사례, 그래도 좋았던 회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회의 참석자의 시간은 소중하다. 회의 참석자도 소중하다.
- 더 많은 분들의 경험을 들으면 좋을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 인원엔 제한이 있고 바빠서 준비도 많이 못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11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시적으로 운영되면 좋겠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구성원과 조직이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지(비전, 목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역할분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한 이들에게 집중되는 경우 회의에서 의견을 내거나 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
- 좋은 회의를 위해 목적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참가자들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 조직 내 권한에 따라 회의 순서를 탑-다운으로 하느냐, 바텀-업으로 하느냐 관련하여 바텀-업을 통해 회의 구성원의 의견이 조직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보다는 회의체의 권한을 이유로 의견 제시가 봉쇄되는 경험을 했다. 회의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평등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회의가 잘 안 되는 건 단지 회의 기법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사업방향이 명확하고 각자 그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회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 더 많은 사람들과 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조합하여 회의의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필요없는 회의가 너무 많다.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회의하는지, 좀 더 좋은 회의는 없을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굴해보고 싶다. 내년도 프로젝트로 해보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사실 이 날은 참석자가 모두 피곤했다. 때마침 야근과 마감이 몰린 시즌이었다. 온다고 했다가 못 오거나 '정말 가고 싶은데 아쉽다'는 사람도 많았다. 5명이 꼭 찰 줄 알았는데 아끼자기하게 3명이 모여 앉았다.

우리의 모임 주제는 '회의'였다. 회의. 여럿이 모여서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른 정의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 여럿이 모이기는 하지만 의논은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면 문제가 늘어난다. 신기한 경험이지만 다들 겪었던 일이기도 하다.

비영리단체는 '민주적인 조직'이라서 회의가 더 많다. 국장회의, 팀장회의, 팀회의에 더해 전체회의도 열린다.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전체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 조직이 많고, 때때로 조직의 중장기 비전 수립, 임금·휴가제도 등의 노동조건 변화, 기타 중요한 조직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매우 귀찮고 성가시다. 회의 때문에 일이 밀리니까 더 싫다.

이야기모임에 모인 참석자들의 상황도 비슷했다. 다들 회의가 참 싫었다. 회의를 해 봤자 일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업무가 밀려 짜증난 경험을 다들 갖고 있었다. 때로는 마음을 다치기도 했다. 회의 때 마주한 동료들의 반응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가장 먼저 나온 얘기는 공유 사항만 있고 안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공유할 일과 공유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상황은 대략 이렇다. ①활동가A(팀장회의일 경우 A팀)이 지난 주에 어떤 업무를 했고 누구와 미팅했는지, 이번 주에는 무슨 업무를 할 건지 듣는다 ②의견을 말해보라고 한다. 덧붙일 말이 없다. 궁금한 것도 없다. 내 업무와 상관이 없으니까. 질문도 의견도 나오지 않는다. ③신기하게도 종종 누군가는 질문을 하곤 한다. 아무도 말이 없으면 팀장(팀장회의일 경우 사무국장이나 대표 등)이 코멘트를 한다. ④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유를 한 뒤 안건을 공유한다. 안건이라 해봤자 별 거 없다. 이번 주 행사에서 실무를 나누는 정도다.

한 참석자는 "다른 팀이 행사 준비를 위해 어떤 외부업체를 만나는지 내가 꼭 알아야 하나? 이럴 거면 10분씩 사무국장 방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싶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의 단체는 회의 전에 안건지를 쓰도록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안건지를 써와도 '안건'이 아닌 공유사항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가끔 이런 공유 위주의 회의에서도 질의응답이 나올 때도 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시

죠?” 문제는 이게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격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질문의 상당수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내용이다. 행사를 하는데 정작 (빈틈이 많은) 행사의 방향이나 컨셉, 목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이 ‘우리 조직답지 않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문제의 원인으로 흘러갔다. 우리가 낸 결론은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안건을 뽑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험과 역량이 딸린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자신이 회의를 주최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안건 위주로 딱 1시간만 회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안건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한 구성원은 회의 때 업무 공유를 하다가 자신의 고충과 고민을 길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그걸 안건으로 정리해보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안건을 만드느라 업무가 밀리면 그 업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안건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 ‘논의’를 한다는 것은 권한이자 책임 또는 부담이기도 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는 일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때로는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 위한 논의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목표, 방향, 세부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보통은 이렇게 먼저 안건을 만들어 회의에 올린 사람이 총대를 멘다.

그런데 우리의 회의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 실제로 “어차피 권한이 없다. 그냥 의견만 내는 것”이란 말을 회의에서 듣는다. 권한은 팀장에게 혹은 국장이나 대표에게 있고 이사회나 회원총회에 있다. 때로는 조직적 결정을 내리는 조직도 있기도 한데, 조직이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나는 그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회의의 본질은 의사 결정이고 좋은 의사 결정을 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좋은 안건을 만들고 의논하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경험과 역량 효능감을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아무리 신기하고 재미있는 기법을 동원해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자주 많이 길게 회의를 해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도독일 뿐이다. 회의를 하느라 하루가 다 가면 우리는 야근을 해야 한다. 수당도 못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덜투덜대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이번 모임에서는 안타깝게도 더 나은 회의를 모색하지는 못했다. 좋은 회의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성공 요인이나 공통점을 발견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었다. 대신 더 나은 회의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단체들의 회의체 종류와 형식, 주요 내용, 시간, 효능감을 조사하고 대안적인 회의 사례도 찾아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구인 셈인데, 다들 바빠서 내년에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래도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서 참 좋다. 피곤해서 자꾸 하품이 나오던 와중에도 가슴이 뛰었다. 맛있는 음식, 즐거운 수다와 더불어 이것도 이야기모임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서울 #조직문화 #11.6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 활동가 조직 내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배선영 단체활동가



얼마 전 조직에서 법정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시작 전, 한 활동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니 뉴스에서나 들었을 법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교육 받는다는 게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문제라고 하기에 참 애매하지만, 피해를 받는 나는 불편하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명확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감정적인 갈등인 경우도 있겠지만 힘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되겠지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만들고 논의를 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서적과 토론회 자료집, 법정 교육 강의록 등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구조적) 문제라고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해당하는 경험이 있다면 마음챙김과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더해보면 좋겠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직장 내 괴롭힘, 왜 해결하기 어려울까? 공론화가 어려운 이유는 괴롭힘을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자와 피해자, 직장 동료들의 입장차이. 해결이 아닌 논의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방해요소들. 갈등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돌파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관계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하거나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이를 인정해야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나도 가해/행위자일 수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 간의 갈등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지’라는 말이 가진 위험성. 개인 간의 갈등이라도 일을 하다 생긴 거라면, 직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폭력은 주로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하고, 어디에나 힘은 작동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 우리가 시민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더 그럴까?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가꾸어나가려면 문제의식을 지닌 활동가의 굳은 의지와 행동, 끈기가 필요하다. 조직에 대한 애정과 활동에 대한 열정이 기본조건. 행위자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잘못 자체를 냉철히 짚어 드러내고 거기서 나아가자.
- 앞에서는 좋다 말하고 뒤에서는 바구미랑 같이 일 못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안전치 못한 조직에서 ‘동료들이 당신과 일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는 워선의 막말을 참고 견디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동료의 에너지,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 거친 세상이다. 바른 일하는 곳이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고, 좋은 일 한다는 단체에서 마음 다치면 활동가는 위태로워진다. 마음을 돌봐야 한다. 나를 돌보고 너를 돌보고 우리를 돌보고 같이 걸어가야 하지 않나. 하던 대로 사는 게 편하고 좋은 빅마우스들아! 자기는 늘 옳기만 하여 남에게 함부로 칼자루 휘두르는 가난한 사람이! 난 네가 밋지만 그래도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 나를 돌본다. (고맙습니다.)

후기 에세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알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처음에는 법정 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할까 싶었다. 물리적이고 특수하고 명백한 괴롭힘만 괴롭힘이라고 생각했다. 법정 교육을 받고 ‘이런 사례도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다. 우리 안에도 괴롭힘이 있어왔지만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명할 수 있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다.

괴롭힘은 없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되는지가 중요하다.

작은 따옴표 안에 담긴 단어를 만나면서 나도 조심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 ‘언어 폭력’, ‘갑질’ 같은 단어를 접했을 때 나도 가해한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성찰하게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모를 때는 ‘개인 간의 갈등’ 또는 ‘민감함의 정도’ 또는 ‘감수성 차이’로 인식했다. 공격 또는 비난이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내 잘못이 아니라 괴롭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해결 방식의 차이에 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결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용어에 대한 이야기

말과 행동, 태도 등으로 교묘하게 타인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하는 것을 ‘moral/psychological harassment(정신적 폭력/괴롭힘)’이라고 한다. 특히 직장에서 ‘너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대놓고 퍼부어대는 등 직책이나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처지인 사람을 공격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power harassment 즉 권력형 괴롭힘이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관건이다. 가해자가 아닌 행위자. 피해와 가해의 관계가 아니라 불균형적인 힘의 구조 아래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 폭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까끌거림이 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다. 괴롭히는 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자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괴롭힘 그 자

체에 대한 진단과 논의가 더 필요한데 말 걸기 자체가 어렵다. 부드럽게 표현하면서 접근해야 할까.

괴롭힘 사례

은근하고 교묘한 방식의 잘 드러나지 않는 공격과 나를 향한 누군가의 행동과 태도가 불편하고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민감한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고민하면서 시간이 꽤 지날 때까지 공격받았다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심리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수동적인 공격, 꼭 필요한 업무 메시지에 답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일과 관련된 소통을 하는 데 일관성이 없는 태도와 기체가 알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건데 알람 체크하듯이 대하는 태도도 문제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기, 누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전언, 특정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괴롭힘의 사례다.

해결 단계에서의 고민들

-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 갈등 조정 기구에서 전담하기 : 별도의 기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을까?
- 행위자와 피해자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 조직문제를 몇 차례의 워크숍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해결의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 조직 내에서 마음 돌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 외부 전문가 개입이 필요할 경우 어떤 사람이 적절할까?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 전문가 : 심리상담사, 마음 돌봄에 대한 전문가,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조직 진단 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변호사) 등.
- 외부의 상담소와 제휴를 체결. 내부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 놓기
-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한 논의 필요 : 권한과 위상 부여, 안전성 등
- 조직 리더의 의지

각 주체별 떠오르는 생각들

- 피해 호소자 :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받으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태가 됨. 그런데 조직에서 나를 공격한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개인적인 갈등 경험이 있으면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 '화'에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도망가게 됨. 나를 지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못하

고 자꾼 눈치를 보게 됨. 피해자는 ‘내가 잘못했나?’,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하게 됨.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는 생각.

- 조직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태도. 애매한 상황에 대한 판단 유보. 일을 잘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판단을 함께 하고, 그 방해 요소를 멈춰야 하는데 안 됨. 왜 안 될까?
- 피해 호소자와 가까운 동료 : 괴로워하는 동료가 있을 때 옆에서 나 역시 무기력해지거나 위축됨. 조직 문화를 고민하는 데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쏟음. 해결하는 데에 긍정적인 힘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려하고 잔뜩 긴장하게 됨. 개인 간 일어난 갈등이지만 일을 하다 갈등이 생긴 건데 조직적으로 접근해야하는 것 아닌가? 반응도 결코 개인적이지 않음. 주변 동료들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활동 동력을 잃음.
- 행위자 : 행위자 스스로도 내가 하는 행위가 조직에, 동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성찰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려움. 행위자가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미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더 건강하게 즐겁게 일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더 나은 업무 공간을 위해 점검하자는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 행위자 입장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헛갈림. 과도하게 행위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안 되고 더 단호해져야 할까. 우리가 동료이기에 함께 해온 시간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텐데 그럼에도 선을 긋고 행위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먼저

암묵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은 분명 존재하나 진단조차 안 되고 있다. 확인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 마음 돌봄, 조직 문화 등등 맨날 하던 얘기 하더라도 대화의 장이 절실하다. 일종의 장치,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구비해줄 수 있는 장치라는 식으로 단순하고 담백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파주 #조직문화 #11.2

한번도 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숨숨 사회투자지원재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은 10년이 넘었고,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게 활동한 신입 활동가입니다. 저와 같은 신입 활동가는 새로운 사람들과 지내면서 낯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젠더, 의사결정구조, 일하는 태도와 방식 등에 대해 내가 지향하거나 경험한 것들과 다른 상황들. 때로는 그러한 낯설음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조직의 문화에 적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제가 있던 동안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젠더, 의사결정구조, 일하는 태도와 방식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조직의 사람들

과 보다 오래, 또 행복하게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불편한 듯, 불편하지 않은 조직 문화 이야기, 함께 하실래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의 다름, 관점의 차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 일과 근무방식, 활동방향 등에 대해 조직원들이 느끼는 내용은 비슷하다. 이를 세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공감하고 있는 우리 조직의 현 위치에 대해 확인했다. 공감하면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게 되었고,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조직에 대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더 나아가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게 어쩌면 소진을 막는 긍정적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다.
- 우리 조직이 의사결정시 과정을 중시한다거나 조직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일을 처리할 때 원칙을 세워 적용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개인의 성장이 조직이 성장과 연결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들으니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겠다.
- 모임 여는 말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 구성원들과 함께 같음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이야기카드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도구로는 좋지만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엔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다.
- 오늘 이야기 카드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내년에 조직문화 및 활동 계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오랜만에 단체 구성원들과 외부로 나갔다. 아니, 이번에 새로운 구성원 두 분과는 처음으로 야외에 나간 시간이었다. 가을의 푸르른 하늘이 반겨주어서 가는 길도 상쾌했다.

우리 단체의 사무실은 노원구에 있다. 그런 우리가 파주까지 간 이유는 그 곳에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활동가 분이 잠들어있기 때문이다. 다같이 인사를 마치고, 우리는 능이버섯이 함께 나오는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다. 매번 사무실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었던 점심.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여럿이 같이 무엇을 먹기도 어려웠는데 오랜만에 아주 푸짐한 점심을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근처 카페로 가서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성원들끼리 감사장을 작성하여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바쁜 일상에 때로는 놓치고 지나갔을 법한 감사 인사를 이번 기회에 나누고 싶었고,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로 모임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바탕 수여식을 마치고, 조직문화 이야기 카드를 중심으로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전날에 매뉴얼을 보면서 익혔지만, 그 연결고리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문화변역이라는 책 속에 나왔던 199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몸체에 대한 문화를 언급하며 시작하였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코피가 나고 기침에 피가 섞여 나와도 그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종의 자부심처럼 느꼈다고 하는 문화인류학 관련 서적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화가 당시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문화도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라며, 그렇게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 조직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조직에서는 일과 개인 생활의 불균형이 가장 공감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여러 관점들, 즉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관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카드를 꺼내 이야기를 나누는 후에 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순간 당황스러웠다. 무엇인가 여러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지만 이를 마무리하는 방법은 미처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할지 구성원들에게 물어보았고, 구성원들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다, 더 깊게 이야기나누지 못한 것 같다, 해결책까지 더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등 다양하게 의견을 주었다. 결국 모임 회고지를 작성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소감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끝을 마무리하면 좋았을까, 이것은 진행자로서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이다.

이야기모임을 마치고 보니 조직문화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관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모자이크가 되어야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색으로 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자이크. 그런 조직문화. 이번 모임을 계기로 우리 조직에서도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구성원들이 반겨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또 언젠가 할 수 있기를. 그때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산 #조직문화 #11.3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활동가들의 노동(인)권

장미한송이 중간지원조직 청년공익활동가



지역에서 공익 단체의 청년활동가이거나 청년세대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 하나가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만 받고도 일할 수 있을까?’, ‘활동가는 왜 늘 희생과 봉사해야 할까?’, ‘활동가에게 노동법은 왜 지켜질 수 없을까?’ 등 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이다. 온라인 대나무숲에서만 풀어내던 활동가의 노동(인)권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나눠보고자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지역에서 활동은 하지만 관계가 없던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나는 어떤 곳에서 활동하는지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에 집중했고, 활동하면서 좋은 점들과 어려움들을 깊이 있게 나누었어요. 특히 청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고민과 힘들음 주로 이야기해서 생생한 전달이 때론 공감과 위로, 때론 분노와 서러운 감정들이 교환되었어요.
-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우려면 우리 안의 반복되는 갈등을 꼼꼼 넣어두지 말고 어디 서든 말하고 표현하고 풀어내고 해결하자.

- 만남이 설레고 긴장되고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는 활동가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감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껏 활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해요'라고 이야기한 활동가들의 이야기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간을 마련하고 이야기 장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모임이었어요. 신청하기 너무 잘했고 이후 모임도 해보고 싶네요. 다른 이야기 카드들도 궁금해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지켜져야 하는데,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는 해도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일하고 있는 단체에서 청년활동가로서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 문제는 나 하나가 바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일하던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함께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다시 느꼈다.
- 지속가능한 활동가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와 '노동권' 두 개를 합쳐보니 청년활동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진지하게 회고할 수 있었다. 활동가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해져야 지속가능한 활동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활동가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식하고, 소외된 노동이 아닌 삶과 일의 전망이 연결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이 되도록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 세대와 세대, 개인과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의 구조적 문제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 지역에서 청년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해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단순히 청년을 소비하고 정책의 준비물로만 활용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짧은 시간이라 이 모임 이후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어가고 풀어나가고 정리할지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모여 차 마시고 떠들고 웃고 화내는 것이 꽤나 좋은 경험이었고 의미 있었어요.
- 활동가로 일하며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활동가들과 나누니까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주최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다른 환경과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집중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 이런 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온 이야기가 비단 이 지역 문제만은 아니겠죠? 모아둔 이야기를 잘 모아서 무엇이든 변화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김해 #조직문화 #11.2

활동가들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신은경 김해도서관문화연구회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조직 내에 많은 갈등을 겪는데 이것을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주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각자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자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보내주신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이런 작은 모임을 계속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기분 좋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알아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를 찾았습니다.

- 서로의 고민과 가치를 이야기나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면 갈등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솔직 담백한 본인들의 경험과 느낌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많은 시민(활동가)들의 성장을, 그리고 나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그 과정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 오늘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톨을 활용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고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했다. 이런 자리가 자주 생기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평소 활동가들의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뻐했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가슴앓이를 하는 모습에 좋은 방법을 찾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인력난 부족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겪는 갈등 또한 다양하다.

조직과 갈등을 겪는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는 경우, 자기 자신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갈등을 우리는 잘 해결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혼자 삭이거나 또는 직접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쌓여 조직 전체가 흔들리거나 와해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 개인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의 공지를 본 순간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해야할지조차 정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일정을 정하고 우연찮게 오늘 문화재단 책임연구원 모임에 갑작스럽게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다들 허락해 주셔서 부랴부랴 활동기록지와 이야기카드를 가지고 참여했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대화에 몰입하게 되었고 속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직 내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며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된 원인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또한 본인들이 생각했던 단점들이 단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시점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경험에 위로를 받기도 했다. 우리 또한 다른 활동가들의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야기카드를 통해 이야기 하니까 본인의 의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

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거운 대화 주제였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진행자인 내가 카드 활용법을 좀 더 숙지하고 시간을 여유있게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견들을 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팀이 있다면 카드 활용법을 제대로 익히고 참여한다면 좀 더 풍성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길 원했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오늘도 우리는 어제의 우리보다 조금은 더 성장한 것 같다. 김해의 모든 활동가들 파이팅!!!

1인 상근인력과 조직운영의 고충

유재임 군산시민연대



1인 상근자나 상근인력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단체 활동은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고충과 조직 임원들의 생각과 사무국 운영자로서의 고민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조직문화카드의 상황 카드 속 이야기 중에서 '의사결정이 자주 반복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 6년 된 조직이나 23년 된 조직이나 현재 고민은 같다는 것을 이야기 속에서 다시 느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조직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 분배로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집행을 위한 서로 간의 노력을 자주 요구해야겠다.
-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 멈춰라.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조직이어도 공통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며 배

왔다.

-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좋았다.
- 카드를 이용한 이야기 전개가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조직 운영위에서도 해보고 싶다.

후기 에세이

지방소도시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을 한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시작할 때보다 가장 표나게 줄어드는 것은 상근활동가들이다. 몇 년을 하다가도 현실 앞에 부딪치거나 새로운 영역을 찾아 떠나다보니 상근인력이 없다. 여기에 신생단체들도 활동가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상근활동가가 줄었다고 한다. 단체 활동의 총량이 줄지 않고, 상근활동가는 없다보니 그로 인한 업무적 하중은 늘어난다.

활동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초창기 단체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은 지역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보니 일부 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단체대표와 운영위원들도 겹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단체 운영의 상당 부분을 상근활동가들이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활동가들은 지역현안이 생기면 '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이는데, 사안이 많을수록 연대 단체도 늘어나지만 핵심활동가는 상근자가 있는 단체에서 맡다보니 실무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역의 상근활동가들은 회의에서 만나고, 집회에서 만나고,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있지만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활동의 어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밥 한번 먹자'는 약속도, 동네 뒷산에 가자는 약속도 단체 일정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 2020활동가이야기주간 모임을 하면서도 초대에 응해 준 활동가 중에서 당일 단체 일에 밀려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 모임 후에 밥 먹자는 제안도 며칠 후에나 가능했으니까.

활동가이야기모임이 쉽지 않게 열렸지만 초대에 응해준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 잘 드러내지 않은 고민과 상근활동가로서 일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조직문화 상황카드에서 긍정보다는 부정, 긍정을 역으로 풀어야 하는 단체 상황을 서로 보면서 조언과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지역에 NGO지원기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책임자 교육이나 강좌, 조직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대표와 운영진, 상근활동가들이 조직 미션이나 조직 활동을 진단하고, 서로가 방향을 세워나가는 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는가? 필요하면 재정 투입을 통해 조직진단과 평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지. 활동가 충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단체가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대표나 운영진들이 상근활동가가 바라보는 현실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남는다.

아마도 2020활동가이야기주간 이야기모임을 신청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오랫동안 활동한 상근활동가로서 지역의 다른 활동가에게 공감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 짧은 이야기모임이 친밀감을 높이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모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

#청주 #조직문화 #11.5

2030세대와 4050세대가 바라보는 시민사회 조직문화 진단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의 조직문화, 위계에 대한 이야기.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나누는 시민단체의 조직 문화 이야기 모음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시민사회단체의 위기, 조직의 보수화, 활동가들의 연대 중요성. 젊은 활동가들이 외

면하는 시민사회단체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가들과 임원들 간의 조화는 어때야 하는가? 시민단체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2030세대의 시민단체 조직문화 진단이 소중했고,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모은걸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근차근 해보자.
- 조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조직은 자율적인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곳이며 위계질서는 그 자체로는 올바르지 않다.
- 최근 지역 내 사회단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직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예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좋은 성과이겠지만 조직 내 위계적인 문화, 신입활동가들을 도구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꼭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다.
- 시민사회의 인식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세대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서로에게 의지와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의 조직이었으면 한다.
- 늘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특정한 주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독립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 #조직문화 #11.6

청년활동가들의 활동경험 나누기와 그 속에서의 조직문화 털기

임아현 대구청년은행 디딤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정당운동, 청소년운동 등 여러 운동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해온 청년활동가들이 모여서 각자가 겪었던 단체 또는 활동내의 조직문화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활동 하는 조직, 또는 만들고 싶은 조직의 방향과 이미지를 공유하고 활동과 일에 대한 철학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진행은 서울에서 만나서 진행할 예정이고,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제작한 조직문화 워크북을 참고로 하여 체크리스트 형식 또는 키워드에 맞는 경험을 구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개인의 소신과 책임감/활동과 개인의 삶의 괴리 매뉴얼의 부재. 같이 일한다는 느낌은 무엇인가? 조직 내 평가의 중요성과 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 공동의 감각, 목표, 관계, 대화, 결정방식 등 서로를 살피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 일에 대한 철학과 어려웠던 경험과 사례들을 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이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조직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어떤 조직문화를 원하는지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은 생각보다 만들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혼자 꿈꾸는 것은 공허하지만 같이 꿈꾸면 현실이 될 수 있겠다가 오늘의 결론.
- 기존에 운영하고 유지해오던 조직문화, 조직방법 등을 경험에 기반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안전한 공간 만들기, 각자의 경험과 생각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조직해나가기.
- 기본적으로 자본과 인력이 없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생각보다 고민과 문제의식이 많이 남아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카드에서 활동가들이 서로 바쁜 것을 알기에 스스로 희생을 당연시하거나 강요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개선되어야 한다.
- 공통의 활동기반이 있어 그 기반의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지만, 각자의 활동 역사나 현재 주되게 활동하고 있는 기반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조직에서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제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기획해주신 단체, 주최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째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이야기주간에 함께해서 좋았고, 다른 활동가들이랑도 진행하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후기 에세이

“우리 소속에 뭐 적어?” 모임이 끝나고 후기를 적으려고 할 때, 참가자들이 멈칫하고 물었던 질문이었다. 누군가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고, 누군가는 활동하는 곳이 자기가 소속된 곳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또 누군가는 ‘하시는 일’에 일하는 직장을 적기엔 활동가이야기모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임의 기획자로 내가 제안한 ‘하시는 일’은 ‘진보정당 활동가’였다.

나는 20살이 되자마자 진보정당에 가입했고, 시민운동과 일상을 가까이하며 보냈다. 그렇기에 진보정당운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진보정당운동이 시민운동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주변 친구들은 애써 고민하지 않을 문제를 고민하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 나와 같이 20대 시기를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조직문화들을 얘기하고 공감하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모임원의 5명 중 4명은 진보정당에서 기획한 교육아카데미에서 6개월을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였고, 나머지 1명도 당내 선거를 통해 연을 맺어 정당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활동가였다. 우리는 다른 운동과 다른 조직문화를 거쳐 진보정당에서 만났다. 청소년 운동, 성평등 교육 활동, 퀴어문화축제, 청년 조직 등 각 개인은 무어라 정할 수

없는 여러 소속과 단체 속에서 활동가로써의 정체성을 다져왔다. 진보정당 활동이 공익 활동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시민운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또 현재의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서로 연대하고 교차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면, 진보정당 속에서 활동하고 고민하는 당사자들의 경험은 충분히 공익적이며 새롭게 추동하는 가능성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는 정당에서 만났기에 이전의 활동 이야기를 터놓고 나눌 기회들은 적었다. 조직문화 카드를 통해 정당 활동 이전에 각자가 겪은 경험을 떠올리며 조직 속에서 활동가로 존재하는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나눴다. 상황 카드를 고르고 뽑아보니, 조직의 평판이 좋으나 확실한 리더십이 있다같은 좋은 카드들도 나왔지만 나쁜 상황 카드들이 대부분이었다. 조직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업무 배분의 문제와 개인의 소진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활동하기로 선택했으니 활동가가 소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들, 운동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여기는 태도들이 개인에게 피로함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고민 끝에 한 장으로 정한 상황카드는 '일과 개인의 생활이 불균형하다'라는 카드였다.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가져야 하는 사람에게는 활동이 개인의 생활인지, 아니면 일인지 정리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사적인 네트워크들이 공적인 일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선 긋기가 힘들다는 경험도 있었다. 일상과 활동이 분리되지 않거나 둘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힘든 스트레스 때문에 활동을 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매뉴얼과 결정구조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활동 자체가 어려워도 스스로가 선택했으니 지속하고 싶지만, 일을 가르쳐줄 흔히 말하는 사수가 없는 점, 참고할 만한 매뉴얼도 없으니 계속 부딪히고 실패하고 소진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주로 시작하는 조언도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아닌 대화가 이어진 경험도 있었다. 조직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정권한이 많은 회의체들만 들어가니 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자연스레 흐름에 뒤처지고 늦은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 답답함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두 동의했던 것은 우리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직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끊임 없이 이야기 나누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그리고 활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조직을 겪고 활동을 하다보면 뿌듯함과 어려움이 같이 찾아온다. 어느 순간은 행복하고 어느 순간은 다 그만두고 모른 척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런 활동에 붙잡아 놓는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다는 것, 함께하는 동료들이 밀어주고 끌어주며 연대하기 때문이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주변 동료들의 생각과 경험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가능한 한 오래 지지치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딛는 구성원들을 기대한다.

#수원 #조직문화 #11.5

조직의 규칙, 활동가들이 직접 만들면 더 좋은거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많은 경우 조직의 규칙(내규, 반(성)폭력 규칙 등등)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찾아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활동가들에게 부여되는 것이어야 할까요? 자신이 내용을 만들고, 의미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규칙을 함께 점검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야기 모임을 통해 기존의 조직 규칙 및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활동가들이 그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달리하여 이야기모임을 가져보면 좋을 듯하다. 다른 카드를 활용하여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야기의 양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로의 욕구를 잘 전달하고 이해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각자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무게, 우리 단체에 대한 평가 등 긍정성과 부정성을 확인하며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별적으로 단체에 대한 지향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
- 준비한 것보다 풍성하게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 명석을 깔아주니 활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후에 이어갈 이야기를 정리하여 공유하면 좋겠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을 신청해서 진행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공통으로 나온 이야기가 평판이었는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 중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 있었다. 바쁘지만 긴장이 느슨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자주 이야기 되었던 내용을 시각화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었다.
- 구성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내가 가진 고민을 잘 나누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내 기준과 경험으로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말하는 용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조직문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든 긍정적인 점이든 서로 나누어야 뭐든 일어난다. 말 안하면 모른다.
- 이야기카드 활용과 모임 진행 관련 진행자 오리엔테이션이 사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직문화 이야기를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었고, 다른 이야기카드가 궁금해서 또 다른 카드도 받고 싶었음.
- 평소에도 생각하던 것들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깬 듯한 느낌. 일부러라도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게 되었다.

후기 에세이

활동가 이야기주년을 신청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있다. 역사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 전통이랄까 관습이랄까 활동가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행동 지침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의 구체적 내용 혹은 그것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도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의 기대, 전통 혹은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서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불편한 감정이 쌓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문제를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일부러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활동가 이야기주간에 신청한 것이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활동가주간 첫 날에 상임활동가 중 한 명이 배우자상을 당했다. 그래서 모든 활동가들이 삼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발인까지 함께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약속했던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다들 피곤이 다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고, 나 역시도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하자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둘러앉았다.

다행히 이야기카드 덕분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쉬웠다. 참여했던 모두가 이야기카드가 너무 좋았다면서 다른 주제의 이야기 카드도 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활동가들도 이야기카드의 주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덧붙여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활동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이야기 주제를 점점 좁혀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주제는 바로 단체의 평판이었다. 아무래도 다산인권센터가 역사가 오래된 단체이기도 하고, 대추리, 밀양 송전탑 싸움,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강정 해군기지 싸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 박근혜 탄핵 등 전국적으로 중요한 인권 사안에 참여하며 역할을 해오다보니 심지어 활동 경력이 그리 길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산에 대해 외부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선배 활동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다산의 평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활동해야 한다는 압박의 무게가 생각보다 크고, 그 때문에 내가 과연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라는 고민을 자주 한다는 것을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어떻게 하면 단체의 평판이 활동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재미난 활동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그리고 단체의 경험을 통해 과거의 경험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지난 시간 쌓여온 단체의 평판에 너무 얽매이기 보다는 앞으로 지금 활동가들이 어떤 평판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이야기 주관이 아니었다면 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 즉 좋은 점이든 아쉬운 점이든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교훈 역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 날 나온 이야기들을 좀 더 정리하여 이후에 논의를 이어가자는 약속으로 이야기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 #조직문화 #11.6

지속가능한 단체 활동을 위한 조직문화 돌아보기

최나현 한베평화재단 상근활동가



내년이면 단체 설립 5주년이 됩니다. 이를 맞아 올해 우리 단체는 후원회원과 관심 있는 대중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단체의 활동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기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업 방향과 단체 비전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이후에도 함께 단체와 운동을 이끌어 갈 활동가들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조직이 더 건강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이들의 요구와 생각을 짚고 이를 단체에 반영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어도 당장 앞에 놓인 업무와

행사 등의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게 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단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가 이야기주년을 맞아 단체 소속 활동가 5인이 한 자리에 모여 단체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생각, 고민, 기대, 평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올해 마무리와 내년 준비를 하는 시점에 깊은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활발한 토론을 위해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야할까? 오늘 나는 대화를 기반으로 우리 조직에서 당장 실험, 도전해볼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이 있는가?
- 우리는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문화가 없었던 것이다.
- 어쩌면 조직에서 가장 연차도 낮고 나이도 어린 활동가가 조직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꺼내는 것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적절히 없다고 생각하면 어찌지하고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1%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다들 먼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다. 믿음과 진심이 느껴졌다. 오늘 나는 대화들을 이후에도 상기시키고 계속 꺼내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조직문화는 결국 조직의 구성원인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활동가, 실무자, 노동자로서 나를 돌아보며 결국 어떤 활동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이후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멋진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나와 서로를 챙겨가는 대화가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 조직문화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생각하고 소통하고 노력해야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상황, 사건, 사고 구성원간의 성격차이 등에서 오는 불화에 끌려다니는 조직이 될 것이다. 테이블에 앉아 조금은 가식을 떨더라도 이야기하고 수다떨며 노력하자.
- 10년 후 나와 조직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자리에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조직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 10년 후의 재단과 10년 후의 나. 10년 후 꿈꾸는 재단의 모습이 비슷하고 그 안에 있는 고민들도 닮아 있는 것이 글과 말로 직접 들으니 더 신기하기도 했다. 나는 10년 후 여전히 재단에 있거나 혹은 재단 밖에 있지만 그럼에도 베트남전쟁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으로 있으려는 것, 불투명하지만 계속 베트남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 두 사람이 갈등과 관련된 카드를 뽑았다. 하지만 정말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 것, 서

로에게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것, 상처주지 않으며 과하게 애쓰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일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 문제인식이 과연 옳은가?

- 일에 치여 생각해보지 않았고 덮어 두었던 주제를 꺼내 서로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베트남 지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함께했는데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으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 아쉬웠다. 활동가주간에서 나눠준 카드로 적절히 우리 주제에 함께 사용하니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 신선했고, 하나의 주제로만 깊게 이야기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기 에세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2020년 9월, 우리 단체는 창립 4주년을 맞았다. 창립 기념 행사를 진행했고, 후원회원과 관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방향과 단체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였다. 한바탕 몰아친 일정을 끝내고 나니 문득 깨달은 사실. 우리 단체 생일 기념 행사였는데 정작 당일에는 일하느라 아무도 서로에게 축하를 건넬 생각조차 못 했다. 케이크 초도 불지 못했고, 기념회식도 못 갔고, 활동가 식구끼리 찍은 기념사진도 없었다. 단체 활동과 사업 성과만큼 중요한 것이 함께 조직과 운동을 이끌어갈 활동가들의 마음을 살피고 더 건강한 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인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이처럼 당장 앞에 놓인 업무와 행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토론이나 인식 공유를 나중으로 미루거나 소홀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우리 단체는 이메일을 통해 '2020 활동가이야기주간'이 열린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사무처장님이 '조직문화'를 주제로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나와 우리 조직문화에 대한 의견을 투명하게 나누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생각, 고민, 기대도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다. 다른 구성원들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를 했고, 재단 활동 1년 차의 막내인 나의 몫으로 주어졌다. 평소에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이런 토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막상 그 실행의 역할이 나에게로 오니 재밌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안 그래도 바쁜데 왜 나에게 실무를 추가하지?!'라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괜히) 동료들로부터 '신입이 뭘 알겠어'라던가 '젊은 활동가들은 참 어려워' 같은 지적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야기하는 과정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지레 겁먹고 걱정도 되었기 때문이다.

막상 진행을 하려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다른 단체의 상황과 활동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기존의 활동가 연구보고 자료 2종(2019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을 공유하고 서로 미리 읽어와 나눠보자고 했다. 통계와 데이터 수치로 그리고 심층 인터뷰로 활동가와 시민단체의 상황을 확인하니 보다 객관적으로 나를 둘러

싼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다. 나 그리고 우리 조직의 현황과 비교해보며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고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눠 봤다.

그동안 서로 일하며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는데도 정작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이 생각하는 진단, 기대,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조직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직과 나를 함께 고민하는 방법과 분위기가 부족했다는 걸 알았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를 같이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직보단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큰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직도 내 미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우리 조직의 10년 후에 대해 상상해보았다. 우리의 조직과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리고 그 미래에 나는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며, 없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역시도 10년 후 자신을 조직 안에 넣고 고민하는 사람도, 조직 밖의 이해관계자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조직과 조직이 고민하는 문제에 계속 마음과 관심을 갖고 살고 있을거라며 자신을 상상했다는 것이었다.

우리 조직에서 토론 문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토론 문화가 어렵다는 토론을 하는 게 쉬울 리가 없지.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주제별 이야기카드를 활용해서 대화를 촉진시켜보야겠다고 생각했다. 카드를 사용하니 훨씬 더 이야기 꺼내기가 쉬운 느낌이었다. 자연스럽게 토론 문화와 더불어 조직문화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연차와 나이 차이 때문도 있겠지만, 활발한 토론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개인보다는 구조적인, 전체적인 조직 내 문화 탓이 더 크지 않겠냐고 했다.

모두가 동의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는 평소 '회의'와 '토론'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무 점검과 사업 논의 위주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상당히 한정적인데 말이다. 평소에도 수다를 많이 떨자, 회의가 늘어진다면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니 회의 시간을 제한해놓고 치열하게 하자, 모든 구성원이 한 번씩은 꼭 의견을 내도록 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자리와 시간을 만들어야만 하게 되는 일도 있으므로, 사무점검 회의와 별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가능한 다른 조건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금요일 오후 시간을 통째로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하는 데에 쏟았다. 모임공간을 나오며 다들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하고 놀랐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던 것이겠지? (적어도 나는 그랬다) 다시 퇴근 전 급히 밀린 업무와 메시지를 처리하는 일상으로 급 돌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었다. 동료들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동료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조직과 일을 잘해보고 싶구나

하는 믿음이 있으니 든든한 힘이 어디에선가 자꾸 솟아났다.

여전히 해결을 고민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좋았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될테니까. 기회가 있다면 이후에도 계속 활동가 동료들과 함께 활동가이야기주간에 주기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도 매년 이 주간이 되면 자연스레 ‘아, 우리 조직과 동료들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군’ 하고 한숨 돌리며 생각하게끔 말이다.

#음성 #조직문화 #11.5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은 왜 연대를 하지 못할까?

최영오 환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모임의 주제는 '연대'입니다. 특히 음성군과 진천군, 증평군의 경우 관과 지역주민 사이의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활동가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나 연대를 통한 중재 등이 전무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라고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연대를 통한 지역 환경문제의 고민과 교류만으로도 충분히 충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각각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지역의 환경문제 - 꼭 환경에 국한하지는 않겠지만 - 등을 이야기하고 이를 종합하며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에는 청주 중심의 환경문제는 자주 부각되는 반면 군단위에는 연대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NGO의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은 많지만 지역의 난개발 등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한다. 모인 이들만이라도 '시민'의식

을 깨우는 일들을 해보자.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 다시 모이자.

- 지역의 환경운동, 시민운동을 위해 작은 연대조직을 만들자.
- 음성, 진천군의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지역에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주로 지역청소,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산업단지도 많고 축사도 많아서 오염된 공기와 토양, 물을 감시하고 정화하도록 하는 환경운동이 필요하다.
- 주변의 환경이 이대로는 안된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구체화해서 활동해야 한다.
- 갑작스런 공업화로 환경을 무시하고 편리함만 추구한다. 후손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 악취포집 차량을 활용하여 생활 속 악취발생지를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에 붙은 인쇄물을 제거하고 버릴 것인가, 그냥 버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모두 제거하면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견에 대해 심적 충돌이 있었다.
-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운동은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므로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환경을 지키고 개선시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세대차이

#용인 #세대차이 #11.4

청년이 마을안에서 살아가는 법

강우빈 청년협동조합 용인청춘놀이터



마을 안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모임입니다. 청년사회주택, 청년일자리 등 마을 안에서 할거리, 일거리 등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청년들이 직접 주도해나간다면 마을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 세대 간에 생각 지점이 명확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청년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기 힘들며 지원을 받더라도 청년들이 서류 정리하기가 힘들다.
- 모임에서 각기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의미와 좋은 경험이었고, 결론은 청년들이 밖에서(마을 안에서) 더 활동적인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체육활동 시설 및 공연장 등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다양한 장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청년들을 마을 어린이들에게 스포츠, 음악, 공부 등 다양한 활동들을 가르쳐주며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각기 다른 청년들이 의견을 냈을 때 존중해주고 시도해보려고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서 정말 인상 깊었다.
 - 이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더 자주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이 인상깊게 남았습니다.
 - 많은 청년들이 고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활동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닌, 활동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창 #세대차이 #11.6

개인활동가들의 세대 갈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의견나누기

배현령 영어강사, 생태·환경·혁신 개인활동가



다양한 직업군의 개인 활동가들이 모여 직업군 내에서 또는 사회활동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세대 차이, 세대 공감,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세대 간의 생각과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각자의 시각도 공유하며 사회현상과의 연관성도 이야기 해보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개인활동가들의 활동 영역에서 그리고 직장에서의 세대 간 생각과 다름에 대한 고찰과 조직이나 사회에서의 세대 간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다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비난의 대상이기보다는 서로의 이야기와 그 다름의 원인을 함께 이야기하여 서로 경청하는 자세로 좁혀나가는 마음부터 시작하자.
- 처음 주최하는 자리라서 돌발 질문이나 시간 안내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지만,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경험 그리고 다름을 듣게 된 멋진 기회였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세대 차이라고 쓰고 개인 차이라고 결론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세대 차이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보다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리더의 자격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이 보는 방향에 따라 끈대가 되기도 혹은 최고의 리더가 되기도 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 같이 이야기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해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과 가벼운 주제로 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오한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네요.

후기 에세이

몇 년간 개인활동가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고 대부분 공익활동가분들은 단체 소속이거나 단체에서 어떤 직위나 자리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을 가지며 개인활동가로 인정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하고 생각도 많았습니다.

올해 경남공익활동가지원센터에서도 개인활동가로도 충분하다고 인정을 해주셔서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차에 경남 이야기모임도 거주 지역이 다른 지인분들을 독려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경남이야기모임의 모티브였던 것으로 보이는 원조 이야기모임이 활동가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기간에 등록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저 같은 개인활동가들과 함께 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직은 서툰 병아리 단계라 그런지 초대 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카페 주인장인 목사님이시자 개인활동가분, 평소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고 조용히 움직이던 학교 후배 활동가, 그리고 같은 동네 주민이면서 자신이 아는 많은 정보공유와 자원봉사일로 늘 열심히 하는 개인활동가,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민단체분들은 워낙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일부러 개인활동가들만 초대해서 우리 안의 세대차이, 우리지역의 세대차이, 우리사회의 세대차이, 우리 직장에서의 세대차이 등에 대한 내용을 경청해 보고 나는 끈대인지, 나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아직 세대차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초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낮에 할까, 저녁에 할까 고민도 많았고, 장소도 카페에서 할까, 사무실에서 할까 등 직장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일에 매진하는 개인활동가들이라 서로서로 배려하며 결국에는 이야기모임 마지막 날 저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모임을 진행하는게 막연했는데 이야기카드가 도착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카드 활용법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1월 6일 다들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 답소 나누며 또 지역사회와 전반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자연스런 이야기 모임의 워밍업이 되었습니다. 6시30분에 시작 할 예정이었으나 7시30분에 모두 도착하여 이야기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만들어온 그라운드룰을 설명드리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과 각자의 이야기 시간,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카드를 사용해서 이야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카드를 활용한 부분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부터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셔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간을 많이 소요되어 11시 48분에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많아서인지 분위기는 좋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더 어리지만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두 분도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활동가분도 계셨고, 오늘 이런 모임을 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분도 계셔서 혼자서의 개별 활동에 조금은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진행을 하면서 나 또한 끈대가 아닌지, 나는 어떤 타입인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하는 계기가 되었고, 상대방에 대한 열린 마음과 다른 세대에 대한 경청이 없으면 서로를 이해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활동가들은 직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런 경험에서 느낀 점들을 직접 듣고, 세대 간의 소통은 리더의 역량과 그 조직의 유연성, 그리고 조직이나 그룹 속 멤버들 간의 거리감 또는 친밀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익숙치 않은 진행이었지만 모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신 참가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모임을 주최해주신 관계자분들도 개인활동가들 많이 챙겨주시고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울 #세대차이 #11.5

94학번과 94년생이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

오진의 어린이어깨동무 간사



94학번과 94년생이 함께 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컴퓨터를 배운 시대, 스마트폰이 당연한 시대, 학생운동이 당연한 시대, 학생운동에서 관심이 멀어진 세대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90년대생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90년대생과 함께하면서 어떤것이 힘들까요?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세대공감 카드 속 주제들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역할, 폰대, 성장, 리더 등이 이슈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단체에서 혹은 이전에 있던 단체에서 서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94학번과 94년생이 일하는 일터에서 94년생은 다른 세대이자 새로운 사람, 신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는 일터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할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우

리가 그동안 눈감고 지나쳤던 나쁜 일들, 나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서로 오해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더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 같은 단체의 활동가들과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의 활동가와 이야기하다 보니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세대차이나 서로 불편한 일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끔찍 앓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나누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이날 꺼내놓은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중에는 서로가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은근히 티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이 알아주기만을 바랐던 것 같은데 역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세대 간 차이에 집중하다 보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소규모 단체에서 일하다 보니 30대 1명, 40대 1명이 마치 그 세대의 전부인 것 같다. 나도 90년대생이지만 이 MZ세대는 잘 모르겠다. 그들도 똑같겠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세대, 시대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세바세(세대 바이 세대)보다 사바사(사람 바이 사람)가 중요하다. 사바사를 전제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존중을 장착하면 차이는 조금 덜 벌어지지 않을까? 차이는 세대 내에서도 벌어진다. 서로가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세대 간이든 세대 내든 차이는 발생한다. 우리에게 오늘 같이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모임, 자리가 필요하다. 공감이 어려워도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모여야 한다. 오늘의 모임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 다른 참가자가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니 편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말해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될까 망설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카드로 온 세대차이 카드 속 주제들(성역할, 폰대, 성장, 리더 등)에 대해 모두가 각자의 경험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참 이슈가 많구나' 싶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주제는 '성역할'이었다. 유난히 성역할에 대한 경험이 유사했다. 여자들은 접대를 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이사장님이 오셨을 때 차나 커피를 타지 않아서 혼났던 경험, 남자들은 술을 잘 마셔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남자 이사장님을 독대하느라 힘들었던 경험 등이었다. 성으로 인해 모습의 차이는 있지만 역할의 차이는 없다고 배웠는데 늘 배운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하지만 동일한 경험은 공감의 토대가 된다. 공감대가 형성돼 점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 문화도 뒤집히는

때가 온다. 오늘처럼 현실의 부당함을 나누는 자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자리였다.

- 활동가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야기 주간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나눈 이야기가 앞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세대차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카드를 받아서 좋았다. 처음 이야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작할까 고민했는데 카드를 보는 순간 단번에 해결됐다.
- 이런 모임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이지 않고 정기적이길 바란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모임을 망설이게 하는데 지원을 받으니 문턱이 낮아졌다.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도 주었다. 코로나 19시대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참 따뜻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이 지속되길 바란다.

후기 에세이

가까운 단체에서 비슷한 나이대에 활동을 시작한 병아리 활동가들이 모였다. 일을 시작한 시기도 비슷하고, 서로 친한 단체이니 다른 곳에서는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다. 실무에서 겪는 고민이나 꿀팁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작년부터 몇 번 모였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만나지 못했었는데,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계기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여러 주제 중에서 세대차이로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기로 했다. 8-90년대생 활동가로 단체에서 막내로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녀가 더 가까운 나이. 사무실에서 밀레니엄 세대의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함께 사무실 근처의 스페인 요리 식당에서 코스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2차로는 와인까지 마셨는데 오랜만에 대접받는 기분이라며 다들 들뜬 분위기였다.

‘94학번과 94년생이 함께하는 일터 만들기’라고 붙인 모임 이름처럼 단체 내에서 ‘90년대생’, ‘젊은이’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우리를 정의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갑자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했는데, 세대공감 이야기카드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야기카드는 세대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이 구체적인 언어로 적혀있었다. 이렇게 같은 세대의 우리만 모여서 이야기하기 아까울 정도로 민감할 수 있는 주제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적절한 키워드였다. 이 카드로 각자 단체에서 워크샵처럼 진행해도 좋겠다는 것에 공감하며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꺼내놓았다.

성역할, 단체 내에서의 성장, 회의방식, 폰대 등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활동가’에게 기대되는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나 어떤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회의록은 고정적으로 한 명의 젊은 활동가가 정리하는지, 회의에서 앉는 자리는 왜 고정되어 있는지, 그것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지 등등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혹은 조금은 불편했지만 사소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모두 다른 장소에서, 다른 경험의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맞아, 나도 그런적이 있었어’하고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아마 우리가 비영리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내와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서로에게 오늘의 모임은 안전한 공간이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시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다. 선불리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않으면서도 용기내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내놓는 참가자에게 ‘왜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것 같은지? 어떤 변화주기는 가능할 것 같은지?’ 질문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도 좋았다.

회고를 하면서 같은 단체의 활동가들은 전혀 내색하지 않아서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사소하지만 혼자서 불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의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터놓을 수 있는 안전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막차시간이 다 될 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다한 이야기는 다시 하자며 헐레벌떡 헤어졌다. 앞으로도 소중한 동료들과 안전하고 든든한 모임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청주 #세대차이 #11.2

조직문화는 세대차이가 아니라 감수성의 차이입니다

이상덕 청주청년회



조직 내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흔히 세대차이라 생각하고 젊은 활동가들이 예민하거나 까칠해서라 치부합니다. 사실 조직문화의 핵심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는지, 성역할, 끈대와 리더의 차이, 카톡 업무지시, 협력이

란 무엇인가, 존중과 대우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주변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나이 많은 사람만 끈대일까? 내 안의 끈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끈대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 의견을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카드 주제가 세대 갈등 및 기존의 삶의 방식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질문들을 던지는 느낌을 받았다. 요즘 그런 구세대와 변화하는 현세대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인 것 같다.
- 정말 저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렇게 상처주고 자기는 조언했다고 생각하겠지? 상대를 도와준다는 명목 하에 상처와 참견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던 와중에 본 문구가 공감되었다.
- 카드 문구 중 '미래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참을 건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인상 깊었다. 나 스스로 점검해보았다.
- 카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양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다양한 카드 속 질문들이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기존에 믿고 행동해왔던 생활 방식이 맞는지 생각해보게 되어서 인상 깊었다.

#대전 #세대차이 #11.3

세대차이 말해 보자고요

이은하 회고록작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활동가들이 대전 지역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살만한 곳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는 이들은 무엇이 살만한 곳인가에서부터 생각이 다르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 활동가들을 끈대라며 적대감(?)을 갖고 바라 보는 청년들이 많다. 한 자리에 모여 세대 차이를 솔직하게 나누며 지역 활동의 협력자로 서로 인정하는 관계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피드백이 충고로 이어지거나 기분 상하는 경험으로 남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피드백이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나눴다.
-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하려면 단어 사용과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 연령 차이가 10살~20살 되는 모임 안에서 충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피드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 업무의 경우는 조언이나 충고가 적절할 수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들어주는 것, 공감의 피드백이 더욱 효과가 있다. 요새 '라떼는 말이야'로 회자되는 꼰대가 되지 말고 열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 조언과 충고가 배제된 피드백이 필요하다.
 - 피드백과 성장은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단어 사용과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
 - 피드백은 상황에 따라 방식을 달리한다.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조언은 충분한 공감 후에 해야만 그것을 조언으로 듣지 않는다.
 - 피드백은 선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며, 평소의 대화 속에도 늘 피드백은 존재한다.
 - 피드백과 성장은 필수불가결의 관계이며 피드백을 주거나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성찰된다.
 - 세대 간 피드백은 선배의 입장에서 늘 조심스럽다. 신세대를 존중하고 내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적질이나 쓴소리로 남지 않도록 해야겠다.
 - 시간의 제한으로 다양한 카드의 제목이 있었으나 선택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 세대갈등이란 주제로 한 모임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쉬웠다. 기획시리즈처럼 만들어 적절한 힌트를 제공하여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여수 #세대차이 #11.1

2030이 바라보는 여순항쟁 그리고 과거사

이해솔 플랫폼C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갈수록 과거사 이슈, 통일 이슈 등은 20-30대에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당사자로서 과거사를 바라보는 50-60대와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본인의 서사와 연결시켜야하는 20-30대와의 괴리는 필연적이다. 과거사 바로잡기가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 나아가 그 이슈를 동세대인 20-30대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사게 할지 고민해본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젠더정의, 동아시아 시민연대, 시민사회운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중심적 활동의 관점에서 과거사(여순)을 해석해냈고, 그 결과 여순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지만 같은 꿈을 꾸었던 나의 선배,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로 거듭났다.
- 민족주의적 사관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학습했다. 우리 선배들(586)과 달리 우리는 다양한 의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에 영향을 주며 홀로, 때로는 같이 하고 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인민 또는 민중이라 뭉뚱거렸던 사람들의 고민들이 세세한 결로 살려내고 이루지 못한 꿈을 전승하는 주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4.3을 기억하기 위해 제주에 갔을 때 잊을 수 없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공간이 있었다. 많은 곳이 그랬지만 그 중 나를 꿈작도 할 수 없게 만는 것은 이름, 이름들이었다. 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추모 공간 벽을 끝도 없이 메우고 있었다. 숫자로 간략히 요약되는 죽음을 안다고 감히 그 아픔의 실체에 다가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 만이라는 수의 공포와 슬픔 앞에 나는 도저히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를 떠올리면 여순은 몹시 아프다. 작은 안내판 하나 세우는 것조차 순탄치 않았던 옛날이 그렇고 희생자 위령비 뒤에 말줄임표 밖에 써둘 수 없는 현재가 그렇다. 내 손은 작고 할 일은 많다. 더 모으는 수밖에 더 알리는 수밖에.
- 여순항쟁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여수로 오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여순사건, 즉 군인들 중 좌익이 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죽이고 이후 반란이 진압되고, 정부측이 또 시민들을 학살한, 한국전쟁 이전의 이념 갈등에 의해 소시민만 죽어간 비극적 사건으로 알고 있었다. 제주 4.3 사태와 연결되었으면서도 여수인민위원회와 남로당 주축의 반란군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여순의 대중은 적극적으로 같이 이승만 단독 정부에 저항했기 때문에 항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 늘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고 연대하는 이들이 있고, 이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으리라는 것. 여순은 제주도에 대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항쟁이었다. 같은 동료시민 혹은 인민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폭력에 여순 사람들은 끝까지 맞서 싸웠고,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비록 이러한 역사가 오랫동안 지워졌지만 반세기 후의 사람들에게 의해 다시 복원이 되고 있다. 체제의 억압과 폭력에 의해 현실은 고되지만 이번과 같이 여러 현장을 다닐 때마다 투쟁할 동력을 얻게 된다
- ‘여순’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며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정리된 고민을 갖게 되었다. 여순을 ‘사건’으로 이름 붙이기보다 ‘항쟁’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 그 운동의 주체적 성격과 당시 시대상에서 그 특유의 구조적 모순과 부딪힌 갈등과 균열 지점으로서의 사건의 적극적 행위성에 대해, 그리고 그 주체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여순을 ‘사건’이 아닌 ‘항쟁’이라고 붙여야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적 주체들의 고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고민이 현재적인 과정에서 가져다는 의미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
- 여순항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저 몇 줄의 사건 정리로만 인식했을 뿐이다. 여순항쟁 역사기행을 처음으로 다녀오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여긴 것들이 아주 알팍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말함으로써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다.
- 숙명적으로 가난하게 된 당사자(생존자) 및 그의 자식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손쉽게 붙인 ‘전쟁고아’라는 말이 얼마나 험겁고 비겁한 단어였을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지 않은가? 전쟁의 아픔, 학살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어내야하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

의 시선은 참으로 열악하고 일시적이다. 많은 2030세대가 여순은 모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불쌍히 여김>이 아닌 <부당히 여김>이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현 세대와 연대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볼 수도 있겠다.

- 계엄법 없이 계엄령을 내리고, 군사법 없이 군사재판을 열고, 초등학교 옆에 피비린내 날 정도로 시민들을 사살하고, 증거를 지우기 위해 산채로 산에 버리고, 바다에 빠뜨리고, 절벽에 숨기고, 이러한 학살을 위한 기틀이 한국전쟁이 들어서자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고 보도연맹학살로 이어졌다. 이후 군인이 시민에게 총칼을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80년 광주, 06년 평택에서 반복되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기도 한 반공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발의된 국가보안법도 여순항쟁의 결과였고, 국군을 통해 군대의 반동화가 공고해졌다. 오늘날의 아픔은 여순항쟁의 아픔을 잊어서 생기는 것이었다.
- 여순항쟁 다크투어 일정과 여순항쟁과 관련한 텍스트 및 미디어의 일반적인 재현에서는 여순항쟁에서의 여성 주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후 이야기모임에서 다른 활동가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순 지역에서 가정마다 남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할 희생양으로 여자 아이들을 내세우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기행에서도 여순항쟁 당시부터 활동하셨던 여성 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는데, 여순항쟁의 역사가 복원되고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여성 서사적인 부분들도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 많은 사람들, 특히 정부기관의 관료들이 여순항쟁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보다 집단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이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고 꾸준하게 역사의 상흔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박물관 하나 없다는 점이 애석하다. 관공서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 이번에 여순항쟁 다크투어를 함께한 활동가들은 여순항쟁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비극에 대해 서로의 감상과 생각을 나누는 비중이 컸다. 다음에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그뻘 보다 더 실천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몰랐었는데 잘 알게됐다는 말만 계속 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나 역시 꼭 함께하리라.
- 바로 옆동네인 광양출신이지만 여순 항쟁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수의 현장 활동가분의 입을 통해 사건 자체와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투쟁의 과정을 듣는 것도 즐거웠고, 호남사람으로서 받았던 차별이 오버랩되며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여수시에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추모비의 내용에 '.....' 라는 내용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현장과 현장의 활동가분 덕분에 에너지를 얻었고 여전히 억압되고 있는 기억을 보며 열심히 싸우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일 들었습니다. 투쟁!

- 다른 활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각 영역에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같은 역사적 사건과 같은 역사 기행을 경험하고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부분들에 주목하여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는 각자가 가진 경험의 다양성, 활동 영역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활동 영역에서는 보지 못하게 되는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싶다.

후기 에세이

민주시민교육의 각종 콘텐츠들을 수집하고 있던 가운데 역사문제, 그 중에서도 현대사를 우리세대들이 접하고 기억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2030세대 활동가들을 조직해서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여순항쟁’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직무 특성상 정당의 청년학생위원회, 종교의 청년네트워크모임, 시민단체 청년모임들에 연이 닿아 있었는데 그 중 구성이 제일 다양하면서도 사회운동을 하기 위해 모인 플랫폼C와 함께 하고자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동가, 사회운동활동가, 시민운동활동가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각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여러 현대의 과거사 중 여순에 주목했던 이유는 대구, 제주, 여수로 이어지는 인민(시민)들의 독립과 자치에 대한 열망이 미국을 위시한 국가폭력에 의해 좌절되었고, 그 후 국보법 제정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사회의 역동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독한 레드컴플렉스로 자본주의 이외의 사회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나대면 안된다’는 각인 속에 먹고사는 문제 외에 사람들이 사회에 관심을 의식적으로 갖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시민사회가 국가나 시장에 비해 왜 이렇게 왜소하게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일정정도의 답이며, 사회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유의미한 공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역사는 그 사실 자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사의 사건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 삶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맥락에서 역사교육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등교육에 처음 근현대사 과목이 생긴 나의 학창시절부터 15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제도권 교육에서 근현대사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국가주의적인 지극히 좁은 관점에서만 해석이 된다. 따라서 피교육자는 국가공동체의 터부 앞에서 친일파, 혹은 빨갱이가 되지 않기 위해 그러한 국가의 사관을 긍정하는 척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여기게 되는 된다.

여순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운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 젠더정의를 중심으로 갖고 있는 활동가의 경우 여순항쟁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인민 내에서 여성주체성이 가려진 부분에 대해 발굴하고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한 동아시아활동가는 여순을 넘어 당시 냉전에 고통받았던 동아시아 민중전체에 대한 공감을 일으킬수 있는 서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 단순히 여순항쟁을 피해자의 서사가 아니라 부당한 역사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한 항쟁적 성격에 주목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런 인식과 공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제주, 오키나와 등으로 답사지를 넓혀가는 한편, 이번 참가자들이 멘토가 되어서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오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보기로 하였다. 작지 시도였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이제는 잊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더 많은 사람과 더 넓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활동을 지원해주신 분들, 기획과 참가자를 조직해주시면 분들, 그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서울 #세대차이 #11.3

내가 꼰대가 되는걸까?

낀세대들의 어중간한 세대차이 극복방법

햇님 사회적협동조합 상근활동가



리더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어중간한 낀세대는 더더욱 싫었는데! 어느새 나이에 밀려서 본의아니게 조직의 중간 위치에 있는 활동가 분들을 모십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서 어떻게 세대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실제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조직에서 세대차이로 인해 힘든 경험을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모임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의 갈등, 꼰대와의 갈등, 부모세대와의 갈등 등 다양한 세대차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며 다른 세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우리는 누구나 낯선 시대이다. 살아 온 시대가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직하게 가되 계속 성찰하며 가자.
- 모임을 주최하기 전 몇 년 동안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을 만난 것 같아 어느 순간 진전이 되지 않았다. 함께 여러 세대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로도 받고 이해도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역시 혼자보다 집단지성이다. 그동안 발전해 온 세상과 앞으로 변화해 나갈 세상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서로 무리하지 말고 조금하더라도 함께 편안하게.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살아온 시대가 다르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 사명감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내린 결론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추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낯선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소통을 통한 다름의 이해가 필요하다.
- 남의 눈치를 보고 살기 싫어서 이렇게 활동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아서 밀레니얼과의 세대차이는 많이 느끼지 않고 있다. 옛세대에 비해 평균 학력이 높아지고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변화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비정규직 경험을 많이 하면 책임에 대한 감각도 다르다. 살아온 시대가 다르면 책임이 의미하는 바도 다르고, 책임지는 방식도 다르다.
- 세대의 반복은 DNA를 통해 이어져가는 환경과 교육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결국 세대 간의 다름은 틀에 박힌 교육과 가정환경 및 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함을 통해서 탄력성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 세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르다. 경험의 차이, 시대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도태되면 모멸감을 느낀다.
- 부모세대의 특징이 자녀세대에도 나타나는 것 같다. 현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세대의 특성도 고려해보면 좋을 듯하다. 혼자 혹은 둘이 컸던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후기 에세이

나이 먹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 사회에서도 조직에서도 청년을 지나 중장년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생활 경력 15년을 지나 20년 경력에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입사면접을 볼 때 나의 학번 년도에 출생하신 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일할 때도 나이차이가 10년 이상인 밀레니얼 세대와도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과 말과 생각 등에서도 어떠한 차이가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환경과 인식의 개선, 일과 삶의 밸런스 등은 우리 선배 세대부터 우리 세대까지 꾸준히 노력해왔던 이슈들이고 점차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업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것을 강요하지니 끈대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인정하자니 저에게도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또한 윗세대들의 업무방식들 중에 의아한 것도 있었고, 적응한 것도 있었고, 변화를 요청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세대나 같은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한다고 나는 어떻게 적응해나갔는지,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바뀌어 갈 텐데 나는 어떻게 소통하고 변화해야 하는걸까.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관련 서적도 읽고,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자문도 구하고, 마음챙김 대화 등 여러 가지 방식의 노력과 시도, 성찰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성향차이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어떠한 패턴은 세대라는 벽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주고 싶지 않고 상처 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어느새 위 아래 어디도 아닌 낯선 세대가 된건지.

오랫동안 고민했던터라 활동가이야기모임에서 '세대차이'라는 주제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신청해보는 것이라 운영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공론화하고 공감하며 의견을 함께 모아보고 싶었습니다. 불만과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소통과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모임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모임에서 활동가들과 함께 '세대차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경험과 생각, 위로, 마음의 불안해결, 소통과 방법, 이해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명언이라며 박수치고 웃기도 하고, 같은 고민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고민은 혼자보다는 공유할 때 집단지성의 해결방안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좀 더 시원한 마음으로 웃으며 모임을 마쳤고 주제카드의 키워드만으로도 예정 시간을 훌쩍 넘어 진행되어서 추후에도 또 이야기 자리를 마련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세대이든 상관없이 함께 소통하고 웃고 이해하며 같은 길을 걸어 나가는 동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현장의 생생한 언어와 분위기로 그대로 전달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나온 이야기들을 아래와 같이 축약하여 정리합니다. 무엇을 규정 짓기 위해 나눈 논의가 아니라 각자의 경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분들께도 세대차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낯선 세대가 아니까요.

마음건강

#부산 #마음건강 #11.6

다친 마음 들여다보고 함께 다독이기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나요? 활동가들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다친 마음을 드러내고 들여다보는데도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 오랫동안 한 단체는 아니지만 연대활동을 함께해오던 우리 셋이 작년 9월에 한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 다짐했는데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이를 작성하고 드러내놓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발을 내딛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두 번째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였고 다친 마음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활동한지 1년이 되었고 그간 연대활동을 하며 함께 손발을 맞춰 온 것과 달리, 한 단체에서 함께 일을 하며 손발을 맞추는 건 또 다른 일이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다친 마음을 내보이고 들여다보는 자리라 많이 부족했지만 연습해 가다보면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활동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 우리는 자주, 너무 익숙하고 편하니까, 많이 자주 서로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하느라 함께 하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속상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란 많은 훈련이 필요한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활동가가 우리가 함께 일하며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본전도 못 찾았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그 말에서 다정함이 느껴져 고맙습니다.
- 다 잘하고 있는데 '소신'에 대한 불안과 논리적인데 '감정적'이라서 자주 울컥한다.
- 서로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먼저 튀어나오지만 그보다는 공감하고 마음과 느낌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요.
- 이번 모임을 기회로 작성하고 다친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고(이러다 단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닐까?) 긴장되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갖는 자리이니 좌충우돌 이야기는 순조롭지만은 않았지만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할 수 있었고 작은 약속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 달에 한 번은 활동이 아니라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눈앞에 일들이 많아 잘 지키지 못한 거 같아요. 앞으로 과업에 대한 것 말고도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우리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나눔이 이어졌으면 해요. 진행안에 대해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색하고 주욱 이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서로 진행과 참여, 나눔의 역할을 바꿔가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후기 에세이

우리는 오랫동안 연대단체 활동을 통해 함께 일을 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 어떤 계기를 통해 한 단체로 모여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9월부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함께 손발을 맞춰 온 시간이 길고, 또 그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자 마음이 꼭 맞는 동료이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활동을 한다면 좋은 시너지를 내고, 또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단체의 전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서로가 훌륭한 활동가, 좋은 활동가라 말해오던 터라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쌓여갔고 이렇게 가다가 상처 투성이인채로 서로가 서로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활동가이야기모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 들여다보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하는 명석이 깔리는 자리였지만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하듯 터져나올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 d-day를 향해 가며

모임은 미리 공지되었습니다. 모임 날짜는 우리 단체가 1년간 기다리며 준비해 온 9박 10일 간의 전국순회 캠페인 종료 직후였습니다. 안그래도 부끄러운 속내를 드러내는 모임 주제라 긴장이 되는데, 전국순회 캠페인 기간 내내 만들어진 상처와 긴장들로 모임 하루 전날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긴장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모임 진행하다 단체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많은 걱정과 우려, 긴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산을 넘지 않으면 이 길을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 안내서에 나와 있는 메뉴얼을 최대한 따라 했습니다. 테이블보도 준비하고, 초와 다과, 따뜻한 차, 조용한 음악을 준비해 참석자들의 긴장이 조금이라도 풀리도록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활동가 이야기 모임 : 다친 마음 들여다 보고 함께 다독이기

우리 모임은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들만 참석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만남들과 이야기들로 상처가 아물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정작 상처를 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다른 동료들의 다독임과 위로로 상황을 참고 견디고 삭히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다 결국 결국 갈등이 폭발해 활동을 포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활동을 하며 받은 상처와 다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삭히게 되는 상황은 평등한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단체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 관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를 대단하고 귀한 사람이라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더욱 상처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고민하고 풀어야가야 할 문제라기보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는 다른 활동가의 말, 행동, 어떤 상황, 어떤 배경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것들요.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워크숍을 하며 서로의 마음과 상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다친 마음을 내보인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9박 10일 간의 힘들고 긴장된 캠페인이 막 끝난 터라 각자의 마음은 쑥대밭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한 경험은 많지만 경험과 대상이 오롯이 우리가 되는 이번 자리는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 위에 서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고, 선생님께 혼나러 가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지에 나와 있는 글귀를 함께 읽고 <마음카드>를 골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며 말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밖에 없는 작은 방에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순간에는 긴장된 공기가 작은 방 전체를 가득 채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성토대회라도 나온 듯 우린 각자의 마음들을 쏟아냈고, 해명과 따짐, 변명과 다그침으로 눈물이 쑥 빠질 뻔 했습니다. 활동가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고, 활동가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단체와 조직은 나쁜 조직, 나쁜 단체라 말해왔는데 우리가 그런 조직과 단체를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활동가가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한 활동가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카드>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만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말에 귀 담아 들었는지, 진심을 알아달라며 뭉개는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을 들여다 보며 보듬기가 정말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기란 훈련이 필요한 일 이구나. 다친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주는 것도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많이 서툴렀던 우리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다친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기 위한 자리였지만, 정신을 잃고 내 모든 것을 말하고 또 상처주고 헤짚는 자리였는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다짐한 것은 ‘이번에는 서툴었지만 또 해보자’였 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작 이야기를 나눠야 할 사람과 말을 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빙빙 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일도 아닌데 내가 괜히 자격지심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말하며, 혼 자 삭히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치고 아픈 마음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말 투, 표정, 손짓 만으로도 그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모른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서툰 첫 모임이었지만 우리는 다음 모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지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활동가이야기 주간>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모임 후기를 마칩니다.

#대전 #마음건강 #11.4

코로나로 개인주의가 더 심해진 지금, 마음건강 지키는 방법

이재순 요리하는마을공동체다뭉다북



코로나로 개인주의가 더 심해진 요즘 마을살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 파스한 공동체 활동을 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마을활동 방법 의견 나누기 및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다수다의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코로나 속에서도 각자가 마음을 더 건강히 지켜나가는 방법을 찾고, 이겨내 갈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활동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 개인주의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도움을 주고 있다.
- 코로나로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서서히 적응해 나가며 우리 나름의 행복한 일상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아무리 많은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맞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며 최선을 다한다.
- 무언가 하고 싶고, 안 하면 안될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들 있는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너무도 빨리 변해서 적응하기 힘들어가는 우리를 보게 된다.
- 행사나 축제가 없어진 요즘, 봉사활동으로 여럿이 모여 함께 하던 행사들도 개별로 참여한다는 이야기에 코로나가 너무 깊숙히 삶에 들어와 개인주의를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무리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다. 남이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함도 갖게 되지 않을까?
- 세상은 언제나 혼자인 듯해도 혼자만 아니라 힘이 되는 것 같다.

후기 에세이

제법 날이 쌀쌀한 11월의 첫째 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가 이야기 모임을 위해 모인 우리들.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활동가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각자의 근황이나 활동을 반갑게 주고 받으며 한 시간이 어찌 빠르게 지나갔는지. 작년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작년 추억을 이야기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모임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임의 주제는 “코로나로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지금 마음건강 지키는 방법”이었다. 모임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각자가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 마음건강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혼자 노는 법 익히기, 자주 주변인들과 연락하며 지내기, 비대면 봉사활동 하기(목도리 뜨기, 청담그기, 양파 장아찌 담그기), 비대면 인문학 강의 듣기(줌활용 강의듣기),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홈트레이닝 하기 등이 있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나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그 콘텐츠의 양이나 질도 좋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 등.

만나지 못해 우울함을 키우기 보다는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많이 있을것 같으니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고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도 따스함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속 마음건강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치유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다.

#김해 #마음건강 #11.5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마음 품앗이

강명숙 김해지역활동가



정서적 허기로 힘이 드는 요즘입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예전과 달리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도 부족하여 힘이 들고, 이전 세대들은 열심히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이 라떼를 읊조리는 끈대 짓으로만 여겨지는 불통의 상처로 힘이 듭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마음건강은 오래 현장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우리가 모여 그림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드러내고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듣고 나누며 나와 타인을 함께 위로하며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자신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찾아보고 서로에게 필요한 미덕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소진된 자신을 쉬어가게 할 수 있는 여유와 그 과정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함께여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느껴보았습니다.
- 현실적인 욕구와 공익적 가치의 균형을 잡기 위해 소신을 명료화하고 자기 보호에 기반을 둔 성찰의 과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 모두들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모습이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너무 열심히만 살아온 건 아닌지, 잠깐의 쉼을 통해 얻게 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동료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자유로이 즐기는 재미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최근의 일상은 파고가 유난히 잦아 다양한 감정들이 들락날락거렸다. 그러나 어떠한 감정들이 오고갔는지 정확한 표현을 못한 찰나에 이야기 모임을 열었다. 이야기카드 도구를 활용하여 내 안의 것들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마음돌봄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의 마음나누기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림이 때론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모임이었다.
-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부족한 것, 더 채워야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다. 오늘 잠시나마 '버려야 할 것'들을 나열하고 나니 남은 것은 겨우 몇 가지 정도였다. 나의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며 '자기보호'와 '결단'이 필요함을 새겨본다. 혼자 힘이지만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 공익활동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부딪침들이 있다. 그 속에서 실망과 좌절들을 느끼지만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 사소한 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여유를 가져보자.
- 이야기모임이 한 번으로 제한되어 무척 아쉬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장을 위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을 때도 있으므로 회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익활동은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앞선다. 그런 가운데 문득문득 내 안의 헛헛함이 찾아들기도 한다. 그런 마음들을 잠시나마 어루만지는 시간이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나의 일이 누군가의 삶에 가치로울 수 있도록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후기 에세이

붉은 단풍처럼 뜨거운 열정이 수시로 우리를 들쭉이는 가을이다. 교육학으로 만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는 멘토이자 멘티들이다. 봉사활동으

로 문해 교육을 시작해서 지금은 전문 문해 강사가 된 선생님도 있고, 이제 막 사회 혁신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에 발을 들인 새내기 공익활동 선생님도 있다. 사람을 알아가는 건 시간의 길이가 전부는 아닌가 보다. 늘 함께 서로를 응원했던 우리지만 이야기모임을 통해 좀 더 내밀한 마음 속 고민을 털어냈다.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 부대낌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보았다.

‘마음풍경카드’를 이용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였기에 많이 지쳐 있었다. 모두 들 욕심에 쫓겨 쉽 없이 약속을 만들고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자꾸만 줄어들어 몰입에서 얻던 그 많은 기쁨이 사라졌음을 알아챘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오히려 성찰, 인내, 이해, 인정, 배려, 꿈, 희망들이었다.

공익을 위한 활동들은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덜 상처받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솔직하게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지키는 일을 무시했다. 우리의 끝없는 배움 욕구의 근원은 자신의 빈 곳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에너지를 단점을 고쳐나가려는 것에만 쏟지 말고 역량을 키우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각자의 그릇을 키우는데 모아야겠다.

그 화두를 시작으로 자신의 용량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줄 치유카드를 찾아보았다. 나는 소신이라는 카드를 골랐다.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던 소신은 정직과 사회적 가치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묵근히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다.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선에 위배되지 않는 소신을 가지는 것도 그것을 꾸준히 지켜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배민아 선생님은 자기보호라는 카드를 골랐고 자신이 평소에 그 단어에 대해 이기심과 연결 지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사람마다 지켜야 할 경계가 다르고 자기보호의 방식도 다름을 인식하고 난 후 모든 공익활동 역시 나를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박정화 선생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감사라는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나의 시선들이 자신보다는 바깥을 향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한 우리에게 용기와 소신, 자유로움과 결단의 처방카드를 찾아 주었고 순수하게 서로의 활동을 지원하고 기뻐하며 함께 즐겨보자고 다짐해 보았다.

마음카드로 그날의 감정들을 공유해보고 이보나 호미엘레프스키의 ‘두 사람’이라는 그림책을 읽었다. 책을 읽은 후 둘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의미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보았다. 나는 같이, 나눔, 나와 타인, 돈과 가치, 질문과 답 등을 제시했고,

다른 선생님들은 동행, 사회적 관계의 출발, 동그란 곡선의 아름다움, 셋을 이룰 수도 있으니 다음으로 나가는 힘 등을 얘기했다. 그림책을 통해 탐색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마음의 방어를 쉽게 풀어내기에 좋다. 이야기 모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감정을 공유했다. 이후의 관계가 한층 더 끈끈하고 두터워졌음을 느꼈다.

#순천 #마음건강 #11.6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도 성장한다.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적기교육

강숙현 순천대학교



코로나시대 가정에서 교육지원으로 책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고민을 나누고 발전 방향과 자녀 교육에 관한 비전들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대화와 게임, 책활용 워크샵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육아와 자기개발 동력의 에너지. 마음읽기와 위안 찾기. 자기개발을 위한 동력. 엄마로서 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부모다움, 성장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모아 살리고 나누자
-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쌓여있는 그림책을 보며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지만 책과 육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내 생활을 대변해주는 책이라는 매개

체를 통해 또 한 번 내가 성장하게 된다.

- 나의 현 감정상태를 돌아보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감정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까지 생각한다면 내 감정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나의 지금 상태를 돌아보고 나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됐다. 나의 현상태에 대해 잘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야기나누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 선물로 받았던 감정카드 ‘놓음’, ‘마음알아주기’, ‘열정’ 세 개의 다른 단어들이 만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나와는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워갑니다.
- 배움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막연히 생각하던 일을 조금씩 구체화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활동가이야기주간에 두 번째 참여입니다. 무의미한 이야기의 장이 아닌 유의미한 이야기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감사한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신은 인간을 여러 방식으로 외롭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결혼과 육아의 현실 속에서 느끼는 불안, 고립감과 강박. 해야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지? 나는 좋은 엄마인가? 이것이 나만의 고민이고 과제인가?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가? 왜 나만 애쓰고 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만나 가정을 꾸리고, 세상 둘도 없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을 느낀다. 많은 역할에 힘이 부치고, 가끔 불안하고 때때로 화가 치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긴 해야겠고 나는 누구인가, 아니 누구였던가 조차 잊고 살아가는 헛헛함 속에 아내와 엄마로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서로의 느낌과 감정에 공감하고, 생각과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알게 된다.

그 절실함은 서로 맞닿아 공부하며 지혜로워지려는 엄마들이 뭉치고,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이 대견하여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다. 그림책이라는 매체로 아이와 소통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엄마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부터 필요했기에 이야기모임에 초대하였다.

마음풍경카드를 활용하여 엇갈리던 감정들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때로는 수줍게 속마음을 내비치고, 또 거침없이 고민을 토로하면서 타인의 이해 속에 스스로 답을 찾

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자리. 이야기모임을 마치면서 뾰족해진 고민들, 날선 예민함을 토닥이고 푸근히 안아줄 수 있는 그림책육아의 힘을 되새기게 된다. 저마다 마음의 중심에 감사함을 놓고 지금 마음 이대로 그림책 읽는 엄마들,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들이 모여 그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과 배움을 이야기로 만들어 그림책으로 쓰는 엄마들이 되길 바란다. 책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얻은 지혜와 에너지로 행복한 엄마들이 충분히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내길!

#대구 #마음건강 #11.3

내 안의 세상을 돌보는 시간

비둘기 공익활동 지원



활동가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또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하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힘들 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로 이겨내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고 쌓인 마음의 먼지들이 그들을 현장에서 떠나게 한다. 세상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돌보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소중하다. 멈추고 돌아보자. 지지하고 토닥여주고 싶다. 경험과 위로를 함께 하고 싶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지역에서 오랜 시간 공익활동을 해 온 활동가들의 모임. 이야기카드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마음상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
- 휴식과 쉬이 절실한 활동가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모임을 진행이었는데 예상외로 막상 이야기를 진행하면 진솔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 만나고 이야기하자.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바쁜 시간 쪼개어 만나는 만큼 마음은 더욱 절실하다. 오랜 활동을 한 활동가들에게는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발견했다.
-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지지와 연대를 통해 새로운 힘을 받아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나를 돌보며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쉬'이 필요하다.
- 카드를 활용한 이야기, 우리 조직에서 활용해보아야지.
-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짬을 내어 서로의 고민을 공감하며 응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로라도 번개를 쳐야겠군요.

이주민 통역활동가들의 마음 챙기기

김민선 홍성이주민센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주민들의 통역지원 필요는 늘어나고, 만남은 조심스럽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한국에 머무는 것도 힘들었던 이주노동자들을 돕느라 많이 지쳤을 통역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는 않았는지, 통역활동가로 어려움은 없었는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역시 이야기(수다)의 힘은 강력하다,
- 통역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등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역이 부담되고 힘들기도 했을텐데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작 이런 자리가 있어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역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을 터놓아야지 살 수 있는 것 같다. 통역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고 고개를 끄덕여주니 나만 혼자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데도 공감을 하면서 힘이 났다.

- 몸이 건강해야 하듯 마음도 건강하게. 통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며 풀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 다들 힘들었을 텐데 이야기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한다고 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설계해나가는 통역자분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다.
- 통역하면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좋고 생활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 이런 모임(약간은 비공식적인 편한 분위기의)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걸 느꼈다. 통역 교육을 받는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과정 속에서 통역자들 사이에서 연대감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더 친해지는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니 좋았습니다.

후기 에세이

활동가이야기 공지를 보자마자 우리센터 통역활동가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다. 이주민 노동 상담가로 일하며 마음이 지칠 때가 많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임금체불, 산재, 회사에서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갈등 등)로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우리 통역활동가 선생님들은 잘 지내는지 항상 마음이 쓰였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출국, 체류, 귀국 등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쓰였을 것이다.

여름 의료통역활동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통역자 윤리와 심리지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참이라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크지만 모임이 어색하게 흘러가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한 번 이야기가 시작되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각각 나라는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서 오는 에너지가 참 좋았다. 그동안 이런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정기적으로 이야기주간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통역이라는 것이 사실 A를 A로 전달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를 위한 통역에서는 A를 A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A를 A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 통역자 윤리에 벗어난다고 한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한 험한 욕을,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한 걸러지지 않은 나쁜 만들을 그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언어 전달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통역활동가 이상 상담가로, 중재자로 서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편을 드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죄송하기도 하다. 누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가 이런 심오한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춘천 #마음건강 #11.3

여성 시민활동가들과의 유쾌한 토담임

김윤정 (Plant-D 공유가치창출 디자인연구소장)



유쾌한 토담임, 지역의 여성 시민활동가들과 현장 곳곳에서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할 마음챙김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나에게도 행복할 것일까?, 개인의 '나'와 사회 속의 '나'는 균형적인가? 지역에서 활동가, 특히 여성 활동가에게 가장 힘든 것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 되돌아봄과 흔들림의 시간 마주하기로 '틈'과 '쉽'으로 함께 하자.
-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 만난 시간이었지만 한껏 쏟아내고 웃기 바쁜 저녁 자리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했네요. 가끔은 일, 가족, 사건을 떠나 오롯이 울고 웃는 여성 활동가들의 삶을 다독이는 자리를 꼭꼭 만들기로 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여기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깐.

-
-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 활동가들의 심적 피로를 풀어줄 창구가 절실하다.
 - 내 진짜 모습과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 모두가 다 사랑스러울 수는 없겠지? 그 접점은 어디일까?
 - 활동가이야기주간 덕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일을 떠나 만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 소속된 조직 내에서 풀어 낼 수 없는 문제를 공유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뤄져서 행복했다.
 - 버릴 것은 버리고 하고 싶은 것은 맘껏 하고 그렇게 살아야하는데, 틀에 갇혀서 살지 않도록 틈을 만들어야겠다.

#서울 #마음건강 #11.6

활동가 소진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김지연 뜻밖의상담소



활동가 소진예방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마음풍경카드로 현재 마음풍경을 돌아봅니다. 각자가 소진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나만의 마음 위기 대처법을 공유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를 통해 2020년 한 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근황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운 다소 부끄럽거나 약한 모습도 안전한 분위기에서 꺼내고 이해 받고 수용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도 요동쳤지만 함께 위로하고 슬퍼하고 또 웃을 수 있어서 살 만하다.
- 속 마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시간을 덕분에 마련할 수 있어서 부듯하고 감사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마음 알아주기 카드를 고를 수 있었다. 불안감이 몰려오며 오해하거나 과도한 상상을 하게 될 때, 자책하게 될 때,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 여유를 찾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려놓자.
- 활동가들이 여전히 못 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방법들로 충전해나가고 있다. 이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지 생각합니다.
- 스스로 한 어떤 행동이 이상하고 비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건강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 내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지했다. 그러나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지치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 따뜻하고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경청과 공감 고맙습니다.
- 활동가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 안전한 분위기에서 함께 기뻐하고 꺼내기 힘들었던 마음을 나누면서 수용할 수 있었던 게 좋았다.

#서울 #마음건강 #11.6

활동가들이 서로의 마음상태를 보살피고 지지해 주기

지형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느라 지친 활동가들이 서로의 마음상태를 보살피고
지지해주는 모임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요즘 느꼈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상처받았던 점도 함께 나누었다.
-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이지만, 업무 외에 서로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혼자 고민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 현대인은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어두운 면을. 말할 기회가 없는 것 같다.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만 주어도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 이렇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주위에 꼭 권해보고 싶다.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연습을 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닐까?
-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린다는 게 놀라웠다.
-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도 있지만, 사회현상(유명인의 자살, 성폭력, 정치, 사회 부조리)에 의해서 개인적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각 단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이야기 모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문가가 진행해주고, 모임 운영 방법을 가르쳐주면 더 좋겠다.

후기 에세이

지난 달 회의 중에 같이 활동하는 언니가 요즘 몸도 마음도 아파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음이랑 다른 말이 튀어 나올까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다고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전혀 눈치도 못했다. 동료는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업무 얘기만 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안했다. 용기내서 자신의 상태를 말해줬으니 앞으로는 서로 잘 보살피고 신경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랐다. 마침 활동가이야기주간 행사를 알게 되어서 이걸 핑계로 함께 밥 한 끼 먹으려고 모임을 개최하게 되었다. 못 다한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

모임을 이렇게 신청했으니 서로의 마음건강에 대해 털어놓아야 한다고 다른 활동가들에게 통보했다. 아직 내가 단체에서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은 떨리고 긴장되는 일 이어서 이렇게 모임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모임을 하기로 한 날에는 샤인머스켓도 사들고 사무실로 갔다. 항상 회의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샤인머스켓도 있고 이야기카드도 펼쳐놓아서 회의와는 다른 모임의 분위기였다. 왜 이 모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지 간단히 설명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카드는 마음풍경카드와 자기처방카드로 이루어져있었다. 마음풍경카드에서 요즘 내 마음같은 카드를 고르는데, 대부분은 힘든 마음을 묘사한 카드여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괴로울 때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카드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다고, 딱히 이렇게 힘든 점이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서로의 힘든 점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실 평소에도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사생활도 나누는 편

이러서 이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지낸지도 오래되어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렇지하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모임을 하면서 생각보다 서로의 마음 상태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대화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는지, 혹은 골 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된 화제였다. 일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어도 그 외에 전반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묻고 듣는 시간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번 모임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사실 당시에 이야기는 못했지만 상처받았던 사건, 선배되는 입장에서 털어놓을 수 없었지만 업무가 버겁게 느껴지는 마음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순조롭게 모임을 진행했다. 다만 모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주최자로서 모임의 준비가 미숙했던 것이 스스로 아쉬웠다. 다른 참가자들도 이야기카드가 좋다며 다음 모임에서도 카드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마음과 감정을 돌아보고 설명하거나 털어놓는 것도 훈련의 영역일지 모르겠다. 앞으로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특별히 말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용기내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공유하기가 어렵다. 내 목소리가 바로 옆의 사람에게도 안 들리면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서로를 보살피고 다독여주면서 활동해나가야겠다.

#서울 #마음건강 #11.5

예민해도, 예민하게 살아남기

몽기 비영리재단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민하다'는 말은, 사실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예민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를 바꿔보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나만의 것인 줄 알았던 수많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난 덕분에 용기낼 수 있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모른 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예민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더 편할까 싶을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민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 만큼, 예민해도 괜찮으면 좋겠다고, 조금은 덜 힘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씩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와 제 동기들이 예민해도, 계속 예민하게 살아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며 나의 예민함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예민해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를 활용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들을 꺼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일터에서 혹은 관계들 사이에서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는 상황들,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마음들을 함께 말하고 들으면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예민한 마음들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힘을 주고 받았던 이야기들이었구요.
- 자신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든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이는, 온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그렇게 소중한 에너지를 기꺼이 나눠주는 든든한 동료들과 서로의 활동, 서로의 일상을 응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빠도 이렇게 잘 돌아보면서 챙기면서 살자고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나의 예민함이 가끔 거절되고 상처받는 일상에도 마음 털어놓고 지지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 잘 살 수 있겠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고 잘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함께 우리의 예민함을 더 많이 얘기하고 응원해주며 단단하게 살아가야겠다.
- 예민함은 우리의 활동 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민함이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고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동료들과의 만남, 지지, 연대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예민함이나까.
- 내가 고른 마음풍경 카드에 대해서 친구들이 내 마음을 더 잘 설명해줘서 참 용하다고 생각했다. 막연하게 떠오른 감정을 친구들 덕분에 구체적인 언어로 계기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 특정한 내용보다도 모두가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저마다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일들을 겪는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 활동가이야기주간에서 지원금을 주셔서 모임의 큰 동기가 되었다. 연말이라 정신이 없어서 일정 맞춰서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맛있는 밥과 소중한 대화로 가득한 따뜻한 저녁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 모임에 활용한 카드, 정말 좋았습니다. 감정을 정리된 언어로만 묘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카드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일화 중심으로 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상황도 상황이라 선블리 만남을 제안하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지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충전의 기회를 얻어 정말 좋았습니다.

#광주 #마음건강 #11.6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공허함 털어내기

박진영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 인내의 탱크가 가득 차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내면에서 삶의 동력을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모임에 참여하는 활동가의 고민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나누면서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과 어려움 등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게 삶의 경험을 통해 조언을 해주었다.
-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파랑새처럼 이미 내 곁에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우리가 우리를 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고마움과 행복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조금씩 서둘 것이 아니다. 길고 오래가는 사람은 오래 자신을 가꾸고 다듬은 사람들이다.
- 우리가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듯 별거 아닌 평범한 것이 알고 보면 소중한 가치이다.
- 뛰어난 인물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 자신의 성취와 미래의 가능성과 비교한다.
-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 졌다.
-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를 누리는 것이 최선이다.
- 너무 오래도록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 보면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

#천안 #마음건강 #11.4

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내 마음도 돌봐야 할 듯

따오기 천안NGO센터 동아리코디네이터



지역 복지활동을 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으로 경력단절 여성으로 30대를 보내고, 활동가로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아이 키우며 살림하며 일하는 것이 나는 녹록하지 않다. 나와 비슷한 과정으로 활동하는 주부활동가 1명, 미혼 활동가 2명, 총 4명으로 모임을 구성하였다. 지원사업 서포터즈 역할로 4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사업) 관계를 넘어 인간 관계가 깊어지는 맛이 있어 이 활동이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쳐가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나는 50대가 되어서도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 내 몸과 마음 근력을 튼튼히 해서 좋아하는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마음풍경카드로 근황토크를 진행했다. 건강, 초심, 삶의 의미, 자유로움 단어로 이야기 나눴다. 내 마음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방패카드를 만들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 서로에게 지지와 공감해주는 존재가 되고,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다.
- 나를 힘들게 하고 활동이나 일을 회피하게 하는 요인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주최자로서 의미 있었음.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이리저리 치이고 바빠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역시 중요하기에 어떻게 더 잘 살아갈지, 어떻게 아프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지 고민해봐야겠다.
- 내 마음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 다독이고 예뻐하고 때로는 반성도 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쓰러지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 참여자들의 마음 속 이야기를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건강, 초심, 자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패카드를 작성해 본 것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힘들고 거칠 때 활용하겠습니다.
- 모임 주최자에게 제공된 카드 세트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나 모임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 내 마음을 보호해주는 방패카드 만들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힘들 때마다 이 카드를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봐야겠다.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 마음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후기 에세이

동료들과 활동가 이야기모임을 함께 한 시간은 즐거웠다. 일터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 약간의 긴장감과 설레는 기분으로 충만해서일까?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즐거웠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몰입해 있었던 우리들에게 활동가이야기모임은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회고의 시간을 통해 더 나은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주최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나는 아동복지단체에서 10여 년 간 아동복지 활동가로 일했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시 사회로 진입하려니 주눅이 들었다. 홀로서기를 생각하니 마음의 준비와 현실파악이 필요했다. 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다. '나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 조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이 경험은 내 삶이 힘들고 지쳐도 다시금 나를 위로하면서 삶은 살 만한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전환하게 했다.

나는 천안NGO센터에서 주민동아리 지원사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좀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좋다. 4년째 활동 속에서 스스로 공익활동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난 날에 관계, 일, 소통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나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관계를 단절했고 일을 그만두었다. 소통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힘든 요인으로부터 회피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들다 느껴질 때 무엇이 힘든 것인지 직면하고 인정하고 힘든 것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쉬엄쉬엄 일하고 있다. 소진을 인식하면 일을 조절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쉬운 일부부터 한다. 틈틈이 사람들을 만나고 수다를 떨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하고자 한다. 재충전을 하고 자기개발도 하면서 오랫동안 활동가로 일하며 살고 싶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활동가로 만나는 사람 어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살고 싶다.

#광주 #마음건강 #11.4

마음 바이러스 백신 찾기, 현실 앞에 흔들리는 신념

손미애 마을코디네이터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활동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며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 앞에서 신념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 보고 실천의지를 다져 보고자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과 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눴다. 요즈음 '내 마음 같다' 싶은 카드를 한두 장씩 뽑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서로 궁금한 것을 물어봤다.
- 현실 앞에서 신념이 흔들리고 관계 속에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같은 고민이 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진솔한 ‘자기 마음 끄집어내기’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더 의미 있게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 방황하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의 진심을 끄집어내어 보고,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었다. 자기처방 카드를 통해 소신을 갖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아보고 싶었다.
-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나눔 속에서 알게 되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 활동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과 일이 아닌 감정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었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 혼자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함으로써 증폭되는 에너지가 좋습니다.
-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 힘든데 기회를 만들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네요.
- 뜻이 맞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일로 만났지만 마음을 잘 맞춰 뜻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동지를 얻은 기분입니다.

후기 에세이

저희들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입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의 가치로운 일에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활동가를 지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신념이 흔들리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고, 지침과 힘들 속에서 가야할 방향을 잃을 때도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솔직한 내 마음을 내어 보고 등 공감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항상 야근에 지쳐 있는 시간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위해 4명이 모였습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따뜻한 카페 분위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광주여성센터 ‘다무락’ 플랫폼에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웬지 비밀조직이라도 된 듯. 한 명 한 명 모여지는 상황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주최측에서 보내 주신 ‘마음풍경카드’를 활용해 마음 나누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이 본인 안에 가득한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카드 1~2장을 뽑아 근황과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내 주장만 하게 되요, 화를 참기 어려워요, 마음이 공허해요, 앞날이 막막해요, 삶

이 의미없게 느껴져요, 갑자기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요, 내가 쓸모없게 느껴져요” 라는 카드가 ‘내 마음 같다’로 표현되어 나왔습니다. 직장 안에서 조직과 비전에 대한 답답함, 가정 안에서의 갈등,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문제의식만을 끄집어 내었을 때 답답함으로 맘이 무거웠지만 ‘자기치방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선물처럼 주고 싶은 단어를 골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카드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카드로 용기, 자유로움, 꿈과 희망, 혼자만의 시간, 성찰, 열정, 소신, 소속감, 자기보호, 놓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나만의, 스스로 치유법을 찾아 건강하게 살고 싶다’, ‘나 인정하기’, ‘방황하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결단이 필요’, ‘소신을 갖고 행복한 삶의 방향을 찾자’는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아닌 타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 공감과 가슴 찡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부족했고, 일이 아닌 감정과 고민을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즐겁고 지속적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맞춰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신(新)중년 활동가들의 수다카페

양진운 국제개발협력



춘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중년 활동가들의 속내 이야기를 거침없이 나누는 시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지역의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하지 않을까. 우리도 처음 살아보는 신(新)중년, 우리들만의 마음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나누는 마음건강 챙기기 시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중년 여성 활동가들의 속내를 열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마음상한 일들을 쏟아내었습니다.
-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구나.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 치유됨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 좋은 활동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마음건강 다지기 시간을 정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보약이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픈하는 과정을 통해 괜찮은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를 내볼 수 있었다.
- 사람이 힘이다. 친구가 보약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 사람의 의지로 못하는 게 없다. 영화제 또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해내리라.
-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다시 성장한다.
- 관계란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어렵지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구나.
-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치유된다.
-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감받을 때 우리는 살아갈 가치를 찾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 마음건강이라는 주제가 너무 좋았다. 우리들의 밤늦은 대화들이, 결국 우리를 더욱 건강한 활동가로 거듭나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
-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자신을 치유하고 힘을 얻은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기를 바란다.

후기 에세이

춘천에서 오랫동안 문화, 교육, 환경 분야에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 명의 중년 여성이 마주 앉았다. 지역활동가로 살다보니 ‘어쩌다 중년’이 되어 버린 우리들. “이렇게 젊은 중년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여전히 우리는 젊고, 의기충천하고, 팔팔하기까지한데 우리를 자꾸만 중년이라고 부르는 청년활동가들,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 아니나 다를까? 세 명의 여자는 수다가페를 열던 날, 가을밤을 새하얗게 빛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지역의 활동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야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만난 우리는 신(新)중년으로 살아가기의 희노애락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1년 365일 가운데 거의 360일을 영화제만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 곁에 친구가 없더라. 일로 만나는 사람, 일을 잘 만들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들은 하루가 짧을 지경으로 많은데 정작 내 고민과 상처를 받아 줄 친구가 별로 없더라. 사무국 식구들 챙기고, 자원봉사자들 마음까지 세심하게 챙기다보면 나는 늘 선배고, 선생이어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하는 윗사람이더라구. 요즘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내 고민은 누가 알아주나... 조금 서글프기도 하지.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올해의 영화제를 기획하고 감독님들, 후원사 미팅을 잡고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지.”

“교육활동가로 살다보니, 내가 받아야 할 교육도 많고 또 교육 출장이 많아서 내 건강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제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

요.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멘봉이 왔어요. 작년에 세워준 수많은 지역사업들이 있는데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상에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기다리면서 헤메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참에 운동이라도 하자는 생각에 싸이클을 배웠는데 제가 운동도 일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에서는 팀장인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안되겠다 싶어 우리 교육팀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ZOOM을 활용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해온 일들을 다시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는 일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일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데, 그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환경분야의 일들은 주로 오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시민들과 시민정원을 함께 만들고, 환경 영화를 다함께 시청하고 캠페인을 준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우리들의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SNS를 활용한 캠페인으로 방향을 바꾸고, 생활 속 환경실천 현장을 인증샷으로 찍어 올리면서 꼬리물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폐품을 활용한 환경대회도 온라인대회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움직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지금인 듯 싶어요.”

우리 오늘 만나면 일 이야기는 절.대.로 안하기로 했는데, 결국 일 이야기로 문을 열었다. 원래 의도대로 ‘마음건강’을 챙겨 보자며 한 명이 카드를 집었는데, 나머지 둘이 부동자세로 바라만 보고 있네... 그 카드는 바로 [집중이 안돼요]. '그랬구나, 나도 그래.'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과 가사와 육아로 뒤범벅이 되어 심 없이 달려왔구나. 그래도 지역에서는 꽤나 일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당차다는 소리도 싫지 않게 듣고 살았는데, 속은 많이 힘들었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상황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지금도 등을 두드려줄 친구가 필요했던 거구나. 선언니들이 잠시 말이 없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기로 했다. 춘천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음식점에서 응송한 대접도 받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가 팍팍 불어 넣어 주었다. 우리에게 열 마디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 고민을 알아주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지. 다음 달에도 잠시 멈춤을 함께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SNS에 살짝 자랑을 했는데 큰일났다! 다음 달엔 모임이 더 커질 것 같다. 으쓱으쓱 찬바람 불어오는 이 계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가 보약이었구나!

#남원 #마음건강 #11.6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얻는가?

장소영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활동에 지친 활동가들이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각자의 근황토크와 불꽃 나누기 후 마음풍경 카드를 통해 각자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각자에게 제일 선물해주고 싶은 단어를 통해 각자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그냥 어떤 일을 해보는 것 그것 자체가 용기다. 그런 경험이 쌓여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다.
- 서로의 몸과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각자 오늘 자신의 상태를 잘 살피어 더 좋은 사람으로 한발 나가길 기도할거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서로의 상태를 잘 살피고 공유하여 동지애를 다지자.
- 정해진 답이나 해결은 없다는 것,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선 오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것,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상태와 감정, 상황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다. 용기는 애쓰는 것만이 아니다. 그냥 하는 것이다.
- 나의 신념과 원칙, 기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변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혹은 동료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간극이 너무 힘들다.
- 오늘 느낀 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가져갈지 고민입니다. 활동을 지속하다보면 다시 또 서로 보다는 일 혹은 활동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의 필요합니다.
-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이나 일이 중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활동이란 것이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로부터 자유롭거나 주변을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은 활동가의 숙명이 아닐까. 에너지를 조율하는 것, 갈등을 다스리는 기술에 숙달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 성과가 나지 않는 활동을 나는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 활동가이야기주간 활동을 통해 각자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다.

후기 에세이

활동가이야기주간 덕분에 잠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잠정적 활동 휴식을 가지기로 한 우리 모임은 서로의 마음을 살펴보기로 했다. 카드를 통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각자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사실 활동하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 같다. 그저 활동하는 것에 집중했지 각자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있었던 거 같다. 서로 어떤 마음으로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여력이 활동하면서는 없었던 거 같다. 그저 활동하기 바빴었다. 그래서 이번 에 잠시 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각자의 키워드에는 열정, 소신, 용기, 애정, 휴식, 잠, 자유로움, 건강, 농음이 있었다. 사실 너무 다양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누군가는 함께 활동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고 싶다.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수 있을까?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함께 맞춰나가는 경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 기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다른 동료에게 공유하고 변화, 행동을 기대하는 것, 혹은 동료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간극이 힘들다. 또 누군가는 결과보다는 함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이 꼭 있어야 하는가? 그럼 성과가 나지 않는 활동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들이 마구 튀어나왔다. 우리는 그것에 계속 질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렇다고 해서 답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답을 찾기보다 그저 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느낀 것을 공유했다.

용기라는 단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작은 용기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하고 싶다. 어쩌면 용기는 각오가 아니다. 용기라고 해서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보는 것. 그저 해보는 그 자체가 용기가 아닌가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냥 해보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용기다. 용기는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아니 나보다 나 이 많은 어른은 왜 나에게 애쓰면서 살라고 할까? 그는 애쓰면서 살지 않기 위해 애써오지 않았는가? 왜 애써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미 충분히 우리 모두가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나 또한 애쓰면서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아닌가.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애쓰라고 하는 것일까. 애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각자의 요즘 상태와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활동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할 것이 많아 시간이 짧은 느낌이었다.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또 서로보다는 일 혹은 활동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을까? 오늘 우리가 느낀 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까? 활동하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등 이번 이야기모임을 통해 가진 고민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야기해야겠다. 우리의 활동이 지속 가능하게 안전한 장을 만들고 싶다.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주 #마음건강 #11.6

코로나로 인한 마음 달래기

윤미정 공정여행 라온하제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여행 모임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보냈고, 비대면으로 지내면서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계속 진행이 안되고 있어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비대면으로 지내다가 서로 얼굴보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아 좋았다.
- 2020년이 가기 전에 서로 힘든 날을 보내고, 얼굴도 못 보고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지내다가 좋은 기획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서로 얼굴 보니 반갑고 하여 가슴이 벅칩니다.
- 이런 기획이 자주 있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주간보호시설인 노인복지에서 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기쁘다.
- 비대면으로 일상을 보내고 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우울한 감정이 생겼는데 서로

-
- 에게 위로하며 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점이 뜻 깊었다.
-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서 만나고 말하고 행동했지만, 마스크를 쓰더라도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좋은 자리였다.
 -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냉랭한 감정이 있었는데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사업하는 사람의 힘든 점을 들으면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주위에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길 바래요.
 -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흘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 서로가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며 응원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후기 에세이

2020년이 시작하며 찾아온 전염병 코로나19,누구도 예척하지 못한 무서운 사회적 악인 코로나, 시간이 흐르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잘 지내지 안부만 전하면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그리고 두 장의 달력을 남기고 있는 11월, 서로의 직업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실천하는 활동가. 공정여행을 실천하며 기획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이 되고 불안불안 하지 못하는 공정여행. 마음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를 코로나블루라고 하죠. 그 마음을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활동가이야기모임에 등록하고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말 못하는 시간을 보내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 그래'하며 이런 시간이 있어 좋다는 탄성. 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며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과 인간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올해가 빨리 가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길 바라했습니다.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안내한 충북NGO센터와 안내한 아름다운재단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활동가들에게는 큰 단비와도 같은 빛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좋고 즐거워서 기획하고 홍보해도 많이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할 수 있어 더욱 큰 힘이 되었지요

여행의 가치를 알리고 싶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며 청주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추억을 만들고 그 시대의 정신을 전달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힘들다고 하지 않고 따라준 우리 멤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활동가 이야기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큰 보석같은 선물을 줄 수 있

는 시간이었고, 서로의 말 못할 힘든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
이죠.

2020년에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허망했는데, 그래도 활동가 이야기모임에 참
여해서 서로 속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이고, 또 활동가로 어려운 일도 함께 풀
어 헤쳐나갈 수 있어 행복했어요. 내년에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으며 좋겠습니다.

#익산 #마음건강 #11.6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로 인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 나는 안녕한가?

윤수진 활동가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생각지 못한 균열도 생기고, 상황도 바뀌고, 그 안에서 일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는 돌봄을 누군가에 부탁해야 하고 그 안에서 엄마, 아내, 누군가의 딸, 며느리로 정작 나는 안녕한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나의 일상 안에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우리가 있기에 나는 아직 안녕할 수 있다.
- 오랜만에 활동가들과 온전한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꾸밈없이, 웃음으로, 울컥하던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었던 벽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생각보다 나는 많이 지쳐있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 일이 많아지고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늘어난 일뿐 아니라 무거워진 마음까지도. 누군가를 '돌봄'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나였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했을 때 긍정적 표현이나 부드러움보다 불편함이 있었겠다는 생각들. 이제 내 시간을 일부러 갖겠다고 모두를 위해서 생각했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자녀 등교 중단으로 학습 적응을 위해 케어와 육아로 직장 내 일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프리랜서로서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코로나19 경험을 하면서 함께 겪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 번씩 육아와 일에 힘들이 느껴지곤 하였으나 함께 적응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 많아진 반면 정작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예민해지게 되었다. 여성들은 더 많이 피곤하고 지치며 날카롭게 불만이 많아졌으며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대면 소통의 중요성과 더불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런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이런 시기에 소통을 통해 자신이 직면한 생활과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한테 어떠한 피해를 줄까봐 내 스스로 통제하고 작년과 같은 동일한 업무를 해도 더 빨리 지치고 피로감을 느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이 등교와 등원을 못하니 가족들과 계속 같이 있어야 하다 보니 나 혼자만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시 코로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언젠가 뭔가를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당장 오늘 실천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각자의 힘들이 다 달랐지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챙김을 해야 하는 일. 부모님, 자녀, 배우자, 반려동물... 그러다 진짜 마음들은 모두 자기만의 시간이 절실했다는 것. 의식적으로라도 우리에게 휴식이 필수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 각자의 마음풍경 카드를 선택해서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어서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에겐 그냥 보통의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친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다 포기하고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는 그냥 맘만 먹으면 내일도 당장 갈 수 있는 여행인데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걸어야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났는데... 그런 나의 모습에 반성을 많이 했다.
- 세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진짜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 나는 안녕한가를 되짚어보게 되었고 서로 공유하면서 내 자리에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삶의 방식의 변화됨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시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몇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이야기 모임을 통해 그 속에서 나름대로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전후 나의 변화라고 발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활동가들에게 이런 시간이 종종 허락된다면 때로는 활동가로서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닦쳐와도 곳곳이 이겨내고 다시금 누군가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무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사무실을 벗어난 곳에서 만나니 대화도 더 편했고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진솔하게 더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후기 에세이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공감, 울컥하는 마음, 망설이는 마음들을 함께 풀어놓았습니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활동가 당근, 인권강사로 활동 중인 바다와 비오, 그리고 이제 활동가로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간 나_일남.

서로 알고 지낸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토끼와 바다, 비오는 전혀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청소년폭력가해자교육팀을 만들고 함께 프로그램을 짜며, 일주일에 한번 내지 2주에 한번 정도 만남을 가지며 얼굴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임 진행할 때마다 지친 모습과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활동가이야기주간에 대해 알게 되고 함께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을 때 모두가 우리들만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카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중에 가장 연장(?)자인 바다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인권강사로도 활동 중인 활동가입니다. 늘 조용하고 밝은 미소를 지닌 바다는 올해 들어 무기력함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 같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는 강의도 없고 딱히 자녀가 힘들게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할 건강상에 문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움직임의 영역 인거 같다고 일남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에는 일을 하면서 집안에서만이 아닌 활동영역이 넓고 에너지도 두루 써가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강의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만 진행하다보니 움직임이 더디고 활동 반경이 집안에서만 있게 되고 온라인강의를 시작하고서 신경은 더 예민하고 곤두서게 되는 거 아닐까하고 이야기를 하자 바다는 그런 거 같다며 혼자서 몇 시간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받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미쳐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와 강사의 강의만 들리는 자신의 공간에서 얼마나 무력해지고 외롭기까지 할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근은 자신의 일상은 늘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것도 몇 개월만인지 모르겠다고 감격해했는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당근은 매일매일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집 외에는 어느 곳도 가기가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일상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직장 안에서 매일같이 집 외의 다른 장소의 접근을 절대불가(?), 오히려 더 답답하고 혹여 어디라도 들려할 때면 혹시 모를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나로 인해 잘못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온통 나를 비난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호는 가정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역사를 가르치는 비호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게 된 두 아이의 아침을 챙기고 강의하다 점심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고 다시 강의하다 저녁을 챙기는 일상에서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최근 다시 학교 등교가 시작되고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지만 다시금 그 시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라며 코로나 이후 집안 일에 대한 부담감, 직장에서의 일,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일까지 도대체 나는 어디 있냐며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남은 비호의 말에 너무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은 노동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정노동에 책 한줄 읽을 시간조차 없는 우리의 일상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녕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꾸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육체의 시간을 부어주고 나만의 시간을 쪼개며 나를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것이 힘들보다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대한다면 우리의 감정도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

저 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일을 분담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서로를 격려 했습니다. 또 한가지 각자가 버려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비우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기, 직장에서의 고충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기 등등.

365일 중, 30일 중, 하루 중 4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오랜만에 주어진 우리만의 시간이라며 믿어지냐고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외로워하고 있던 우리네 마음을 서로의 마음이야기로 채워줬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깝지 않았던 대면대면했던 서로가 처음 마음을 보여준 활동가이야기모임. 같은 직장에 소속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누군가의 말이 콕하고 가슴에 박히기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싶었던 그 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며 토닥일 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어느 활동가를 보며 우리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이야기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안녕한가? 완전한 안녕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안전한 길을 찾고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전한 길이 어떤 것인지, 나의 안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가장 많이 나눈 말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우리들만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마음건강 #11.2 마음책방, 또 다시

경영 마음책방



건강함은 몸과 마음, 사회적인 연결망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결됨을 느낍니다. 2016년 서울시 치유활동가를 인연으로 만난 우리들은 사회에 따뜻한 공기를 퍼뜨리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음책방. 각자의 일상에 치이고 지친 몸을 이곳에서 노곤하게 누이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돌봄하자는 목적으로 뭉쳤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글귀를 나누고 우리들의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책나눔 캠페인을 열기도 하고, 작은 행사를 열기도 하고, 꽤 많은걸 해왔었네요. 코로나 19와 함께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자도생해왔던 우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마음의 안전지대를 두텁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로 충분히 만나지 못하는 시대지만 소규모로 마음을 나누고 서

로의 일상을 다독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활동가의 마음은 어떻게 돌보아야 하나. 여러 테라피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눴다.
-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참 좋네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활동가들에게 지속적 마음 돌봄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진심을 다 안 보여줘도 되구나.
- 서로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 활동가 이야기주간 기획이 너무 좋아요. 또 다른 활동가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가 이야기주간으로 인해 이야기 나누는 장을 촉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특별했어요.

후기 에세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책방입니다. 저희는 서울시 치유활동가입니다. 현재는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각자 일상의 바쁨으로 미루어 오던 만남을 이번 기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 친구가 꼬옥 언젠가 기필코 먹어보리라 다짐했던 경양카츠를 먹었어요. 그 친구는 일 때문에 늦게 오고, 또 일 때문에 밥 먹는 중간중간 통화하러 밖에 나갔지만 정말 먹고 싶었다는 음식을 먹이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가게가 재료소진으로 일찍 문을 닫아 2차 장소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2차 장소를 찾기 위해 정처없이 돌아다니는데 참 이게 얼마만인지. 걷기를 좋아하던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걸어본지가 오랜만이었음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회를 영화 비포선라이즈, 비포선셋에 비유하며 분위기와 흥에 취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오래도니 카페에서 이야기 카드를 펼쳤습니다.

이야기 카드를 펼치기 전, 활동가이야기모임 최종 안내문을 읽고 따라해 봅니다. 이미 반가움의 눈인사는 1차 장소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룰에 따라 해봅니다.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와 다과가 나와 주최자인 제가 픽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환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음료를 개인에게 건네드렸습니다. 다들 참 좋아하시더군요.

우리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근황토크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조금씩 근황에 대해 얼핏얼핏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인 근황토크였죠. 그리고 그들의

최근 일상 이야기에서 주름, 웃음, 눈물, 땀들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그래, 너 그렇게 살아왔구나, 반갑다.'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첫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보이는게 이렇게 성장인가 싶고 참 재밌었습니다.

나의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카드로 뽑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머리가 무겁고 아파요', '파괴하거나 괴롭히고 싶어요' 카드를 뽑아보니, 근황으로 들었을 때 보다 더 '쿵'하고 동료의 마음이 더 잘 와닿았습니다. 모두들 썩 건강해보이지는 않아 걱정되지만, 인생이란게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니 하며 스스로 위로해봅니다. 나에게 카드를 선물하여 영양제를 챙기듯 마음건강을 챙겨보았습니다. '자유로움', '놀이,재미', '농움', '애정', '함께 기뻐함'.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순간이 저 다섯 키워드를 만족시키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단어를 읽기만 하여도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히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예정되어 있던 만남은 그칠 줄 모르고, 종업원의 가게 운영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비로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1시였습니다. 비가 새초롬하게 내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집에 갈 때가 되니 그쳤네요. 우리는 운이 좋아요. 만남이 아쉬워 어느 정도 걸어가자는 친구의 제안이 귀엽게도 들리고 참 웃겼습니다. 친구들과 과의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먼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우리가 헤어지자 행운의 약 발도 떨어진 것일까요. 버스에 내릴 때쯤엔 비가 왔고, 친구 한 녀석은 좋지 않던 컨디션이 심해져 열이 펄펄 끓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걱정됩니다. 우리를 보면 다 나 올텐데. 빨리 어서 보고싶네요 친구가.

#용인 #마음건강 #11.5

활동가들의 관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보듬는 시간

이수연 협동조합슬슬 활동가



사무실 내 공간이 방역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하고 현장참여가 힘든 활동가는 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서로의 마음풍경을 스스로를 보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잘 끝난 것 같다. 서로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모든 마음은 다 옳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함이 아닌 오롯이 나만을 위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 삶의 의미를 밖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 사람은 변화한다.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 사소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각자 자신의 고민은 불안에서 출발한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번 시간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후기 에세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서 우리의 공간이 없었다. 어디 공간만 없었겠는가? 우리가 우리를 부를 이름도, 우리를 나타낼 규정도,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도 없었다. 있었던 건 꿈이었다. 그건 우리의 꿈이었다.

대표님 집에서 모였다. 거실 한쪽에 다리가 낮은 책상을 놓고 둘러앉아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건 희망이었고 포부였고 미망이었다. 진지했으며 왈자지껄했다. 어떤 꿈은 누군가의 꿈과 포개졌으며, 어떤 꿈은 공중에서 흩어졌고, 어떤 꿈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소신껏 각자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함께 걷고 싶을 길에 대하여 나누었다.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꿈이 되었다.

4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에게서 우리의 공간이 있다. 이제는 이름도, 규정도, 약속도 생겼다. 우리가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었고, 우리의 꿈은 하나둘씩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일상은 우리의 기억을 지워갔다.

“조합 활동을 통하여 즐겁게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로 시작되는 우리 단체 소개 문구를 읽은 날이 10월 13일이었다. ‘즐겁게’와 ‘성장’이란 단어가 낯설었다. 숨겨두었던 것을 들킨 듯 민망했고, 잊고 있었던 것과 마주한 듯 부끄러웠다. 다시 한 번 예전의 우리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음과 아름다운 재단이 주관하는 활동가이야기주간의 5가지 주제 중 조합원이 선택한 주제는 #마음건강이었다. 용인 신갈동에 자리 잡은 사무실 책상에 둘러앉았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웠던 조합원들이 모였다. 그리고 60장의 카드를 펼쳤다.

60장의 카드에는 지금의 내가 들어가 있었다. “말수가 줄었어요” “갑자기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피곤하고 쉽게 지쳐요” “머리가 무겁고 아파요” “후회와 자책을 많이 해요” “뭔가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사소한 것도 결정하기 어려워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카드

에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 있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연결된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우리가 되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어렵고 곤란했던 일을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긴 시간 가지고 있었던 가슴앓이를 뱃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이 툭 튀어나왔다. 예전에 내가 무엇을 꿈꿨는지 떠올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하던 기억이 불쑥 나타났다. 이것이 말의 힘인가? 들어줄 사람이 있는 말은 힘이 세다고 느꼈다. 서로의 말을 들어준 우리에게 감사했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활동가이야기주간이 고마웠다.

#인천 #마음건강 #11.2

마음건강-코로나 시대 마을, 마을활동가의 안부를 묻다

이애향 인천 서구민중의집 공동대표



마을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코로나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나누면서 재난시대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구민중의집, 다살림레츠, 우리동네목공방협동조합 등 인천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관계의 힘을 체험합니다. 때로는 주민들, 단체 회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기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활동에서 소진되지 않는 방법을 나누면서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해 나누어 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돌아가며 왜 그 카드를 고르게 되었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은 잘 들어주고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을 했다. 각자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 아는 사이라도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니 때로는 새로운 형식이 주는 울림이 있다. 정리하면서 담백하게 이야기나눌 수 있어 힐링이 되었다.
-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칭고나 평판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자주 서로 속 깊은 이야기 나누는 자리 필요하겠네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비슷한 연령대의 고민과 감정은 그 깊이만 다를 뿐 비슷하다. 서로 공유하여 위로와 대안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이 다양하고 스치듯 지나가면 아무것도 보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랬던 것 같다.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의 소리를 풍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내야할 것 같다.
- 마음풍경 카드를 활용한 소통으로 처음 마주한 사람과도 깊은 관계 맺기가 된 것 같다.
- 마음풍경카드를 통해서 우리 모두 흔들리고 때론 혼란스럽고 막막한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마음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해답도 천천히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 누군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들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첫 시작인 것 같다.

후기 에세이

11월 2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마음풍경 이야기모임이 열렸다. 인천 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는 3개 단체에 제안을 했는데 2개 단체의 활동가 6명이 만났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우과 한바탕 어울림 마당을 진행한 단체는 다음을 기약하고, 처음 보는 이도 있고 십 수 년을 함께 해 온 이들도 있어 쌀쌀한 늦가을 정취에 딱 좋은, 한 잔이 술술 넘어갈 듯한 탕과 찜을 앞에 두고 첫 인사를 나눈다. 5시30분에 만나기로 한 식당이 한 달에 한번 쉬는 날이라 급히 찾은 식당이 어떻게 싶었는데 그 동네 맛집으로 찜!!! 따뜻하고 맛있는 한 끼를 나누며 몸도 마음도 노곤노곤해진 우리는 커피를 사들고 동네 목공방으로 걸어갔다. 어스름할 때 동네 친구들과 다른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몇 년 만인지 괜스레 설렘었다.

7시, 오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나누며 마음풍경 이야기모임이 시작되었다. 코로나로 만남이 줄어들고 활동이 취소되거나 너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니 무력감 소진감도 느끼고 외롭고 허전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묻게 되고 마을과 공동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다. 코로나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들 마음 풍경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

카드를 하나씩 고르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다른 사

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마음풍경은 달라도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고민의 지점이 비슷한 것에 놀라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울컥거리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이었다. 마음 풍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을에서 함께 늙어가고 싶은 개개인의 소망을 단체의 비전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6명의 마음풍경을 세밀화로 그리는 동안 시간은 벌써 9시가 지났고 현재의 나에게 선물하고 싶은 자기처방 카드를 하나씩 골라서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 대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서로를 잘 알고 익숙한 사이이지만 마음풍경 카드를 매개로 이야기를 하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모습도 내 얘기를 할 때의 모습도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진지하면서도 따뜻하다고 할까. 그냥 수다로 풀어내는 게 아닌 '요즘 내 마음이 이렇구나' 카드에 비친 내 마음을 앞에 마주한 느낌, 나에게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 묻고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서로 특별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엄청난 비밀을 나누는 것도 아닌데 어디 먼 곳으로 오래 여행을 같이 다녀온 마냥 서로에게 더 애뜻하고 연결된 느낌이 좋았다. 자기처방카드를 고르면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는 느낌으로 충만해서 마음이 더 따뜻해졌다.

다음에는 우리 언제 만날까요? 또 만나나요?' 구체적인 일시를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연말연초에 우리는 또 만날 것 같다. 서로의 표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았으니.

#청주 #마음건강 #11.5 활동가의 힐링 스토리

쉽힘 청주YMCA



코로나19로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특히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직무상 스트레스, 환경적 변화, 새로운 기술 필요 등 수많은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각자의 힐링 스토리 공유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활동가에게는 저마다의 '쉽'이 필요하다!
- 활동가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힐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나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생길 경우 우선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에는 보통 사람이 많지 않는 자연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 개개인의 힐링 방법을 공유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힐링 방법을 사용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일 자체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서로의 힐링 방법을 말하고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친밀감이 형성되어서 좋았습니다.
- 신입 활동가들이 안정적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민 활동가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사기업을 다니다가 도망치듯이 나왔었다. 그러다가 만났던 곳이 소위 시민단체, NGO단체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직업도 더 이상은 단순 회사원이 아닌, 그 이름도 생소한 '시민단체 활동가'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사업에 여유가 생긴 덕인지, 상반기에서 여름으로 넘어가 전 시기에는 도내 NGO센터에서 신입 활동가 교육도 받았다. 정체성도 다져가고 또래 활동가들과 고민도 나누었다. 그때의 기분 좋은 설렘을 뒤로 하고, 과중한 업무와 새로운 것들을 맡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무뎠던 중 <2020활동가이야기주간>이라는 생소한 것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지나가듯 보고 넘겼었는데, 자꾸 곱씹어볼수록 잊혀지질 않았다. '아, 이게 바로 나를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마련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본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신청한지도 잊을 때 쯤 귀엽고 깜찍한 이야기카드와 마스크, 안내지 등을 담은 택배가 도착했다. 그때만 해도 그저 눈앞의 바쁜 일에 선정되었다는 기쁨보다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었다. 처음 정했던 날짜가 무산되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날짜를 변경하였다.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모임을 시작하였다.

항상 밥 먹으면서도 일 얘기로 가득하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기대와 동감, 수줍음으로 가득했다. 선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가이기 전에 인간적인 그들의 삶을 보았다. 바로 윗선배는 혼자만의 시간,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나선다고 했다. 제일 말선배는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다다른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년 인턴이지만 누구보다 나를 열심히 도와주는 후배는 불금을 정말 제대로 즐긴다고 했다.

아직 1년 미만인 자로서, 코로나19가 활동가로서 일하는 것에 영향을 주느냐고 했더

니, 한 선배는 모임을 많이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한 선배는 이전에는 정말 너무 바빴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활동가라는 직업을 갖고 나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내 삶을 포기해야하나 내적 갈등도 많이 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번 활동가주간 이야기모임이 그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로 때 아닌 여유를 누렸고 지금은 일폭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말 모처럼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소중한 동료활동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서울 #마음건강 #11.2

잠을 내서 마음건강 챙기기 모임

전서희 청소년활동가



각자의 비영리활동, 함께 마을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모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마음건강은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자신을 자책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위로하는 게 아닌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카드에 담겨있을 질문들이 잠시라도 서로의 마음 건강을 체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고, 다시 세상을 위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충전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이야기카드가 안내하는 대로 최근 나의 마음상태와 필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불

안, 공허, 무기력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내 어려움을 담담히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건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서로 힘들어 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나와 상대가 안심한 상태에서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깊고 담담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마음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반복되었던 이야기 같지 않고 내게, 상대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리프레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보이지 않는 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야기카드는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습니다. 필요한 일상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나는 함께 기쁘하고 애도하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료'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업, 활동을 해내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하고 싶구나.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 요즘 마음이 공허했나보다. 나의 느낌이나 욕구보다 주변인의 상태를 살피다보니 오히려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 같다. 또 반대로는 사람과 상황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게 된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여유가 없어서 오해가 쌓이게 되고 나는 마음이 쓰이는구나.
- 보이는 부분과 마음건강은 다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 안에 담고만 있지 말고 밖으로 뱉어내자.
- 캐주얼하면서도 적당히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도구가 인상 깊었어요. 바빠서 약속잡기 버거운 11월에 오히려 활력소가 되었달까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는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 이야기카드, 내용이 따뜻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개로 작용했다.
- 이야기 주제들이 모두 꼭 한번쯤은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고픈 주제여서 기분좋은 고민을 했어요. 마음건강의 경우는 걱정한 수위였던 것 같아요.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편하게 이런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장 마련해주셔서 감사해요!
- 일에 치여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감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마음건강 #11.3 재난시대에 마음챙김

필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음식공방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스무 살 세가식크루 4명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해냈던 성장, 일 경험,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눈다. '지속가능먹거리', '기후위기', '비건'을 주제로 프로젝트(비건다과케이터링, 도시농부장터 출점)를 해냈고,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해 좌충우돌 중이다. 이 재난시대의 우리 마음건강을 돌아보며 들여다보고, 마음을 챙겼던 순간을 나누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각자의 방법을 나눠보려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로 각자의 마음상태를 알고보고, 셀프처방과 멤버가 멤버에게 해주는 처방을 내렸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활은 지지부진, 일 경험 프로젝트를 하며 일상을 유지했다. 나의 지금 마음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이자, 들

여다보는 시간이었다.

- 마음돌봄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꺼내놓는 것부터 시작이다.
- 스무 살을 맞이한 세가시크루는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의 제안을 받아 비건 다과를 케이터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장터에 나가보는 일을 경험했다.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예상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위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서투르고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나만 그렇지 않구나,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싶어서 든든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나를 더 알아가고, 크루 멤버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좋았고, 단순히 고민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나의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 마음은 혼자 돌보기 보다 함께 돌보면 좋구나.
- 나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솔루션을 찾아봤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요즘 내가 피곤하고 지친다고 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원인을 토대로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람들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나눌 수 있고 공감하고 답해줄 수 있는 시간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다른 삶과 생각에 깨달음이나 배움, 자극을 받기도 한다.
-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처방들을 내려주다 보니 뜻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술술 나와 좋았다.
- 내가 뽑은 카드가 “약속을 계속 잡는다”였는데 나온 솔루션 중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정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 나에 대해 돌이켜 본 시간이었는데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인상 깊었다.
- 일을 시작함에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기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재밌는 일인지를 고려해본 적은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재미를 고려하면서 일을 선택해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런 시간이 1년에 딱 두 번 정도 있으면 풍요로운 삶이 될 것 같다. 풍성했던 3시간이 정말로 행복했다.
- 카드를 활용해 말문을 트이게 한 기획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분기별로 있다면 좋겠습니다.

- 이야기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야기들을 했는데 내 마음상태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하다.
- 나에게 고쳐야할 점과 보완할 점을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 나의 삶은 해피할 것 같다.
- 카드에 적혀 있는 것들만 고르려니 생각이 제한되는 것 같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후기 에세이

만남 자체가 소중한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은 단계라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함께 우리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 나누고자 만났다. 드레스코드를 맞춘 게 아닌데, 우리들은 초록, 빨강 계열을 입고 나타났다. 11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였다.

‘마음풍경’ 카드가 펼쳐져 있고, 함께 마실 차가 준비된 편안한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스무 살 텃석, 주쓰, 두콩, 스무 한살 글동, 그리고 4명의 세가식 크루의 친구, 동료, 제3의 어른인 그들보다 좀 더 오래 산 라라와 필라는 근황을 물으며 분위기를 풀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한 성인, 그리고 스무 살에 하게 된 세가식 크루에서의 일 경험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였다. 감정이 적힌 카드를 하나씩 고르고 자신의 마음상태를 꺼내놓았다. 꺼내놓은 마음에 따라 셀프 처방과 다른 멤버들의 처방이 덧붙여지며 오고 갔다. 짧게 끝나리라고 생각되었던 마음풍경 카드로 시작된 이야기는 상당히 길어졌다. 카드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니 진솔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멤버들의 마음과 처방 이야기

OO의 마음은?

“무언가 계속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1-5월까지의 집에만 있었고, 6월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돌아켜보니 한게 너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게 도전을 계속해야 다음이 안 무서운데, 코로나 나아지면서 도전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할려고 하니 생각이 많아지고 주춤해요.”

OO을 위한 자기처방과 멤버들의 처방?

“자기처방 (용기) 용기가 부족해서 하려던 것보다 다른 것을 골라요. 도전하고 싶은 것에 용기내주고 싶어요. (마음 알아주기) 불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있는게 중요할 거 같아요. (삶의 의미) 스스로가 행복하게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표현) 마음을 표현하는게 부끄러워도

내 마음을 계속 스스로에게 누군가에게 표현하세요. (인정) 올해 한계 많은데, 심지어 칭찬을 의심하기는 하네요. 장점과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재미) 어떤 일을 할 때 재미있어 보이던 했으면 좋겠다. 재미를 보고 선택을 해요.”

□□의 마음은?

“약속을 계속 잡아요. 약속 없는 시간에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약속을 해서 나가고 의미있게 쓰고 싶어요. 바쁘게 좋아요. 한달에 한번 집에 있는게 좋아요. 가끔 있는 여유로움이 행복해요. 근데 알바를 하면서 어깨나 목 등에 통증이 있어요. 사람들도 미워져요. 서비스업 알바를 하면서 성격이 안 좋아지는구나 생각해요.”

□□을 위한 자기치방과 멤버들의 처방?

“(삶의 의미)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을 헛되어 보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의미를 느껴. 사람 만나게 좋아. (성찰) 열심히도 좋지만 질을 높였으면 함. 강의 공부에 시간을 쏟아보면 어떨까 (놀이)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 (꿈과 희망)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보면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할까? 궁금증이 들어서 당신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빠른 나이에 성공을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알바 하다보니 적금 넣었는데 50만원을 넣어. 허리띠를 졸라 매는게 아닐까. 동갑인 여자애인데 주 4일 알바하는데 80만원까지 넣어봤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사고 싶은게 많고… 우리 또래 애들은 그냥 사는데, 왜 내가 뭘 위해서 하는거지?”

UU의 마음은?

“세상 혼자인 것 같아요.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져.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게 아니라 혼자인거 같다고 느껴요. 결국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기도 하다.”

UU를 위한 자기치방과 멤버들의 처방?

“(함께 기뻐함)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혼자 인거 같아도 같이 사는 세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런 생각이 덜 들어. (혼자만의 시간) 혼자임을 받아들이는게 좋지 않을까. (성찰) 자란 것도 혼자서 자란게 아니야. 부모 입이 키워주셔서 자란거고 이야기하고 상호교류가 있어서 가능했어. 같이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거라고 생각해. 성찰해보고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 (감사) 최근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열정) 혼자라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우울하고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집중해서 하는거니까 즐겁게 된다.”

YY의 마음은?

“피곤하고 쉽게 지쳐요. 알바가 너무 힘든거 같아요. 원래 주말 알바여서 하는거였는데요. 주중에도 나오라고 하는거예요. 너무 매일 나오라고 해서 체력적으로 딸리고 다리도 붓고 근육통도 오고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요”

YY을 위한 자기치방과 멤버들의 처방?

“(자유로움) 조금이라도 자유시간을 갖으면 치유가 될 거 같아. (건강) (성찰) 서 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짝다리 습관, 얼굴 표정, 앉아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치며 몸을 살피면 좋겠다. 자기진단을 내리고 습관을 바꾸는게 필요해. (여유로움) 시간을 바꿔서 여유를 만들어야 해. (균형)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 회복하는데 시간을 확보해. (휴식) 체력적으로 못 버티면 그만두는 것도 생각하고 휴식을 만들고 돈을 벌고 싶다면 계속해야 할 수도 있어. 결국 선택이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자체가 마음 돌봄이자 처방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자체가 마음돌봄이었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 시간 자체가 마음처방이었다.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었고 다른 삶과 생각이 자극이 되었고 배움이기도 했다. 우리 세가식크루는 다른 진로를 꿈꾸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세가식 크루’라는 한배에 올라탔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우리, 세가식 크루들은 함께 요리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를 만들며 우리만의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다. 스무살의 경험은 그 자체로 돈이고 시간이다. 도시농부장터 ‘보자기장’에 개인별로 출점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비건다과 캐터링도 해냈다. 작년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우리가 원하는대로 발효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세가식크루의 내년을 꿈꾸고,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 우리가 다음을 꿈꾼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다니. 그래서 오늘의 마음돌봄과 처방을 나눴던 시간이 더 없이 값지고 소중한다.

#옥천 #마음건강 #11.5

우리는 무엇에 아파할까요?

정창영 옥천마을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옥천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마을교육과 공동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접 마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활동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은 매우 열악해 자원봉사 형태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무관심, 지자체와 교육청의 낮은 인식, 고된 노동, 낮은 서류업무 등으로 많은 활동가들이 심적 부담과 피로움을 호소하지만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활동가 이야기주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꿈꾸는 마을교육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그 속에서 각 활동가들은 어떤 고민과 비전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 함께 할 때 길이 보인다. 모두를 위한 정답보다는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 보자.
- 우리는 자주 만나지만 일로서 만날 뿐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스스로 활동가 이야기주간 같은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삶의 의미를 찾기. 가족과 가족을 챙기는 데 마을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스스로 지켜야 한다.
-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일을 위해 삶을 맞추는 느낌이 든다.
- 마을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소속감과 연대감 같은 고민을 나누면 좋겠다.
- 나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던 점을 함께 하니 약간의 위안이 됩니다.

후기 에세이

옥천에는 지난해 겨울,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마을형 돌봄교실이라는 옥천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그 이전까지 마을교육이나 활동가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평범한 주부이거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을돌봄을 해보자고 한데는 모두가 '우리 아이를 우리 마을에서 함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였습니다. '우리', '마을', '함께'가 중요했습니다.

시작은 뜨거웠고 서툴지만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운영 위원회를 꾸리고 힘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작은 돌멩이 하나에 휘청이며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떤 사건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모이고 이야기 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을 찾지 못했고 처음 마을돌봄을 만들고자 한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모임을 한 사람들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다행히도 마을돌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과 맞벌이 부부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이 무척 다행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1년 넘게 마을돌봄을 준비한 주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제안자로서, 마을돌봄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부모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미처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연과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떠나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가,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나갔고, 각자 자신의 삶의 길에서 어느덧 일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 년만에 '마을돌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활동가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기도 하고 또

그 책임과 무게에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모임은 그러한 시간을,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고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짊어져야 '결정'의 무게에 힘들었고 누군가는 처음 가고자 했던 길의 '순수'함을 잃는 것 같아 괴롭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 드러낼 수 없는 서운함을 숨기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숙제가 되어버린 활동, 혼자만의 짐이 되어버린 활동은 조금씩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마주합니다. 컴퓨터 버튼을 누르듯 쉽게 '리셋'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처음 품었던 열정과 이상, 순수함을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돌봄'을 향해 한걸음 내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꿈꿨던 마을돌봄이 무엇인지,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활동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쉽사리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판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면 힘 닿는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뿐입니다. 아이들이 웃어주면, 좋겠네요.

#부천 #마음건강 #11.4

토닥토닥, 마음 끌어안기!

조민기 부천시민연합 간사



지역의 NGO 재정 여건상 활동가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소수의 인원들로 많은 일을 맡으니 금방 지치기도 하고, 활동가라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도 많습니다. 이에 #마음건강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쉽사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놓기 어려울 뿐이지 활동가이야기 공간을 기회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지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본인 마음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위기와 여건, 상황 등이 중요하다.
- 활동만 열심히 했지 서로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마음의 상처, 좋았던 부분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상대의 처지와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다.
- 힘든 활동 속에서 서로 서로 위로와 배려가 필요하다.
- 삶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보자.
-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 시작은 열정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다.
-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 좋겠다. 현재 자기심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2019년 활동가 이야기주간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때는 주최자의 역할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참여자들의 속마음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자리는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야기 주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신청을 했다. 전국 각지의 많은 활동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한층 더 나은 우리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을 돌볼 시간은 과연 있었는가? 자신을 돌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조차도 마찬가지다.

NGO의 특성상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활동가들은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리 기업처럼 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없어 한 사람이 떠안는 일의 양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항상 지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스스로 지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상황의 여건 때문에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평균 연령대가 높아져 가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근본적인 밑바탕을 해결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물질적인 어려움 등으로 활동가들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챙기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 모든 걸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고 갖지 않은 거 같다. 그런 의미에서 2020 활동가이야기주간은 활동가들의 지친 맘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서로의 상황과 고민거리를 공유하며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11월 04일(수). 활동가 이야기주간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오랜만에 활동가들끼리 약속을 잡아 야외로 출타했다. 활동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들을 위한 시간

을 갖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장소는 강화도다. 오전에 만나 출발을 했으며 역사유적지 탐방, 점심식사 그리고 카페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이다.

시작 전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일 이야기 뿐이지 서로의 근황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앞서 기본 예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파란색 카드를 펼쳐 현재 본인의 심리 상태, 근래에 가졌던 감정을 상기에 파란색 카드를 고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각자 1~2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이유를 말했으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활동가들이라면 이런 자리의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진행하려고 하니 초반에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기에 어색하고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상호간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분위기가 많이 편해졌으며 이야기를 더욱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었다.

이후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혹은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에 알맞은 초록색 카드를 각자 1~2개 골랐다. 그리고 이를 고른 이유를 각자 설명했으며 질문이 어려운 경우나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카드 뒷면에 예시 되어있는 질문을 토대로 이어갔다.

일련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이를 되돌아보고 남기기 위해 회고지를 바로 작성했다. 시간이 지나 작성을 하게 되면 당시 내 기분과 감정은 크게 괴리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0여분 간의 작성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마음 상태와 상대방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와 상태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의 온전한 마음 표현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때론 누군가는 말한다. “불편해하지 말고 바로바로 말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말처럼 쉬운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여건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이야기 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느낀 부분이다.

상호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은 마음이 어떤지 등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전 과정에 대한 느낌을 다시 상기해본다.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힘든 점, 내 마음 상태, 고민하고 있는 지점 등 생각 외로 우리는 서로를 잘 몰랐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굳이 이런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차후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2020 활동가 이야기주간이 참으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 거 같으며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만약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하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정도로 횟수를 늘리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며 글을 마무리한다.

#대전 #마음건강 #11.6

마음은 공익마음과 사익마음으로 나누어지나요?

최승희 공익활동가



이번 참여를 결정한 분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투표로 #마음건강을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직문화와 경쟁을 했는데요. #재난시대, #세대차이 모두 한 번쯤은 얘기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작년에 참여했던 두 분과 새로이 참여하시는 3인으로 구성되어서 작년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활동가의 가치지향'과 '활동방향'을 살짝 나눌 예정입니다. 본 주제인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이야기카드를 보내주신다니깐 그것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입 밖으로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단체나 캠페인에 누가될까 전전긍긍할 때도 있구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현재의 근황을 나누고, 잘 모르고,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른 이의 발언과 행동으로 화가 났던 일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었습니다.
- 모두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 이 이야기모임이 나무처럼 한줄한줄 새겨져 더 자유롭게 날개짓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여러 활동가들의 생각과 고충을 들 수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과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여러 삶의 순간들에서 활동가가 되기로 결정하고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활동가인가 하는 고민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방향에 따라 활동가가 될지 멈출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 개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활동가'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활동의 막연함보다는 구체성과 뚜렷한 목표, 추진력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순간, 알 수 없는 위로가 된다.
- 활동하는 가치관이 각각 달라서 다른 이면을 보게 되었다.
- 배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활동가로서 끊임없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만큼 배움을 설명하고 느낀 것이 컸다.
- 말을 하는 것으로도 화나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말처럼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말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활동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기 쉬운데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주세요. 다양한 활동가들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기 에세이

코로나가 다소 잠잠해진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규제들을 완화했다. 그러자 숨죽여 활동들을 자제하고 있었던 많은 단체들은 스프링처럼 빠르게 일정들을 채워갔다.

작년 활동가이야기주간 때는 참석을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잡힌 같은 날의 다른 일정을 선택했다. 불참의 이유들은 각기의 다른 이유들이었고, 언제나처럼 사람들은 모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 명이 시작한 이야기는 솔직했고 깊었다. '활동'에 대한 이야기라니 간혹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막역한 사람들과 술 많이 마시고 나누는 이야기들의 정수를 모아 한번에 10년 치는 모은 것 같았다. 작년의 그 이야기로 코로나로 인한 이 혼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을 받았다. 힘이기도 하고, 나침반처럼 그날의 의미는 강력했다.

작년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무엇인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한동안 그는 답신이 없었다.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전화를 해 온 그는 잠적의 이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같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잠적 중이지만 나에게도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 연락은 의미가 있었다. 그가 활동가의 일을 잠시 멈췄지만 그는 어디서건 어떤 모습이건간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할 끈을 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카드로 근황나누기

올해는 작년에 참석했던 두 명과 올해 새로이 이야기 주간에 참석하는 세 명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건강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한 감정카드(슬프다, 당혹스럽다, 설레인다 등등의)를 두세 개씩 뽑아 감정과 관련한 근황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의 활동과 일들을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정과 관련된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자신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직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직이야기, 과거에 했던 활동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까지 나누었다.

가치카드로 자신의 활동 알아차리기

근황을 나눈 후에 작년에 이어 가치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내었다. 가치카드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카드(민주주의, 환경, 신뢰, 공공성)를 고르고, 그 가치와 관련한 자신의 일련의 활동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직접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가치카드 ‘공공성’을 고른 다음 그 밑에 포스트잇으로 ‘하수도민영화반대’ 피케팅이라고 쓰고, 주에 한 번씩 피케팅을 하고 있으며, 하수도민영화반대 시민모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이 가치카드를 활용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의 영역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가 확인해지는 느낌이 들었었다. 그래서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가치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과 관련해 마음건강

주최 측에서 준비해 준 마음건강 카드로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로 했다. 처음을 열었던 자신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게 분노나 당황, 혼란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서운한 일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마음소모,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준비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해야 했기에 거기서 멈춰야 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에서 준비해 준 기록지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소감들을 나누었다.

#서울 #마음건강 #11.6

〈내 머릿속의 무지개〉 보드게임을 통해 마음의 균형찾는 법을 모색하기

아침 활동가



〈내 머릿속의 무지개〉라는 보드게임을 해보고 활동가들 마음 속 여러 가지 경험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내 머릿속의 무지개는 정신장애임파워먼트 보드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 지인의 추천으로 게임을 해보던 당시 활동공간에서의 폭력사건으로 공황발작 같은 힘겨운 상태였는데 게임을 통해 여러가지 마음 속 불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바라보고 의식하기 힘든 지인과 게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이 모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안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비공개 초대하다보다 활동가들이 너무 바빠서 모집이 정작 쉽지는 않았네요. 주간이 아니라 월간, 혹은 주말 일정 포함이면 좋겠어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알록달록 무지개 색이 내면에 서로 잘 이어지고, 공존할 수 있어야겠다. 나한테 많은 색이 났지 부족한 색은 났지 잘 알면 좋겠다.
- 활동을 하면서 이런 장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만큼 이러한 주제로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 무지개 게임 카드의 캐릭터,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로 내 요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처음 만난 활동가들이 공감과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모임이 안전하게 느껴졌다.
- 서로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다. 너무 이야기를 무겁게 이어가는 것이 아닌 여러 수단(카드, 보드게임)을 통해 이야기해서 너무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 모임 진행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 이야기 월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 많은 모임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내용이 공유되기 어렵고, 참석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웠다.

#원주 #마음건강 #11.6

활동가들의 마음은 누가 지켜주나요

쏟살회 기념사업 사무국 직원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나 자존심 자존감등이 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훼손되고 손상되는 경우가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서로 진솔하게 나눠보고 또한 그것에 관해서 각자의 해결 혹 해소방법등을 나눠보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등에 대해서 상소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었기에 처한 상황들과 그 상황 이후의 서로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나누고, 좀 더 건설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위로해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 사람에게겐 칭찬과 진심어린 환대가 필요하다.

- 사실 지난 번 이야기모임 때 함께 활동가들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던 같은 직장동료였는데, 조직에서 당한 불의한 일 때문에 모두의 마음 상태가 걱정이었습니다. 활동을 떠나 어떤 조직에서든 본인들의 마음을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임은 주최하였고 꽤 진솔했고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구나 생각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마음 건강을 위해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집단이 필요하다. 일을 하며 마음이 다치는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지지를 받으며 치유될 수 있다. 활동은 일을 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동료와 관계 맺는 것이 밑바탕이 된다.
- 무척 어렵긴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어깨에 지고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풀어줄 동료가 있다면 그 과정은 한결 수월할 것이다. 내가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일과 생활에 적용하며 느꼈던 좌절감을 어찌면 모두 함께 느꼈던 감정이 아닐까.
- 소속감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함의 의미를 이야기 중에 찾았다. 내가 환대받는 집단이 있다면 일의 공허함을 줄이고, 반복 업무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 환대받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 정답을 몰라서 고민이 고민처럼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야기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많이 괴로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대화의 힘'이구나. 앞으로 자주 관련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
- 주제별 이야기 카드 덕분에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주제가 마음건강인 만큼 편한 분위기가 됐다.
- 비영리단체에서 3년을 일했고 해고 후 벌써 9개월에 접어든다. 나에게 활동가스러움을 강조했던 조직은 나를 저버렸지만, 괴로웠던 기억은 퇴사 후에도 고스란히 남아 아직도 종종 나를 괴롭힌다. 동료들과 모처럼 마주앉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다.



재난시대

#청양 #재난시대 #11.2

코로나시대 사람들에게 쉽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자

강계화 관광두레 주미사업체 청보리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코로나 시대 우리들에게 '쉽'의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사소한 일상과 생각까지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 함께 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쉽'을 주었다. 활동가 모임 자체가 힐링과 쉽의 시간이었다.
-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과 카드의 돌발질문에도 즉흥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 또한 우리 모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활동가 이야기주관을 만들어줘서 정말 진짜로 좋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어 나 역시 뿌듯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의 귀중함을 깨달았다. 다같이 모여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시간이자 이곳이 바로 쉼터라 생각된다.
- 코로나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생활을 조절하지 말고, 코로나를 일상에 녹여내고 그 일상에서 삶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공감을 해야 한다.
- 활동가 이야기모임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나눔으로 충분한 공감을 나누었다. 힘든 이야기,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까 등 (자신의 이야기, 경험, 개인적인 이야기) 관심 가지고 대화 나누는 시간 듣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힐링되었다.
- 삶의 공간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의 차이는 크게 다를까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휴식의 정의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채롭고 재밌는 세상임을 새삼 느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주며 함께 이겨나가야 할 코로나인 것 같다.
- 사람들과 모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받는 자체로도 코로나 시대에선 '쉽'인 것 같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사소한 대화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삶의 모든 것에 무소유를 실천하며 산다는 J님의 이야기에 나의 생활에서 넘쳐나는 소유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무소유를 통해 그가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정말 좋았다.
-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호칭이나 말투에서도 존중이 내포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 생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궁금한 질문으로 또다시 대화나누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 느낌을 전해주고, 듣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 고마운 시간이었다.
- 상처도 소유욕에서 온다는 말이 기억난다. 왜 상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크게 공감하게 되는 말이었다.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정을 주고 소유욕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처를 받게되는 것 같다.
-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나에게 쉼은 기본적으로 충분한 분위기와 혼자 있는 시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서 기운을 얻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다.
- 늘 인사하고 마주치는 이들과 일이 아닌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준 활동가 이야기공간이 정말 고마웠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확행을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내년에도 다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활동가이야기모임이라는 아이디어가 참 좋고 서로 이야기거리를 카드로 나누어 대화할 수 있어서 진행함에서도 수월하고 효과적이었다.
- 주제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야기 모임이라

는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영향력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해 보고 싶다.

- 좋은 기회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카드 구성이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네요.

#광주 #재난시대 #11.3 코로나의 긍정적 발견

김세화 (사)미래인재UNIV



마음수련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세상과 나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회원들을 만나면서 심적인 부담감과 소진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시대 마저 긍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암울한 세상을 극복할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코로나 시대라서 가능했던 일, 코로나 시대라서 물어갔던 점에 대해 이야기나눴다.
- 어떤 어둠속에서도 희망을 심을 수 있다.
- 어려움을 낱낱히 밝히다 보니 오히려 마주하게 되는 긍정의 씨앗을 보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 어떤 어려움에도 정신을 챙기자
 - 일상의 방역지침으로 건강성 향상,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류의 문명이 자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작은 노력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
 -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웃었다.
 - 코로나로 다시금 소중한 것이 무언지 되돌아 보았다.
 -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 감사합니다.

#부산 #재난시대 #11.3

재난시대, 환경 보호는
모두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김영랑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 언론, 문화, 환경 단체 활동가들이 각자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모임입니다. 코로나 재난시기를 겪으며 환경 보호는 환경 관련 단체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임을 느끼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 모임에서는 그간의 프로젝트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나갈지 고민하고 계획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각계 활동가들이 모여 하나의 활동을 이야기하니 보람됩니다. 앞으로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고 싶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환경, 함께 모이니 할 이야기가 더 많다.
-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잘 된다.
- 시민사회가 환경, 에코 등등 더욱 관심 가져야 한다.

후기 에세이

재난시대, 환경 보호는 모두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3일 서면의 한 비건 카페에서 네 명의 활동가가 모였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언론, 문화, 환경. 하지만 재난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일로서의 활동에서 나아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보호'라는 거창한 말 안에는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종이컵이나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 되도록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름 동안 에어컨을 틀지 않고 생활했으며, 한 달 동안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딱 한 개만 사용하였습니다. 환경 보호 고수가 보기에 아직 부족하다 여길 실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모임에서는 먼저 지난 활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보다 재활용 쓰레기가 더 심각한 것 같다." "편의점, 배달, 택배가 쓰레기 발생의 주 원인이었다."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대체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산에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지 고민하고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11월에는 플로깅, 줍깅이라고도 불리는 뛰면서 또는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 노는 밤에 산책을 나가며 쓰레기를 줍는, '줍책'을. 활동가 정은 달리기를 하기 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걸'을. 활동가 구와 김은 출퇴근길에 쓰레기를 줍는 '줍근'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줍' 활동을 하고, 주운 쓰레기를 분류하여 각자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어떤 쓰레기들이 발생했는지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환경 보호는 환경 단체의, 환경 관계자의 일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활동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비건, 탈핵... 무엇이 되었든 인간이 더 오래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생존이 타자에게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라도 환경 보호가 모두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주 #재난시대 #11.2

지역의 교육공동체는 어떻게 활기를 키워갈 것인가?

피터 신촌서당



지역의 새로운 교육활기를 위해 노력하던 단체들이 코로나19 이후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피어오르던 활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롭게 활발하게 그동안의 계획을 유지하고 변형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해 보려합니다. 모두누림교육협동조합의 멤버와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쿱생협의 대표가 모여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기록할 예정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경주 시민, 공동체에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욕구가 많다. 여러 단체가 협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새로운 시도를 위한 새로운 방식은 무엇인가? 아이쿱, 교육협동조합이 협업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함께 할 일을 함께 찾고 중립적인 공간에서 실현하자.
- 역시 만나서 주고받는 의견은 질감이 다르구나.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함께 연대해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시도해야지.
- 경주의 젊고 새로운 활동가들의 공개된 모임-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확인했다.
- 각자의 상상과 고민, 특히 경주시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오늘 얘기 나눴던 많은 희망과 생각들이 좋은 결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 새로운 경주, 동네, 꼭 같이 만들어보아요.

후기 에세이

이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조적인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아마도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교육협동조합이 우리 마을에 잘 형성되기 시작할 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탓에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꼭 우리 마을만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1,500명이 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주아이쿱생협과도 이런저런 콜라보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함께 추진하고 있던 인문독서 아카데미 외의 다른 일은 시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주간에 경주아이쿱생협과 좀 더 긴밀한 하게 코로나시대,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의 때에도 무언가를 활발히 추진하기가 힘들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새로운 시도를 약속하는 대화이기도 했기에 무척 알찬 시간이었다.

신촌서당은 모두누림교육협동조합과 함께 우리 마을에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때 경주아이쿱생협은 좋은 지지자로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아이쿱생협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인문학 교육, 여러 예술활동들, 재난대응프로그램 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관심분야를 넓혀왔다. 신촌서당과 모두누림도 '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놀이학교, 체험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설립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아이쿱생협과 모두누림교육협동조합의 방향성이 잘 맞아있음을 알았고 함께 무언가 추진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의견을 자주 주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매년 어떤 일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실제로 추진된 일들은 없었다. 신촌서당은 모두누리교육협동조합과 경주아이쿱생협의 매개자로서 늘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적인 일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었다.

이번 이야기 모임에는 모두누리교육협동조합 1명, 경주아이쿱생협 2명, 그리고 신촌서당에서 1명, 총 4명이 모여 앞의 이야기들을 주제로 솔직한 감상과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그동안 왜 실질적인 콜라보가 어려웠는가. 여러 생각이 오고 갔지만 결국 지리적인 거리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모두누림과 신촌서당은 불국사 근처에 있다. 경주에서는 울산과 가까운 외곽지역이다. 경주아이쿱생협은 경주 시내 황성동에 위치한다. 자연스럽게 경주아이쿱생협의 조합원은 시내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경주아이쿱생협의 모임공간에서 진행하거나 신촌서당에서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각각의 멤버들은 상대의 장소를 멀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모두누림과 경주아이쿱생협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보는 것이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시내와 외곽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서 모임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동안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비슷한 일들을 반복해 왔다면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는 의견이 큰 힘을 얻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여기 한번 가보자. 새롭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쿱생협+모두누림+신촌서당의 활동가들이 섞일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각각의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공유하기로 했다.

이야기 시간은 신촌서당에서 새롭게 모두누림과 만들고 있는 <골방책방>에서 진행되었다. 아직 공사중인 공간이지만 새롭게 탄생되는 공간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 보며 새로운 겨울을 꿈꾼다.

#제천 #재난시대 #11.3

공공의료지원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류인숙 제천YWCA



재난시대에 공공의료 지원체계 및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의 담론. 관련 주제에 대한 자유토론 및 포럼 진행을 위한 준비회 구성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코로나 19로 야기된 엄청난 재난시대, 우리 지역 제천은 청정지역으로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행여라도 엄청난 수의 환자가 발생했다면 더군다나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많은 제천은 자칫 암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응급상황에 대처할 공공병원이나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의 여건상 민간에 의지한다지만 이익산출에 급급한 민간병원은 투자가 어렵고, 결론은 다시 공공의료의 확충이다.
- 관에서 주저한다면 민이라도 모여 이슈를 만들고 키워 함께 생존하자.

- 연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십시일반 부족하지만 결과를 만들고자 의지를 보이고 협력하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이 이루어진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제천시역 공공의료이 너무나 낙후되었다.
- 토론회 준비가 순조롭고 몇몇 순서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잘 챙겨야겠다. 공무원 노조의 준비와 관련된 최선이 고맙다.
- 공공의료 강화. 반드시 강화해서 지역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연대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 공공의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다.
- 단양지역이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 놀랐다.
- 지역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았다.
- 대한민국 공공의료정책의 대변환이 절실하다.
- 생각하고 말하기는 쉬우나 구체화 현실화 하는 길은 길고 험하다.
-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그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 제천, 단양 지역인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하여 공공의료 시설이 강화되어야 한다.

후기 에세이

공공의료지원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기로 하였으나 그사이에 대책위가 꾸려지고 우리들의 모임은 어느새 대책위 모임으로 전환이 되었 습니다. 코로나19.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21세기 흑사병.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지라 매일이 공포이고 두려움으로 모든 일상이 흔들려 버린 지 수개월. 우리 시는 그래도 방역에 선방(?)하여 확진자 3명. 그분들도 다 외부에서 거쳐간 분들로 실질적으로 지역 안에서는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망정이지 고령화사회로 접어 든 제천시에 만약 다른 도시처럼 코로나 확진자 가 발생했다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의료 현실 앞에 그나마 다 행이다 안도의 숨을 고릅니다. 시분초를 다투는 중증의료환자 발생 시 인근의 원주, 충주, 청주 아니면 서울까지 헬기를 띄우거나 구급차로 후송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 황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의료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는 현실이지만 누구도 입으로 꺼내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함께 연대하여 판을 짜기로 했습니다. 모여 무심코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좀 더 많은 분들과 열악한 우리의 의료 현실에 대해 토론회라도 개최해서 지역사회에 반향을 한번 일으켜 보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살림, 민노총, 공무원노조, YWCA, 참여연대... 어찌보면

이상한 조합이지만 모여 의견을 나눌 때 이견보다는 화합이, 다들 열악한 재정이지만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충북NGO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토론회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서로서로 역할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건 누가먼저랄 것도 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추진하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11월12일, 인구13만의 소도시에서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무원노조가 나서니 시에서도 협조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그래도 100여명이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시청 대회의실을 빌리고 영상촬영이나 송출 등은 공무원노조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공공의료의 수혜는 결국 온 시민의 몫이지 누구하나의 특혜로 돌아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공무원노조 위원장님과 지부장님의 말씀이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작은 시골도시 제천. 심정지, 뇌출혈, 뇌졸중 등 응급의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는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많은 제천에 당연히 공공의료는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시에서 열심히 인구를 늘리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에 필수 여건인 갈만한 병원도 변변찮은 상황, 게다가 인근의 단양은 산과가 있는 병원이 아예 없는 이 열악한 지역적 환경을 극복하고자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 한마음한뜻을 가지고 마련한 이 토론회가 지역 안에서 어떻게 확장성과 운동성, 실천성을 가지게 될 지, 대책위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어떤 역할을 책임지게 될 지 자못 궁금하며 기대를 해봅니다. 재정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에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과를 바라며 함께 묵묵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광주 #재난시대 #11.2

현 시대에서 활동가의 활동 방법

박형관 구구절절 대표



재난을 겪으며 돌변하는 시대에 활동가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보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모두 발 빠른 대응 중이나 정보나 데이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상호 도움을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코로나19에 대한 현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연함보다는 한발씩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 어려운 시기에 극복을 위하여 활동가들 간 왕성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는 항상 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길이 보인다.
-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냐는 물음에 결혼식 하던 날을 떠올렸는데 한없이 웃었던

기억에 이야기 나누며 잠시 또 기뻐했습니다.

- 어려운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하여 생소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실행하고 노력한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넘기고 환경을 대하는 자세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이야기 나누고 야외 모임이나 활동을 좀 하면 좋겠네요.
- 이런 네트워크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 이야기카드를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창원 #재난시대 #11.4

쓰레기 어쩔? 자원순환을 고민하는 모임

변우정 마창진 환경운동 연합



버려지는 자원들 중 재사용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자원순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 한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함께 하면 무엇이 두려울까?
- 혼자 하는 고민보다 함께 주제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됨을 보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나온다
- 솔선수범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자.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생산과정에서부터 조절 및 금지가 필요하다.

- 소비를 조금씩 줄이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나누는 게 좋다.
- 변화를 위해 캠페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모습이기도 했다.
- 다양한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고 평소에 잘 하지 못한(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소비를 줄이는 게 미덕이다.
-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실천을 확장시키는 이야기모임이 더 많이, 가정 속으로 들어가도 좋겠다.

후기 에세이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환경위원들이다. 다들 삶에 바빠도 기후위기에 어떻게 한 개인이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모인 사람들이다. 6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어떻게 일회용 쓰레기를 줄일 것인지 의논해 왔고, 오늘도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는 서로 바쁜 일정으로 짧은 시간의 만남이 오늘은 길게 인생 이야기까지 펼쳐졌다. 이야기카드는 정말 멋진 동기가 되어 주었다. 평소에 몰랐던 각자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마구 마구 쏟아져 나왔다. 60대 연령에도 불구하고 생기발랄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뜨게질을 이야기 하면서 뜨게질 가게 이름을 갖고 싶다고 바램을 말하니 다들 멋진 아이디어를 내어 즉석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꿈같은 일이 펼쳐지고, 평소 남 앞에 드러내지 않았던 인생의 한 부분을 살짝 넘보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다.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나는 '집단지식'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우산천을 활용하여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아이디어에 꼬리를 이어 우산천을 이어붙이면 멋진 깔개가 된다는 의견, 각 가정에 모셔둔 손수건들이 많을 테니 그것으로 야채담는 잡주머니를 만들어 보자 등 쓰레기로 버려지는 우산, 집 서랍장에 고이 모셔둔 손수건 등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서로의 생각들이 모여 멋진 기획들이 나왔다.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 '공유도서관'. 이야기카드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나온 구절 중 하나가 "지금 버려야 할 것들"에서 한 팀원이 책이라는 이야기에 이구동성 '그래 맞아 책이 가장 문제야' 다들 집안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버리지도 못하고 언젠가 읽기위해 모셔둔 책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하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공유도서관을 만들자' 팀원 중 한분이 현재 가게를 정리하는데 공간이 비어진다 고 하니 '그 공간을 우리의 공유도서관으로 만들자'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기획까지 나왔다.

개인 책장을 만들자. 개인 책장의 책들을 책 주인이 일람표를 작성하고 그 책에 대한 책소개를 자신의 언어로 적자.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책장에 있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공간은 항상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운영은 월 회비를 내자.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던 공유도서관 아이디어가 어느새 구체적인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지고 있었다. 어떻게 자원순환 이야기가 어느새 공유도서관까지 갔지?라면서 다들 한마디 거든다.

이야기 모임이 좋은 이유가 이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모여모여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번 모임으로 우리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언니라는 호칭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임은 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진 것 같다.

#서울 #재난시대 #11.2

코로나19 시대의 지속가능한 생태활동

변혜리 활동가



지구적 문제(환경오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생태도시 구상 등)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생태중시,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제시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도심형 생태교육, 먹거리정원(키친가든)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채소, 과일, 나무 등이 멋지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다보니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생활에 접목하는 기회가 많아질거란 희망에 기쁘다.
- 코로나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많이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진짜 그런가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든다. 걱정은 많은데 환경, 기후,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업, 농촌의 생태 환경과 삶의 방식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 오늘 모인 사람들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 같다.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지구와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해 공감한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소비 보다 생산적 활동이 더 주를 이루는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

- 각자 삶의 방식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틀린 것은 없다. 공통의 관심사를 출발로 서로 소통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일회성 모임, 소비적 모임으로 끝낼 자리가 아닌 계속해서 논의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생산물이 생기면서 생활의 편의가 증가하더라도 하나 뿐인 지구,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인간종 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 모든 생명들이 위협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노력들을 해가야 할 것 같다는 다짐이 듭니다. 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들이 계속되고, 이것이 사회의 문화로 점점 확산해나간다면 아름다운 지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태’와 ‘친환경’, ‘친자연’이라는 주제로 모인 사람들이다보니 다른 공통점이 없어도 이야기거리가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생태에 대한 시선이 보다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하고, 다양한 식물들의 보기 좋은 양육을 위해 농약 등의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피치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듣고 생각을 나누면서 알게된 정보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콩식물이 지력을 회복하는 데에 큰 작용을 할 수 있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도 다양한 작물을 섞어 심어 농작물이 서로 돕는 형태로 자연이 보호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각자 삶의 방식이 틀린 관계로 방식은 다양하지만 한 모임의 계기로 하나의 창구로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 없이 관심사가 같다는 것으로 대화가 이루어짐이 크게 와닿았다.
- 아집과 경청. 아집은 버리고 경청은 늘 실천해야 하는 중요 덕목임을 깨달았다.
- 오늘 나눈 사례, 농법들이 문제없이 실현시킬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일 듯하다. 모든 내용들이 인상 깊었다.
- 당연히 서울지역 주민들만 참여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충주, 대구에서까지 오신 참여자들은 열정과 관심이 높음을 느꼈습니다.
- 열심히 참여하여 무언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잘 배우고 많이 생각하는 기회 만들어주시길...
- 이로운 일들을 나서서 퍼뜨리고 도와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합니다.
- 일회성 모임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여자분들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한 소비적 모임이 될 테니까요.
- 앞으로 이 모임이 각자의 삶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조금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활동의 제한, 생활 방역 강화 등)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삶을 구상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는 그린뉴딜을 강조하며 정책들을 펼치고, 시민들은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일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대안적 삶의 실천, 기술공유,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감소, 로컬푸드 운동 등이다. 이리나 이리한 활동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인식의 변화, 공동체의 연대가 필요한 일이다. 이에 대해 더이음과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을 빌어 '이야기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초대했다.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이라는 의제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진행했지만, 아무래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아니기에 처음은 좀 서먹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도 조금 떨어져 앉다보니 대화를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 활동에 관련한 이야기, 인생과 관련한 이야기 등 경계를 허무는 대화들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빠르게 풀렸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대화는 모임구성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어 모임을 이끌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이대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정도였다.

분위기를 풀고, 다양한 속 이야기를 쏟아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모은 것은 아무래도 모임의 주제였던 '코로나19 이후의 지속가능한 생태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사회를 준비하고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상의 노력들, 각자의 아이디어를 나눴다.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도 더해가며 자리는 풍성해졌다. 다소 무겁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온 소통에 기반한 퍼머컬처(지속가능한 농업, 경제, 자연)와 로컬푸드, 먹거리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활발하게 오고갔다.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의 공통점은 지구와 공동체 커뮤니티에 대한 공감이다. 다른 일에 비해 우선한다는 점이였다.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소비 보다 좀 더 생산적인 활동들이 주를 이루기를 바랐다.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다양하지만 틀린 것은 없다. 공통의 관심사를 출발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미래로 그려졌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활동도 환경에 유의미 하지만, 우리의 식탁을 바꾸는 것은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일임을 새삼 깨닫는다. 농약, 비료, 퇴비, 경운 등

을 이용하지 않는 식용작물의 재배는 코로나 이후 주목받는 친환경 동향이라 할 수 있고, 관행농과 대치된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일이다. 또한 친환경재배 유지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어야 하는 일이다.

지구적 문제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오늘과 같은 논의자리와 더불어 실제 생태활동을 수행하고, 자연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연령, 직업, 성별과 관계없이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운동과 더불어 포장재가 없이 알맹이만 사고파는 생활재 소비,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적 활동과 약속들도 더 풍성해지고 생태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 퍼머컬처 활동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또한 모임에서 한 분이 말씀주셨듯이, 일회성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서 논의를 더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도 오늘과 같은 자리를 약속했다.

하나 뿐인 지구,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모든 생명들이 위험해진다. 지구환경을 위한 실천들이 계속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한다면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미래는 밝을 것 같다.

#서울 #재난시대 #11.5

재난시대의 식문화와 건강

브로트 채식문화 확산 및 정보 알리기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바뀌기 시작한 문화 중 식문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합니다. 현 상황의 식생활이 개인 건강이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안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전염병 재난시대의 식문화의 문제점과 해결 아이디어, 채식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영향력 있는 국가나 단체들이 장기적 시선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대처 방법을 고민해보고 개인들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적은 인원이었지만 더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고 어떻게 채식문화를 알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었다. 활

동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재난 상황인 만큼 감염을 조심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건강을 챙기고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는 국가적 규모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들이 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아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 전염병 상황에서 위생을 위해 일회용기 사용을 권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장에서 바로 출고된 용기가 더 비위생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회용 쓰레기가 늘어나면 결국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셈이고, 전염병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에 급급한 1차원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재난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대로는 안 된다! 작년까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게 개인의 의지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은 디폴트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시대가 역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만났고 힘을 합쳐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겼다.
- 생선회가 익혀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전염병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횡집 매출이 낮아졌다고 한다. 반면 육류는 보양식이라 생각해서 소비를 장려한다고 한다.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이 해마다 유행하는 시대에서 보기에는 모순적인 양상이라고 생각됐다.
- 동물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는 전염병이 많다.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사육환경과 무분별한 야생동물 식용이 원인이다. 전염병, 환경, 나아가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도 채식을 실천하는 것을 더는 미루기 어려운 시대이다. 지구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루 한 끼, 또는 일주일에 한 끼라도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모임원 중 한 명이 정부기관에서 실행 중인 캠페인 카드 뉴스를 보내왔다. '배달, 포장'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언택트 시대에 어울리는 지침이지만,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다. 더 지속가능한 용기를 개발, 배포하려는 노력도 같이 가야할 것이다.
- 시간을 내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나누어서 좋았다.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 바란다.
- 혼자만 생각하던 것들을 모임원들과 공유하면서 공감도 많이 얻었고, 같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해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 배달, 포장 쓰레기에 대해 주로 얘기하다가 시간이 마무리되었는데 채식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나누고 싶었다. 모임원이 다 비건 지향을 해서 공감도 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짧게 느껴져서 아쉬웠다.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

후기 에세이

활동가 이야기 모임을 위해 11월 초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친구 3명이 망원동에 모였다. 망원동은 골목 곳곳에 크고 작은 비건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비건 친화적인 지역이다. 모임 인원 중에 채식을 지향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망원동에서 만나는 것이 편하다. 구성원 모두가 퇴근 후 바로 모였기 때문에 먼저 식당으로 향했다. 채식 문화 확산으로 채식 메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채수를 따로 준비해 비건 옵션을 제공하는 한 중식당에 가서 배를 채운 뒤, 조용하고 이야기하기 편한 근처 비건 카페로 이동했다. 구성원끼리는 이미 친분이 있고, 모두 채식과 관련 있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전부가 비슷한 의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평소에도 채식,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평소처럼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나누는 것에서 끝이 아닌, 특에서 공지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된 이야기 모임은 열띤 논의장이 되었다. 단체 사진을 찍을 생각도 있을 만큼 서로의 이야기에 몰입한 나머지 카페에서 나가기 직전에 부랴부랴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 했을 정도였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으로 인류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전염병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동물이 병의 매개체가 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밀집된 채 사육되는 가축,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식용과 착취 등이 지적된 문제의 원인이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여겨지던 플라스틱은 이제 골칫거리가 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과 바다에 흘러 들어가 우리가 마시는 물속에 녹아있다. 인간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발전이 어느새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되돌아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모임의 주제는 ‘재난 시대의 식문화와 건강’으로 정해졌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알람 앱의 푸른색 알람이 뜨기만을 바라며 창문 열 날만을 기다렸던 어제의 기대는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으니 수시로 환기하라는 전염병 예방 수칙으로 바뀌었다. 밀폐된 실내에 여러 명이 모일 수 없어서 외식 음식은 일회용 용기에 포장되어 각자의 식탁으로 배달되고, 식자재는 처치 곤란 아이스팩과 새하얀 일회용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되어 집 앞으로 배송되었다. 행정 기관은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 해결을 위해 배달과 포장을 장려했다. 구성원 모두 최대 10년부터 최소 2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채식과 비거니즘을 실천 해왔다. 전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회용 용기에 동물을 재료로 한 음식 포장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렇게 쌓인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염병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어있었다.

실천하는 개인들의 영향력 덕분인지,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나아지고 있다.

우리처럼 전부터 채식과 환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전염병 유행 상황으로 인해 친환경과 채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많은 단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조명하고, 배달 음식과 포장 음식 이용이 늘면서 실제로 쌓여가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그 이전의 보이지 않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각자 실천하는 개개인들의 노력 덕분에 비거니즘과 제로웨이스트 생활 방식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비거니즘과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생활을 처음으로 실천했던 날을 되짚어보며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생활을 쉽게 해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했다. 작게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와 텀블러 사용하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채널을 팔로우하면 여러 소식을 접하기 좋고 행사에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모임의 브로트와 G가 운영하는 글리픽(gleepig.com, [instagram.com/gleepig](https://www.instagram.com/gleepig))에서는 순식물성 채식 레시피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고보가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살리다프로젝트([instagram.com/salida.project](https://www.instagram.com/salida.project))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에 관련된 여러 온·오프라인 행사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개인의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나 그게 기후 위기라면 이것은 더욱더 국가 정책적, 기업적 차원에서 바뀌어야 해결될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근처 동네를 구경할 겸 산책했다. 선선해 걷기 좋은 가을날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서글퍼진다. 전염병 유행 10달, 미세먼지 3년. 하루 이틀 쓰는 마스크가 아닌데도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싶지만 하루아침에 터진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파괴된 지구와 자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되돌릴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개인과 단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과 환경이 상호 영향에 있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 채식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일상의 실천으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부천 #재난시대 #11.4

코로나19, 청소년활동가들의 좌충우돌 도전 이야기

보시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활동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교와 공공기관이 멈춘 그 공간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공공시설 및 활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어떻게 청소년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모색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먼저 이야기 카드를 활용하여 분야별 1개씩 총 3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조사한 청소년 시설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을 보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지를 정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멈출 수는 없고 멈춰 있지만은 않았다. 청소년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일단 이야기카드를 활용해서 모임 참가자들의 사적인 이야기, 일에서의 비전,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동네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처음 겪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 시설 휴관과 모임 제약의 상황에서도 청소년 활동가로서 청소년과 만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서 상호 의미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해보자.
- 코로나19 상황 이후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꼈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존재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조금씩 발전했다. 오늘 모임을 하며 '우리 모두 같은 고민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시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의 시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코로나 시대. 결코 쉬지만은 않았다. 수많은 청소년 활동이 있었고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 중에서는 과연 이것이 맞았는가에 후회도 했던, 의구심을 가졌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우리는 쉬지만은 않았고 멈춰있지만은 않았다.
- 비대면, 거리두기 방식의 도전이 매우 다양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왜 이렇게 노력하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할까?
- 모임하기 전 사전숙제로 부친의 청소년 시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사하고 모였다. 생각보다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활동가의 의지에 따라 만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야기 카드를 활용하여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은 시간이 좋았다. 이 시간 속에서 다

-
- 른 활동가의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다.
- 청소년센터에서 했던 야간 페트롤. 거리에는 여전히 청소년은 있다. 올 수 없다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 만나서 마스크도, 약간의 간식도, 삶의 안부도 물어볼 수 있어 나도 한 번 해보고 싶었다.
 - 도입과정에서 이야기 카드를 활용하여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질문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서 당황하는 잠깐의 순간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본 주제를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청소년 활동가와 함께 청소년이 주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야기 카드의 질문은 가볍게 대하기엔 조금은 무거운 게 아닌가 싶군요. 다양한 대안 활동이 단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기 에세이

개인적인 관심사 두 가지, 청소년활동가 그리고 이야기

부천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청소년 활동가의 역량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가가 경쟁심이 많으면 활동프로그램도 토론 배틀이나 경연중심의 활동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청소년활동가들이 관료적인 조직이나 비민주적인 조직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 청소년 프로그램도 청소년 중심이 아닌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기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이나 연구원에서 끊임없이 제시되는 미래지향적인 운영방향도 현장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적용, 시도, 실천 없이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활동가가 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실천내용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활동가 스스로 움직이고, 동기부여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일 끼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고 변화를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가보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사례를 발견하고 머리를 치는 영감을 얻어오기도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몸에 익숙해짐을 느낍니다.

지역에서 청소년활동가 상호간 교류하고, 응원하고, 힘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의 미

래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다짐하는 이야기장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은 [2020 활동가 이야기주간]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더불어 이야기를 촉진할 수 있는 이야기 카드도 활용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엿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네요.

코로나19상황, 우리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2020년을 상상하고 준비해 온 많은 일들이 엄청난 암초를 만났습니다. 금방 끝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내년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도 멈추고, 공공기관도 멈추고 우리들의 일상이 딱 멈추어버린 그 시간들. 처음에는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했지만, 딱 1주, 2주였던 것 같아요. 멈춰버린 공간 속에서 주변의 청소년, 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존재 이유가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활동, 소그룹 방식의 활동 등 다양한 제안과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지만 3월부터 미친듯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좌충우돌 이것저것 시도하며 8개월을 보낸 시기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일도 별로 없는데 왜 바쁘게하는지, 크게 일이 많지도 않은데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니 좋지 아니한가 라고 합니다. 상급기관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막연함, 무력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지금, 여기, 청소년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청소년활동가, 좌충우돌 도전 이야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학교와 공공기관이 멈춘 그 공간에서, 청소년활동가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무엇을 해왔는지 돌아보고 공유함. 이를 통해 청소년 공공시설 및 활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어떻게 청소년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모색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모임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모임의 목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부천의 청소년 활동기관,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아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고 많은 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새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같은 활동을 하는 활동가 서로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다들 조금씩이나마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모임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두세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취합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류해서 간단하게 파일로 만들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가 혹은 동료가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고, 내년 그 이후를 상상하고 모색하고 도전해보는 단초가 이 이야기모임을 통해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이야기모임이 생겨나

서 서로의 마음을 돌보거나, 지역에서 더 많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시도와 기획이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각 지역에서의 작은 움직임을 큰 모자이크로 만들기 위하여 [2020 활동가 이야기주간]을 기획하고 운영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 #재난시대 #1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영리-소수자 연대 문화 행사의 가능성 모색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매해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복합/공개/문화행사입니다. 2020년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참여자들과 만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서울의 6개 지역에서 동시에 비대면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성소수자 문화의 역사를 짚어 보았습니다. 또, OTT 플랫폼을 통해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온라인 행사를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영리-

소수자 연대 문화 행사로서의 비대면-온라인 행사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행사를 통해 "연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행사만이 줄 수 있는 감동/정서/공감을 발견하고 온라인 행사의 한계를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번 모임-회의를 통해 올해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정리하고, 내년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행사의 기반을 닦아나가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의 실현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공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영리-소수자 연대 문화 행사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려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의 경험을 나누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올해 행사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 벤치마킹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행사를 위한 연말연시 일정을 정하고 온라인 환경에 맞춘 조직구성 및 조직문화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 기존 오프라인 행사가 수행했던 역할들을 온라인 행사로의 변화를 통해 구현하려면 단순히 행사의 방식만을 바꿀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 및 조직문화까지 총체적으로 바뀌 나가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면서도 서로 모여 일상을 나누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영리-소수자 연대 활동/행사가 위축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더 큰 가능성을 펼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의 변화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내년도도 올해를 바탕으로 기획을 잘 잡아야 한다.
-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기획을 병행하고, 단순한 "동영상 보여주기"에서 나아가 다양하고 치밀한 온라인 기획이 필요하다.
- 올해 온라인 기반으로 행사를 진행했고 이것이 거둔 성과가 상당하다. 내년에는 온라인 준비를 미리 시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제약은 늘어났지만, 대신 새로운 행사를 새로운 조직 형태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나 경험이 되었습

니다.

- 조직의 업무분배, 새로운 업무의 과업수행, 역할이 중요하다.
- 연대, 참여의 니즈는 계속 이어진다. 해외 프라이드에 가족친화적 행사가 있었다. 뉴욕 프라이드에 마돈나가 왔다.
- 비대면이 '연대'에 일의 저해요소가 아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 아직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유튜브를 콘텐츠도 만든다.
- 행사의 형태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세대교체 주기와 맞물려 장기적인 로드맵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행사의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장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응원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 이야기 공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나아지길 바란다.
- 동성혼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래야 재정적 안정이 된다.
- 사전에 각자 자료리서치를 했으면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어려운 환경에서도 활동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카드 너무 재밌게 잘 사용했어요.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답니다.

후기 에세이

2020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부터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실해질수록, 내년 서울퀴어문화축제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행사를 잘 정리하면서 동시에 내년 행사를 구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비교하는 자리를 기획했는데, 시기가 잘 맞아 올해 행사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 벤치마킹 자료 발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더 풍성해진 이야기깃거리들을 잘 엮기 위해, 과거-현재-미래라는 타임라인 콘셉트로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과거”의 주제로는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행사의 기획 및 진행의 경험을 나누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온라인 부스(서울퀴어퍼레이드), 온라인 상영(한국퀴어영화제) 및 홍보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등의 프로그램들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혹은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기존 오프라인 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분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편안한 환경에서 차분히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생중계, 스트리밍)에는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했던 것이지요. 행사를 한달여 남짓 앞두고 생중계만을 위한 별도의 TF기구인 “송출본부”를 설치하여 각 내부기구에 흩어져 있던 관련한 기획단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급하게 설치한 TF기구였기에 체계를 잡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기에,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수행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모금 플랫폼 개발은 향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즐거운 참여 경험 선사와 후원 유도의 연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선순환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제로는 올해 행사에 대한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 벤치마킹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프라이드(Pride, 성소수자 자긍심을 위한 행사, 한국에서는 퀴어문화축제라고 많이 번역함)들이 어떤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고 이를 위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떤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개최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구성이 모두 달랐습니다. 모든 행사와 조직들이 주어진 환경과 그때그때의 이슈와 맞물려 변모하는 과정도 훑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주제로는 내년 행사를 위한 연말연시 일정을 정하고, 온라인 환경에 맞춘 조직구성 및 조직문화 개편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앞의 주제들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송출본부 설치를 넘어서는 조직 구성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형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행사는 단순히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에 가져다놓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일임을 올해 행사를 통해,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거듭 깨달았습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맞춰진 조직 구성과, 그에 따라 형성된 조직 문화 또한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의사결정 절차, 활동 환경을 다시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던 자리였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울려 즐기는 장을 만든다”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비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잘 실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소수자들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장 먼저 염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실현과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내년 행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부천 #재난시대 #11.5

그린뉴딜과 탈성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모임

은빛연어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코로나이후 그린뉴딜과 탈성장 시대에 대해 이야기와 실생활의 실천방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어내는 정책이다. 그 속에서 실생활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성장만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정책에서 잠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달팽이의 느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인간존중과 환경 중심을 생각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고려해야 한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탈성장의 윤리적 환경적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탈성장사회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지 좀 더 생각하게 됐다.
- 나만의 발전을 위해 앞만 바라보던 시기를 뒤우쳐본다. 주변과 환경, 이웃, 모두를 둘러보며 함께해야 하는 세상을 새삼 느낀다.

-
- 탈성장을 해야할 시기가 있다. 미룰 수 없다.
 - 성장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주위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무게만큼의 경제성장 속에서 더 키우지 않고 공생의 윤리 속에서 사회의 행복을 가꾸면 좋겠다.
 - 탈성장을 달팽이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 것이 인상깊었다.
 - 달팽이는 느림으로 인식하지만 그 달팽이의 움직임은 그만의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의 노력의 결실이 보여진다.
 - 인간존중과 환경중심이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런 모임이 증가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받고 나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좋았다.

#천안 #재난시대 #11.4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장에서 천안NGO센터



기후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직면한 문제들과 그에 따른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이야기 후, 관련된 도서를 함께 선정하여 읽고 나누는 정기모임도 계획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환경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지만 또 아무에게도 없다. 기후우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을 지키자.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시대인 지금, 각자 생각만 하고 있었던 마음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임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임을 시작으로 환경에 대한 독서를 하며 환경을 지키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시달리고 있는 지구.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현재를 알아가는 것을 같이 알아가고 시작해보자.
- 환경영화제 다큐 북극곰의 현실을 생각하며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구의 오존층 파괴도 프레온가스를 안뜨쓰면서 회복했듯이 기후위기의 재난시대를 어떻게 실천해가며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

이었다.

- 수업하는 공간에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의 실천방안을 연구해봐야겠다.
- 지구의 환경을 외면하지 말자. 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아무도 환경에 관심이 없다.
- 지금은 환경을 예방하는 차원의 움직임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보호를 해야 한다.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기후환경에 관한 의식이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 #재난시대 #11.2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은?

지혜연 지역기반의 주민참여지원활동



재난시대에서의 비대면 교육의 한계 속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합니다. 5명의 참가자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과 관련된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요즘 지역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지 근황을 나누었다. 이야기카드를 이용해 얘기하다보니 서로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의 학교 교육의 문제와 그에 따른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 학교가 없어도 세상은 굴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학교에 집중하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정과 지역사회, 이웃의 범위로 나눠져야 한다. 즉, 답은 로컬택트에 있다.
- 코로나 이후 가장 힘들었을 주체인 엄마가 똑바로 서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설 수 있

다는 것에 공감하는 내가 아는 한 도봉에서 훌륭한 이야기 멤버들이 자랑스럽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지역사회와 이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 학교는 더이상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없다. 가정의 환경을 챙기는 마을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을에서 만나는 가정이 오히려 재난시대에 위기 극복에 힘이 될 것이다.
- 마을교육의 가치를 아는 활동가가 있는가? 프로그램이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가치를 안다면 형식에 변화는 가능할 것이다.
- 점, 선, 면으로 가려고 의도를 갖지 말고 점을 진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 점조직을 만들자. 마을마다 골목마다 배움터가 생기고, 그 배움터에서 소규모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금이라도 연결해야 한다.
- 활동가들의 이야기모임을 꾸준히 지원해주세요. 예산으로, 사업으로 모여야만 수다를 떨 수 있는 만큼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지고 모아져서 좋은 자료들이 널리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후기 에세이

각자 너무 바쁘게 자기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들을 한날한시에 약속 장소로 모시는 일부터 미션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 모임 장소는 마을이 키운 청년이 창업을 한 동네 밥집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답니다. 덕천랜드의 덕천 사장께 식사를 간단히 하고 이야기모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독립공간을 내어 주어 편안한 식사와 이야기를 펼칠 수 있었어요. 다음 미션은 동네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말의 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이야기의 시간 안배였지요. 주최측에서 보내주신 카드를 활용하다보니 효과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어요. 또한,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와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재난시대에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엄마들도 힘들어지고 그게 결국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져 엄마, 아이들, 학교 모두가 병들어 가는 것 같다는 말은 가히 충격이었고 공감이 확 올라왔어요.

코로나로 인해 친밀하게 연대하는 이웃 외에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소위 혁신교육의 영역인 마을학교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며 우리의 활동은 허상이었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정과의 협업에 익숙해져버려 민의 영역에선 자유로운 대응이 어렵구나를 느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절절히 공감하기도 했

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돌아본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은 학습이 아닌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어야 하며 무엇을 지킬 건인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재난시대에 학교와 교사가 없어도 세상이 굴러간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향후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챙기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가 해야 할 일임을 동의했고 학교에 집중된 교육 관련 예산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제대로 심어질 수 있게 이제는 가정, 지역사회, 이웃의 범위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와 워밍업 이야기 시간을 적게 안배해 멤버들이 매우 아쉬워해서 1월 즈음 다시 1박으로 이야기 여행을 기약하며 모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해 #재난시대 #11.4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대한 공유와 대응

홍형숙 돌봄교육



코로나 19의 전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 그 위기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 높으며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상 차원에서 강화해야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아동돌봄의 최전방에 있는 보육교사, 학부모, 활동가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마음방역의 시간을 갖고 아동돌봄이 가정의 몫만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고민의 시간이 되었다.

- 어렵고 힘든 시간일수록 혼자가 아닌 함께,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므로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에 한발 더 다가가고 그 사람을 알고 나눌 수 있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에 즐겁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삶의 활기를 느끼며 생활한다.
-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직장맘과 주부들이 코로나시대 원이나 학교 등원이 어려워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역시 현장교사 만큼 어려웠던 사실에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으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지원책이 중요한 것 같다.
-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 가지 주제로도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듣고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아이들도 계속 집안에만 있어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엄마들 모임이 있어 너무 좋았고 좋은 시간이 되어 너무 좋았다.
-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 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고,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막상해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며 인상깊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서로 이렇게 진지한 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론했던 시간은 참 좋은 것 같다.
- 생각하는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여 좋았으며 독특한 생각의 발상들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들으며 많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모두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의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 코로나 19에 나뿐 아니라 직장인들 역시 선생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다.
-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나의 꿈과 올해 세웠던 목표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었다.
- 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다면? 세상에 엄마가 없다는 것, 제가 힘이 들때에 제 옆에 가장 힘이 되어줄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 슬퍼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 나의 꿈에 대해 물어볼 때, 하루하루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들어보고 진정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돈을 생각하지 않는 직업선택! 자신이 하고 싶었던 예전의 직업에 대해 말해보았고 자동차 정비사나 용접공이 되고 싶었던 평소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음 좋겠습니다.
- 모임을 해도 코로나19때문에 사람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회의도 하고 코로나19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 우리 모두 건강하고 원하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꿈을 가지자. 돌봄공백이 없도록 현장에서 노력한 만큼 다양한 자원과 감성노동에 대한 치유의 시간으로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다.
-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일이 없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마음껏 말할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 시대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을 수 있어 치유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후기 에세이

코로나 19의 전파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 돌봄 공백도 문제가 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교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인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나마 소득계층이 높은 중산층은 돌봄휴가나 재택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자원을 이용해 돌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사회복지, 아동보호등을 수행하는 최전방 필수 인력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돌봄의 최전방에 있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사회활동가들과 함께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지금 현 돌봄의 현황은 각 가정이 그 역할을 다하여 코로나의 현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부모의 자리부재는 지역센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지만 열리지 못하는 센터와 기다려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돌봄의 여백의 어려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가정에서 엄마로써의 역할을 조부모나 남편이 함께 돌봄의 여백을 채워줘야 하며 교사자신은 담당하는 아이들과 함께 돌봄의 최전방을 지켜야하는 이중의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학부모는 온라인학습에 의한 기본생활의 무너짐과 온종일 엄마 혼자서 돌봄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코로나와 안전에 대한 열망은 더욱 돌봄의 최전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겨운 책임을 더해 갑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돌봄정책만으로 아동돌봄을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국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개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나라가 고민해야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음방역의 시간을 갖으며 돌봄이 각 가정만의 몫이 아니며 마을과 이웃이 나라가 함께 한다는 그 출발의 인식과 실천이 지금 필요합니다.

#부천 #재난시대 #11.5

재난시대 교육과 돌봄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다토 통합예술나눔터/지역 예술활동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은 청소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다.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마을에서의 돌봄과 배움의 대안을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학교 중심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돌봄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재난시대 현재의 학교 중심 교육, 돌봄시스템은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계로 촘촘하게 다시 짜여져야 한다.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만나는 활동가들과 재난시대의 경험을 나누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힘이 나고 함께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재난시대 공공학교는 더욱 문을 열어야 하며 마을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의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나야 한다.
- 재난시대에 학교만큼은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므로. 비난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의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돌봄의 공백을 채워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재앙. 학교에 속해있는 아동들에게 교육격차,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 안전망이라 여기던 체계가 다 뚫렸다. 앞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재난의 시대 돌봄교육의 안전망을 짜는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겠다.
- 처음 겪는 재난시대, 교육의 공백을 채울 마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적 활동(민원제기 등)을 한다.
- 학교 돌보교사만이 학교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모든 교수는 아닐 수 있지만 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근로자는 이 재난시대에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결국 돌봄교사들은 파업을 선택하게 된다. 돌봄을 대체할 마을에서의 인력은 없는 것인가?
- 교육, 돌봄, 문화 생태계를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대안학교, 작은학교, 홈스쿨러를 위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곳에서 선정 지원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홈스쿨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학교(제도권)이 아닌 지역사회 교육, 돌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재난시대 교육, 돌봄의 촘촘한 망을 짜야한다.
- 지역의 생태계를 다시 촘촘히 짜야 한다.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교과서로 지역교육청을 제공하지 않는다. 돌봄교실 안보내면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돌봐야 하는가?
- 재난 시대 공공은 절대 문을 닫으면 안된다. 지역활동가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천방안을 고민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가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어 좋았다. 이러한 활동가이야기 활동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뜻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 공공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여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참가합니다.

후기 에세이

코로나19로 재난시대가 열리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학교가 문을 닫으며 교육과 돌봄의 공백이 고스란히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활동가 이야기주간 소개를 받고 핸드폰으로 바로 가입하고 신청을 하였다.

무작정 답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활동가분들과 모임을 정하고 나니. 이야기나눌고 따뜻한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다.

이야기모임이 시작하자마자.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활동가들에게 들은 학교현장을 이야기는 기가 막혔다.

- 긴급돌봄시 교사는 자리에 없고 돌봄교사에게 전가되고 돌봄교사들의 파업으로 이어졌다.
- 마을 공동체를 외치는 그곳엔 청소년들의 자리가 부족했다.
- 온라인 교육의 그늘 이야기, 집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온전히 아이 혼자서 떠안아야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모든 책임이 학부모에게 과중되어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봐야하며 신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진 상황이다.
- 교육의 역할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으면서 민간기관을 이용하던 아이들을 갈 곳이 있었지만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을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교육과 돌봄의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
- 학교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은 기존의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 학교중심 시스템이 아닌 지역에서의 다양한 돌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 지역의 소모임들이 학정으로 인정되어 학교 외에 나누어서 보낼 곳이 있어야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마을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중심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돌봄교육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르기 위해서 공간적인 예산적인 지원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공공영역은 재난시대에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성과를 내는 것은 기업을 따라가면서 재난시대에는 문을 닫는 방식은 시민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였다.

지역 활동가들도 재난시대가 되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어려워지면서 위축되는 시기에 이렇게 만나서 고민을 나눌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전국에서 많은 활동가들의 고민을 모두 함께 하진 못하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주간이었다. 부천 내에서도 다른 활동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 중에 만나면서 더욱 의견을 모으는 좋은기회가 되었다.

고민에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활동가로서 너무 알고 있

지만. 이렇게 생각들이 모이고, 마음이 모이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활동하면서 경험했기에 이번 이야기 모임에서의 결론을 내년에 목표로 삼아서 지역 활동가들과 작은학교를 꾸려나가기로 하였다.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이야기 주간을 통해서 많은 활동가들의 고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반가웠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은 이야기 주제들도 많았다.



자유주제

#광주 #자유주제 #11.2

자급의 삶은 가능할까?

신수오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농을 통해 도시에서 또는 귀농(귀촌)을 통해 자급의 삶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를 주제로 30대, 40대, 50대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마리아미스]의 책을 읽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세대별 자급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듣고, 2021년 자급 생활을 위해 함께 도모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협동하여 선을 이룬다. 자급이 삶! 생명가치와 자급하는 삶, 이제 삶의 전환으로!
- 도시농부란 내용으로 자주 만나는 벼들과의 모임이었지만 일이 아닌 걱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참 좋았고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혼자서는 자급의 삶이 가능하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내가 구매하는 것부터 고민하면 자급의 길로 갈 수 있을 듯 하다.
- 자급은 생산, 소비, 유통의 전 과정에서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정리해내는 것. 시

장에 생산자로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

- 각자의 삶,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를 알 수 있었다. 현재 시장은 자본이 조정하는 이익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과거 시장은 물품을 구하는 공간, 관계를 만들어내는 공간, 정치적 행위로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과거 시장개념으로 복귀를 해보자.
-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자유롭게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편하게 이야기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야기 카드를 활용해서 좋았다. 더 자주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 요즘은 근본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후기 에세이

평소 '농'을 매개로 자주 만나며 광주의 여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활동가 이야기모임을 통해 각자가 가진 고민과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다. 각자 업무가 끝나고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교육장에서 만났다.

각자의 삶의 터전이 다르고 활동 내용이 달라서 주로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 중심으로 만나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나누지 오래 되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이 되었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가 그 고민을 날려 주었다. 각자가 세장씩의 이야기 카드를 뽑아 개인적인 질문, 한번 쬐은 생각해 볼만한 질문, 활동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자기 생각과 속마음을 꺼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보람 있다 생각하는 일'은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좋고 그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을 할 때라는 이, '돈을 고려하지 않고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논 한 가운데 있는 책방, 농부이면서 책방을 하는 책방 농부의 꿈을 꺼내 놓는 이, 지금 직업을 설명한다면이란 질문에 삶의 뿌리를 찾아 농부가 되려는 사람들의 벚으로 비빌언덕으로 농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가 있었다.

누구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이란 질문에서 유명한 누군가 아닌 길거리 노숙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 '일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이란 질문에 조직 문화에서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 조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선배 세대와 개인이 모여 조직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는 이, '지금 일을 은퇴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서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스에서 식량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까지 있었다.

'살아오면서 사랑해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인가요'란 질문에서 끝까지 엄마 한 명을 이야기하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며 무거운 사랑론을 펼친 이까지 다

양한 생각들을 <서로가 알아가는 이야기카드>의 질문에 따라 꺼내 놓을 수 있었다. 사적인 이야기와 조직문화, 우리가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본 주제인 ‘자급의 삶을 가능한가?’를 위하여 이야기를 마쳤다.

우리 모임은 평소 책을 읽으며 농을 주제로 공부를 하는 벗들의 자리여서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라는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나눈 주제는 ‘자급 관점과 시장’이란 주제인데 발제를 듣고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야기는 현재 우리들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토종씨앗을 잇는 도시농부장터 보자기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구매 행위는 정치적인 것이다. 시장은 정치적인 곳이었다. 본래 시장은 필요한 것을 얻어가고 남이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었는데 자본이 시장을 이익만 존재하는 곳으로 바꾸었다. 화폐 개념만 남고 자급의 관점은 사라졌다. ‘보자기장’도 장수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물교환의 자세로, 관계의 소통의 장으로 방향성과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흥 마실장도 기존의 시장의 불만 속에서 탄생했고 참여를 하고 있다. 기존 시장의 틀은 소농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었다. 자급은 삶으로 연결되는데 삶속에서 진행되는 장은 오래 지속된다. 농부는 농작물을 생산하고 도시민은 농을 생산하기에 교환되는 공간이다.”

“화폐가 아닌 현물로만 교환되는 시장은 존재할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더라도 진행된다. 장 시작 전에 보자기장수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자. 서로 듣고 알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3년 째 10번의 장이 열린다. 피로감이 있다. 나는 농부라는 존재가 되어 참여하고 싶는데 전체 기획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장에 참여하고 청년(청소년) 중심의 기획팀을 구성하여 장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좋겠다.”

도시에서 살면서 각자의 삶터에서 활동하면서 농을 매개로 자급의 삶과 삶의 전환을 꿈꾸는 우리들은 두 달에 한번 ‘토종씨앗을 잇는 도시농부장터 보자기장’을 열고 있다. 오래간만에 당장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닌 각자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고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우리들의 만들어 오고 있는 ‘보자기장’에 대한 의미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길고 긴 수다같은 이야기, 결론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야기는 뒷풀이 술자리로 이어졌고, 늦은 밤 맛있는 식사와 술을 나누며 가을밤 노란 은행잎처럼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활동가 이야기모임에 함께한 벗들과 주최측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청주 #자유주제 #11.5

청주고을 와와 '우리동네 이야기'

감연희 우리지역알아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컨셉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 만들어서 인간들이 펼치는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이 도시다. 인간이 만드는 가장 복합체인 도시를 헤아리다 보면 인간과 인간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통찰력, 느끼고 즐기는 역량,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까지 우리 자신이 겪는 다채로운 성장방식을 깨닫게 된다. 각자 살고 있는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적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헤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이야기 카드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질문, 활동과 관련된 질문,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질문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 획일화 되어가는 도시를 탈피하자.
- 감동적이었다.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꺼내놓게 될지 몰랐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이야기 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편한 분위기로 대화하여 각자 다양한 생각과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성공한 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전에 그 도시만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스토리를 입히자.
- 윤리단길이 잘되기 위한 답변을 들어 좋았다. 관주도가 아닌 자연스럽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많은 스토리를 심으려 하지 말기를.
- 일로 만난 회의, 공식적인 자리 외에 이런 자리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주세요.
- 다양한 사람들 더 자주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후기 에세이

이런 방식의 만남은 처음이다.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마스크와 이야기모임 현장 기록지, 이야기카드가 담긴 택배가 왔다. 이야기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할까 생각하다가 모임 전에 친구와 만나는 자리에 들고 나가서 타로를 하듯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친구들에게 한 장씩 선택하게 한 다음 뒤에 적힌 질문에 따라 얘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이 신선하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드디어 모임 날. 뜻밖의 손님이 방문했다. 소설가 우영창 선생님. 마침 청주를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셔서 오늘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함께해도 된다고 했더니 흔쾌히 찾아주신 것이다.

시간에 맞춰 하나둘씩 초대한 사람들이 도착했다. 모임장소에 정성껏 차려진 식사테이블을 보고 감탄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카드 중에서 우선 개인적인 질문을 담은 카드를 하나씩 선택하게 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로 이어지도록 했다. 카드가 돌아가면서 낯선 느낌에 어색해 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왔다. 두 번째 카드가 돌아갔을 때 한 사람이 내밀한 자기고백을 풀어 놓았다. 속살이 보이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함께 눈물을 적시기도 하고, 커다란 박수로 응원하기도 했다. 덕분에 우리는 진지해졌고 더욱 솔직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가 만난 장소는 고인쇄박물관을 끼고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 윤리단길에 자리한 한 카페다. 옛날 물건들이 웅성거리듯이 장식된 이 카페는 주인장의 지나간 것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만들어지게 된 곳이다. 내가 초대한 분들은 여행 작가, 부동산 컨설팅, 윤리단길 담당 공무원, 문화애호가로 나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함께는 처음 만나는 자리다.

모임이 진행되면서 누군가는 생활 속에서 방치되었던 자기의 꿈을 새롭게 건져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먼 이국의 도시로 데려가기도 했다. 자칫 어색해질 수 있

있던 만남이 느닷없는 소설가의 등장으로 풀어지고 한 참가자의 솔직한 자기고백이 계기가 되어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모임의 마지막에 손님으로 등장하신 소설가 선생님의 깜짝 선물. 세상에나 마스크를 한 박스나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어느 자리건 선물은 늘 옳다. 우리는 환호성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 우리 동네 청주이야기는 이렇게 자기가 뽑은 카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컨셉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 만들어서 인간들이 펼치는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이 도시다. 인간이 만드는 가장 복합체인 도시를 헤아리다보면 인간과 인간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통찰력, 느끼고 즐기는 역량,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까지 우리자신이 겪는 다채로운 성장방식을 깨닫게 된다. 각자 살고 있는 동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도시적 삶이 자신의 삶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헤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만남이다. 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빚어놓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말랑말랑해져서 율타리사이로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상상해본다.

#김해 #자유주제 #11.6

활동가의 비움과 채움

바람이분다 시민단체활동가



활동가의 역량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중요하긴 하나 너무 이성적인 단어들이 나열된다. 결국 같은 말일지라도 마음과 감성을 통해 걸러진 좀 더 따뜻한 소통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정한 제목이다. 초대에 응할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본래 선정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단계로 시작한 이야기카드 나눔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다. 즉 '나의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어느 날은?'이라는 개인적인 질문 하나가 풀어낸 한 활동가의 진솔하고 아픈 고백이, 현재 여성 활동가로서 살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동지애로까지 닿게 만든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활동가의 정체성이 결국 개인적 문제로부터 출발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활동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깊이 공감대를 형성하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 코로나로 인해 후반기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서 함께 모임자는 초대 의 말조차 미안했다. 그럼에도 굳이 모임을 주최한 마음과는 별개로 각자 바쁜 중에도 아마 큰 기대 없이 의리로 참여했을 그들의 마음이 참 고맙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로 '마음의 통로'를 뚫던 시간이 더욱 뜻 깊다. 진지하고 따뜻한 소통을 통해 목적인 바 그 이상에 도달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활동가들의 힐링수다방이었다. 한분이 성장과정에서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겪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해주신 게 가장 인상 깊었다. 활동가들은 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서 좋았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자주 만남을 갖고 싶다.
- 서로 일로만 만났던 활동가들의 내면의 고민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하기 쉽지 않은데도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고, 그런 개인사가 나의 개인사와 겹치는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지지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처음 모임을 할 때 큰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을 계기로 활동가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통제와 억압이 저항으로 표출되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멋집니다.
- 활동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성찰하기 위한 감성적 버전으로 제안된 '활동가의 비움과 채움'이라는 주제는 우선 활동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연대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논의임을 깨달았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강한 원동력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친 개인적 문제의식이었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다.
- 서로 다른 단체에서 일하며 연대활동에서만 회의나 행사를 통해 함께 모이던 지역 활동가들. 그 피상적 관계 너머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이야기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서 '활동가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가 진지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다.

#김해 #자유주제 #11.6

사진기록의 방식과 중요성

- 사진가와 지역을 기록하는 지역활동가

고지현 시민활동가



필름사진을 찍던 취미사진가와 디지털사진을 찍고 있는 직업사진가, 그리고 지역을 기록해야 하는 지역문화 시민활동가가 모여서 '사진기록의 방식과 중요성'에 대해 가진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기록물로의 정보전달 방법이 발달되어온 과정은 구전 - 사진 - 영상이며 과거의 사진이 기록물로서 그 장면을 정확히 담아내었다면, 디지털사진이 발달하면서 조작과 변형이 손쉬워졌다. 기록이 권력자나 전문기록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과거가 재해석되면서 일반 소시민들의 기록까지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사진은 목적성이 중요하다.

- 기록물로서의 사진은 기록물 자체로도 가치를 지니지만 올림을 주어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게 꿈을 꾸는 세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기록에 있어 다양한 기록물들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진기록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진 기록의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후기 에세이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것을 보며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진이다. 이 사진으로 많은 이들이 판단을 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예전의 시각적 정보전달인 그림은 이미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과 시각이 들어가 객체로 보기 어렵다. 기록물로서의 정보 전달 방법은 구전 > 사진 > 영상으로 발달했으며, 과거의 사진은 기록으로서의 역할로 그 장면을 정확히 담아내었다면 디지털로 발전하며 조작과 변형이 가능해졌다.

예전의 기록이 권력자나 전문기록가의 의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과거가 재해석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기록까지 중요시되어지고 있다. 또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찍었는지에 대한 해석과 주석이 같이 있다면 그 사진을 해석함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진은 목적성이 중요하다. 기록에 관한 촬영 시,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만 사실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예술적인 사진은 작가의 시각에 따라 사진의 수정과 보완은 필수적일 수 있다. 지역 홍보 목적의 관광사진의 경우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은 정도의 정리정돈을 통해 사진 속의 장소가 불편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기 위해 사진 수정을 하며 그림이 가미되도록 작업을 한다.

사진이란 감동을 주기도하고 올림을 주어 세상을 바꾸는 역할도 가능하게끔 한다. 기록물로서의 사진과 예술적 그림으로서의 사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으로 보여 지는 기록들을 최대한 객관적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하여 만들어진 사진기록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기록물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지며, 정보 전달로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이쁘게 찍히는 것들의 의미는 있으며 세월이 지나 봤을 때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사진은 누군가에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기도 하다. 글로서, 음악으로서, 활동으로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가들의 수단중 하나로 사진을 활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문학과 사진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든 기록물로서 활용하든 어느 누군가가 옳다고 할 수는 없

고 수단의 목적과 방법이 다를 뿐이다. 가치를 똑바로 세워서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가로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사회의 변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기 위해 공익활동가로서의 나는 누구인지의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같은 활동가 길을 가는 친구를 찾아보며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부산 #자유주제 #11.2

운동모임을 핑계삼아 뜬금없이 만들어진
활동가들의 느슨한 모임 '땀차'
우리는 왜 모이고 있는가?

굿데이 영도문화도시센터 크루



2020년 2월, 운동모임을 핑계 삼아 뜬금없이 활동가들의 느슨한 모임 '땀차'(땀이 차오른다, 가자)가 만들어졌다. 활동가들의 건강을 위한 땀 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벼운 등산(2/15), 롤러장 뽕뽕이(5/5), 어설픈 라이딩~광안리에서 자전거 타기(6/28), 라틴댄스 살사&바차타 배워보기(7/31)을 진행했고 10월에는 소소한 가을운동회가 예정되어 있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 왜 활동가들끼리 느슨한 연대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땀차에 관심있는 활동가는 언제든지 대환영이기에 활동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청년 활동가들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 공간, 관계가 없다. 지쳐있는 청년 활동가를 위한 소통의 관계가 절실함을 느낀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가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다보니 기획을 하는데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운동 후 뒷풀이하는 과정이 재밌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땀차의 느슨한 연대 특성을 살려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활동하고 또 모여서 함께하자.
- 활동가의 애환, 고민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 평소 활동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것, 응어리진 것을 모임을 통해 풀어놓고 속이야기를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
- 활동가의 활동 지속을 위해 우리 느슨하게 또 끈끈하게 함께 합시다.
-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어져서 좋다
- 서로가 좋아하는 것과 하고 있는 것 나누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에세이

찬바람이 부는 저녁, 부산 중앙동에 위치한 '노티스 1950'에 부산 활동가들이 모였다. 각자 활동하는 분야와 생각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땀차' 모임의 이야기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땀차는 '땀이 차오른다, 가자'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땀찬 사람들, 땀이 차길 바라는 사람들 등등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이야기카드로 서로의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돌아가면서 카드를 뽑으며 자신의 활동 영역을 말하고 활동가로 살아갈 때에 힘든 점, 필요한 점 등을 나누었다. 사람들과 연대 맺는 걸 좋아하지만 연대 맺기 힘든 사람도 있는 법!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를 찾는 것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자신의 활동을 꾸려가는 땀차 멤버들과 함께여서 고민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주간이었다.

부산 활동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활동가를 그만두는 것을 많이 목격한 분이 있었다. 활동가가 지역에 자리 잡고 연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있는 조직문화에서 힘든 점,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의 고충, 예민한 시선을 유지하는 일 등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 공간과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이야기주간에 모였음을 얘기 나누며 알 수 있었다.

이번 활동가이야기주간에 참여하며 여러 고민과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 질문들은 내가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고민해야하는 지점이라는 생각 또한 떠올랐다.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바란다.

#창원 #자유주제 #11.3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활동가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김은희 사회혁신가대학2기, 사회활동가가 되기위한 준비활동



지역사회 문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활동가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도 미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이 하는 활동가와 주민이 있으면 미미한 끝도 의미 있는 과정을 만들어줄 것이다
- 지역사회 혁신가, 활동가 이런 거창한 이름이 너무 부담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마을, 나, 우리를 위한 작은 활동으로 시작할 수 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사회생활을 하며 개인역량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여 책을 통해 학습을 하고

책 속에서 삶의 방향, 시대의 흐름을 발견하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책 속에 삶이 있다'

- 활동가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심화 학습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 기본적 가치공유가 이미 된 분들께서 오셔서 공유하고 공감의 질이 높았습니다.
- 각자가 활동가로서 어떤 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필요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합되어 같이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며 창의적 활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삶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 새내기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활동에 대한 포부를 키우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선배 활동가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삶은 오늘이 중요하다.
- 혼자 생각보다 다수의 생각으로 토론을 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다음 모임을 기대해봅니다.
- 자치 역량을 강화하자. 스스로 일어서며 스스로 해결력을 기르자.

후기 에세이

저희이야기모임에 참여자는 경상남도 제2기 사회혁신 활동가 대학을 수료한 분들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로 총 82시간의 수업을 수료한 분들입니다. “우리 경남 구석구석에서 혁신의 꽃을 새롭게 피워가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다양한 혁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 사회혁신가 1기 수료생들과 멋진 혁신 협업도 기대하겠다”고 김경수 도지사님이 인정한 지역의 열정가들입니다.

저는 이분들 중에 활동가라는 타이틀이 부담되고 어떻게 시작하지라는 막막함을 가진 아직은 새내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모임을 주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카톡방에 이야기모임의 취지와 내용을 올리고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시작이 두려운 남진효, 김삼화, 김은희 네분의 선생님과 이미 필드에서 10년이상 활동한 선배님 김경주, 황은영 두분이 참여하여 이야기 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유정숯불갈비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를 환대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서로의 안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를 활용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질문 등 이야기카드는 평소에는 알 수 없는 개인적 부분도 조금 더 알게 되는 좋은 아이스브레이킹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가 같으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독서, 마을활동, 소진상태, 향교활동, 주민자치회, 창원시까지 키워드로만 나열하면 서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은 단어들어 어울어 지는 이야기모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으로 옮겨서 황은영 선생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 선생님이 활동하는 <청만행웅>은 창원시 진해구 용원에 있는 주민 공동체 입니다. "청소년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응동"이라는 뜻 입니다. <청만행웅>은 2016년 1월 9일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창립당시 포부를 소개하자면 2016년도 응동2동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체험 위주의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합니다. 2017년부터는 시작되는 청소년 축제는 2020년 올해는 영화를 테마라고 합니다. 청소년이 기획하고 청소년이 준비하고 청소년이 꾸리는 <놀이만 하자>라는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지금현재 축제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청만행웅>을 하면서 활동가 지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혜는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원칙을 꼭 지켰다고 합니다. 2. 한번 정한 일은 꼭 실천한다. 공동체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회의를 통해 정해진 일을 꼭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3. 1주에 한번 회의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그 날은 꼭 회의 했다고 합니다. 의제가 있던 없던 회의를 진행하여 공동체의 결속력을 이끌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황선생님의 활동사례를 들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뭘지? 도대체 활동가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커피숍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리에 저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헤어질 때 이야기모임에 참석 한분이 감동사를 하신다면 저희에게 봉지가득 주신 감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활동가는 무엇일까요? 황선생님의 활동의 기본은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맺은 인연이 모여서 청만행웅이 되었다고, 조직의 시작은 학교도서관에서 만난 부모모임이 시작이었다고요. 나는 오늘 이야기 모임을 통해 나의 작은 인연을 또 한 번 시작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연은 오늘 받은 감처럼 달콤 할 수도 있다고 털 익은 감처럼 떼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모임을 통해 느낀 나의 결론은 모든 활동이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위한 언택트 시대에서 친밀감을 찾고 누군가와 관계는 맺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뻗은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모든 조직에 시작입니다. 마을을 위해, 지역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활동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모임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멋진 발걸음을 시작 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자유주제 #11.5

차별금지법 제정 왜 필요한가?

김한나 충북교육발전소



민주주의는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 클래식음악과 '이야기카드'로 모임을 시작하니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웠다. 이야기 주간을 계기로 함께 모여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사회에서 평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

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 실현을 위한 여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된다.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 일단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는 그 속에서 차별을 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무엇이 차별인가를 사회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해야 한다. 차별을 생각하는 공감대를 높이고, 다양한 차별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우리 사회에 차별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앞으로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 차별은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로 나눴던 소소한 답변들이 너무 좋았다. 활동가끼리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다.
-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로 첫 시작을 열었는데 참여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는 카드에 2018년 천안에서 있었던 스쿨미투 집회가 기억에 남는다는 참여자의 얘기에 참여자 절반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신기했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참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
-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에서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 총복연대'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 우리 사회의 차별문제와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임 주제 관련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 활동과 관련된 질문, 한번쯤 생각할 질문을 통해 모임에 함께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이야기카드가 좋았다. 지원금이 조금 더 넉넉하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구상해볼 수 있었을 것 같다.
- 이야기 카드가 재밌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하는 일상 소에서 다른 주제로, 새롭게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 이야기카드 내용이 좋아서 더욱 나눔이 충만했다.
- 지원금이 조금 더 넉넉했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활동가 이야기 주간 최고!

후기 에세이

민주주의는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지요. 차별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그리고 자신이 차별 당했을 때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고, 배워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차별 경험을 누군가 겪게 된 불행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아직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보면 무의식적인 차별을 행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말을 골라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죠? 누군가 차별 받고 아파할 때,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 순간을 바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 주간에서 주신 '서로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 몇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로 첫 시작을 열었는데 참여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는 카드에 2018년 12월 천안에서 있었던 스쿨미투 집회가 기억에 남는다라는 참여자의 얘기에 참여자 절반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신기했다.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참여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 뿌듯했다.”

“활동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 카드를 뽑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회고지에 아무 글도 쓸 수 없었다.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활동한지 어언 10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행복했던 순간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마음이 떨렸던 순간이 곧 행복한 순간이었을까? 아직 특별한 '행복'을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사회를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뜻 있게 활동하는 이들과 의미 있게 살기 위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작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활동가 새내기지만, 의미 있는 것들, 옳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활동하며 행복한 순간'을 만들고 싶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 중 가장 본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중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실천을 위한 여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차별금지법이 제정 된 이후에 주변 삶이 어떻

게 바뀔지 기대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사회에서 평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차별은 모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활동가 이야기주간을 구실로 우리가 평소에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는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회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힘들어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생각을 멈추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창피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삶이 편했을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삶을 택했습니다. 공부하고 행동하기 위해 애쓰는 삶, 이야기주간을 통해 우리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다잡습니다.

왜 내가 이 곳에 있는지,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여전히 나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하며 행동할 때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오늘, '의미'있게 자부하는 하루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 주간'을 주관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대구 #자유주제 #11.6

우리는 어떻게 재난시대와 마주하고, 이겨낼 것인가

김효주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로서 코로나 재난시대를 마주하며 겪는 어려움과 소진예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 자신과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합니다. '더 이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화의 폭을 더 넓혀볼 계획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코로나로 인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 분명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사건, 재난재해들로 인해 국민들은 어렵고 힘들지만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사회복지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대응하는 것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다.
- 활동가들의 인권과 복지가 어느 정도 지켜져야 활동의 힘이 생긴다.

-
- 나만 힘이 들고 지치는 활동의 연속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 모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니 연차 상관없이 다르고도 비슷한 이야기와 생각을 가진 것 같아 든든하고도 씩씩하였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사회적 돌봄이 있었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직종별로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가 살피지 않고 스스로가 알아서 하계끔 했었다는 것에 몹시 서운하다.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대상자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 같다.
- 여성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국가적 재난위기는 개인적으로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정작 돌봄노동을 해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돌봄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감염의 위험, 돌봄노동의 가중, 불안감 등이 있었지만 사회에서 종사자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도 없었다. 재난에 종사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나오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이에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나 돌봄은 서비스 대상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서비스 대상자에게 더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가들의 돌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동가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해 보인다.
-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에게 아직까지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 같다. 예전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사회 불평등과 불합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활동가들의 노동현장은 돌아보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위기 시 종사자도 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위기를 종사자에게 해결하도록 떠넘기지 말라.

#광주 #자유주제 #11.2

공익 콘텐츠(인권 포함) 크리에이터들의 이야기

박수경 한범 활동가



활동가 중에 공익콘텐츠(글, 그림, 영상 등)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어떤 철학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좋았던 점, 나빴던 점, 재밌었던 점),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해법과 대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공익 마케터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있다면? 공익활동단체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창작활동 정보공유, 해법연구, 소통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예술가와 사회운동가 모두 창의적 콘텐츠를 통해 후배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남겨 주고 싶어 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힐링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고 자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비영리 공익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두려움도 많았지만 시작하고 나니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같이가 가치를 창출했다.

- 나의 존재가치를 위한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더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조금이라고 각자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성을 추구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시켜 삶의 의미를 부여시키기 위한다.
-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라는 건 없다. 그 때와 그 사람들에 의해 달라진다. 주입식이 아닌 질문을 통해 경험과 지혜에서 우리나라 답들 속에서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정답은 없다. 정신적 고결함을 향해 배우고 깨우치며 해답을 찾으려 노력해 갈 때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 이야기 카드를 활용한 대화 나눔이 좋았다.
-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말이었던 재미가 있었고 힐링이 되었다.
- 이야기 카드로 대화하던 중 예술가의 면을 엿볼 수 있어 좋았다. 예술가들이 한 가지만 판다. 그것이 경지에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다른 것에 문외한이라 무식하다. 모든 것에 비움이 되어야 좋다. 비우면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 주기적으로 이런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길을 묵묵히 한걸음씩 걸어와 지금의 비영리단체를 만든 사람과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후배들에게 가치관을 확립해주려는 소명의식으로 창조활동을 하신다는 분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일회일우하지 않고 좀 더 확고한 활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야겠다고 각성하게 되었다.

후기 에세이

안녕하세요. 저는 단체에 속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1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뼉 활동가'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자신이 가진 한 뼉의 크기는 다름으로 각자의 한 뼉씩 행동하고 연대해 세상을 밝게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활동가이야기 주간을 알게 되었고 올해가 2번째입니다. 직업을 통해 연대가 맺어지기도 합니다만 저의 1인 활동가로서 활동은 대화를 통한 '생각 나눔'입니다. 만남과 대화, 연대맺기를 하고 있고, 요즘은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칼럼과 라디오(팟캐스트)를 통한 생각 나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 뼉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소장 서영숙 대표는 저랑 나이가 같고, 믿음직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토(土)스토리 대표 이나무 선생님은 저희보다 딱 12살 많으신데 최근에 알게 되었고 3명 여성 모두가 소띠였습니다. 저희의 연배 이신 만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영숙 대표는 국제이주문화연구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권익신장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3년째 운영을 하시면서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 대학원을 다니고 계시고 장애인활동보조 업무도 간혹 병행하고 계십니다.

토(土) Story 이나무 선생님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시고 계십니다. 토(土)스토리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학교에 도예 수업을 하러 다니시면서 호불호가 명확한 요즘 세대들에게 넓은 세상을 배우게 하고 싶다, 다양성을 추구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또 거기에서 각자의 삶의 의미를 부여시켜 주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예수업을 통한 진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때와 사람에 따라 진리는 변합니다.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대화를 통해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가장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좀 더 사색해 보니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자신들이 아는 세상이 다 일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요. 거기에 배움이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학문과 철학 등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치면서 거기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좀 더 진리에 가까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데 일조하자고 동의하는 의미로 화이팅하며 마쳤습니다.

#보은 #자유주제 #11.3

보은에 있으면 좋은것들

박옥길 흡사랑



보은지역에서 살면서 보은에 이런 정책이나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한번 짚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지자마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육아, 환경, 먹거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대선주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결론은 보은에 살면서 있어야 할 것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스포츠에 대한 시설이 과대) 많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소통은 참 중요하다. 각자의 일터에서 느낀 이야기를 토론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불만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자조적인 모임을 가져 시민이 주인이 되어 새로운 시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애정을 쏟자 라는 공통된 의견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뿌듯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 보은에 사는 것은 행복일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알고 나니 불편한 현실이다. 시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삶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풍부함을 느꼈다.
 - 몇 차례의 만남을 갖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도출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소소한 이야기로 서로를 더 알아가는 만남을 가진 것이 좋았다.
 - 놀이터,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함을 느꼈다.
 - 보은의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하자.
 - 이번 1단계 모임 후 지속적으로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보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면 좋겠다.
 - 시민이 주인이 되어 내가 사는 우리 동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미래를 그려본다.
 -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간다

#김해 #자유주제 #11.2

우리 마을에 도움 되기 첫걸음 (a.k.a. 둘러보기)

박정은 마을활동가



같은 지역 내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 나눔을 통해 우리 마을에 필요하고 적합한 마을 활동 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주제 발굴과 꾸준한 이야기 활동 실천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발전시킨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활동가로서 '마을 활동 주제' 발굴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나눴고, 지역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 듣기 필요성에 고감했다.
- 마을을 도우려면 마을을 들어라.
-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실질적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우리 마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같은 지역 내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을에 필요하고 적합한 주제를 발굴

했다.

-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마을에 대한 이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 이야기 카드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 이런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기 에세이

10여년 마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퍼실리테이터로, 마을활동가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면서 우리 동네가 하나하나씩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문득문득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진정 우리 마을이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 활동가이야기주간을 계기로 나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우리 마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마을활동 주제를 찾아보았다.

이야기모임에는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 한 명과 장유2동 지역활동가 두 명이 참가했다. 이미 지역 활동을 통해 안면이 있던 활동가들이라 지원 받은 이야기카드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오늘 이야기모임 주제와 연관된 카드인 ‘활동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를 고르고 한 가지 주제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하였다. 긴 시간 지역에 봉사해 온 활동가들이라 이야기가 길어졌다. 요약하자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이 좋을 때’, ‘주민들이 활동에 대한 더 좋은 의견을 낼 때’, ‘주민들이 활동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 등이 있었다.

이어서 ‘우리 마을에 도움되기 첫걸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세 명 참석자 모두 다 오랜 시간 한 지역에서 활동해오면서 활동 주제 고갈, 본인의 관점에 매몰되는 한계 등의 애로점을 공유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마을에 적합한 주제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주제 고갈을 보강하고, 매몰된 관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에 참가자 모두가 동의하였다.

주민의견 수렴 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아이디어함 설치, 김해시 홈페이지 내 코너 개설,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창구 활용,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행정의 협조가 필요한 아이디어의 경우 시간을 가지고 각자 절차를 검토해보기로 하였고, 각자 소속된 지역 커뮤니티와 새로운 곳을 접촉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이야기모임으로 새로운 마을 활동주제를 발굴하고자 했는데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보다 많은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주제를 찾아야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마을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자유주제 #11.4

청년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 마을민주주의

박지훈 마을자치활동가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 마을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청년들은 왜 지역 활동,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서 만나기 어려울까?
- 우리들이 원하는 지역 활동의 모습은 무엇일까?
-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더 깊게 생각하고 정리해서 또 만나자.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청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관심이 없거나 여유가 없어 지역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 기대하지 않았지만 좋은 모임, 좋은 이야기였다. 결론은 아직 내릴 수 없기에 다음 모임을 기대한다.
- 즐겁고 재미있지 않으면 좋은 의미여도 참여하기 어렵다.
- 계속 이야기모임을 지속해서 내년 이야기주간에서 결과를 공유하고 싶어요.

후기 에세이

다른일을 하다가 마을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궁금했던 것은 “왜 청년들이 없을까?”였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청년 나름의 사정도 있고, X,Y,Z같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면서 세대의 특징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을 만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2020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 청년들을 만나는 이야기 모임을 할 수 있었다.

마을활동을 하는 청년도 있고, 지역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학생, 타지에서 이사 온 신혼부부, 마을에서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청년상인 등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은 저마다 마을에서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듯 다양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길 기대하며 추천을 받아 모임을 진행했다.

내가 활동하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 화두는 택시비에 대한 이야기다. 지역의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청년들은 지역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타지에서의 활동이 많다고 했다. 그 만큼 활동의 범위가 넓어 정주하고 있는 지역을 특정해서 활동할 만큼의 이유가 적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 했을 때 내가 할 수(바꿀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활동들을 이야기했다. 큰 일들보다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일들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았지만, 전체적인 마을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자신의 관심 안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함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이야기 자리의 열기가 높았다.

시간이 없는 바쁜 청년들이지만 즐거움은 찾는다. 퇴근 후 하는 유명 독서목임에 참가한다는 청년은 모임에 대기자도 있다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으면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이 공공성에 대한 단순하고 교과서적인 활동이 마을의 공공활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해보았다.

마을엔 다양한 세대가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과 기존 활동가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정교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중간 결론을 내고 이 이야기 모임을 마쳤지만, 청년들과 다시 만나고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닌 새로운 제안을 하고 공감을 만들어 내는 이야기 모임으로 계속 하고 싶다.

#안산 #자유주제 #11.2

지역 내 청년활동가 만나기

백보람 평화통일단체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의 일과 영역에 집중하느라 청년으로 뭉치기가 어려운 청년들이 함께 만나 서로를 이야기하고 유대와 연대를 쌓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공되는 카드를 활용하고 각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각자를 소개하고 서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관계맺기의 시간을 가진다. 나아가 지역 내 활동가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고 연대를 강화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한 지역 내 가까이 있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관심 가지기에는 너무 바쁜 우리, 더 자주 만나자.
- 평소 얘기나누지 못한 내용들로 대화하니 새로웠고, 이야기 카드 내용들이 신선해서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야기 카드 활용도가 참 높을 것 같아요.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청년 활동가들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이 정말 소중하다
-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 모두 지역사회 운동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 우리 활동가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 청년활동가들과 앞으로 더 자주 만남을 갖고 싶다.
- 활동가들의 이야기 나눔, 의미 있었습니다.

후기 에세이

지역 내 활동가들은 서로 회의나 활동 현장에서 종종 만나기도 하는데, 사실 만나는 횟수에 비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일하고 있는 바쁜 활동가들이고, 청년활동가들은 그 중에서도 실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래 만나왔는지와는 별개로 서로에 대해 깊게 살펴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활동가 이야기모임을 통해 지역 내 청년활동가들이 시간을 내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각자 많이 바쁘다보니 시간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어진 이야기카드를 선택하여 질문과 대답을 번갈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고가는 이야기와 질문들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데,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들은 더더욱 사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깊게 인식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꿈을 꾸기도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요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요즘 집중하는 이슈들은 남북관계, 여성주의, 지역사회 등 참가 인원수 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활동가들은 참 다양한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내주신 이야기카드는 좋은 질문도 많고 신선한 내용들이 많아서 앞으로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내어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울 #자유주제 #11.6

지역활동가들의 허허심심탄회

오승준 동자치활동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지역에서 활동한 이야기와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노원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4사람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올 한 해를 정리해 보고 내년을 준비해본다. 아직 2020년이 조금 남았지만 허허 웃으며 코로나로 심심했던 일상의 이야기를 허허심심하게 나누었다.
- 언택트의 시대지만 택트의 총량은 존재한다.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게 된다.
- 이야기주간을 핑계삼아 만났다. 안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을 약속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이야기 모임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로 계속 운영하고 싶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참 어려웠던 2020년이였다. 많은 고민들을 안고 언제 왔는지 모를 가을까지 왔는데, 동료였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희망을 그리게 되었다. 결론은 만남이

좋다.

- 허심탄회하게 말한다는 사람치고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사람 없다.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말한다고 사람 말은 믿어주는 게 좋다.
-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도 추억이 되었다. 그렇기에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었다.
- 사람은 무엇이든 견디며 살고 있다. 증력을 견디며 일어서서 걸음마하는 조카를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 알다가도 모르는 게 마을과 사람이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좋은 것도 마을과 사람이다.
- 이야기 카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질문을 공모해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 모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넋지가 필요합니다.

후기 에세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과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평소에도 모두 만나는 일정을 잡기 어려웠지만, 올 해엔 그 이유들이 더 많았지 싶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뒤로하고 활동가이야기주간에 참여하면서 어렵지만 만날 이유가 생겼다. 중요한 이야기라도 할 모양으로 모임 이름도 ‘허심탄회’로 지어 괜히 폭탄선언이나, 양심선언 그 비슷한 뭐라도 있는 양 사람들에게 모임 약속 전화를 돌렸지만, 실제로는 허허 웃으며 심심했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 농담하며 즐겁게 모임을 준비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으로 노원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평소 같았다면 벚꽃 길에 꽃이 피었다고, 힘든 일을 마치고 고기 먹으로 가자고, 가을이 되니 산에 가자고, 모였을 사람들이 한 번 모임 일 없이 벌써 11월이 되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더라“

생각을 더듬어 보니 올 한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코로나로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모습에서 새로운 일상에 자리를 내어준 우리 기억 속의 평화롭고 즐거웠던 날들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허심탄회하게 올해 무얼 하느라 이렇게 한 번을 못 봤는지 물었을 때, 별일 없이 심심했던 한 해를 떠올린다.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던 시간, 마스크가 귀해 면마스크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준 일, 올해 기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취소되어 힘들었던 일들, 더듬더듬 온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하며 회의 내용 보다 서로의 안부 묻기가 더 오래 걸렸던 일들, 이제는 지나가서 허허 웃을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다. 서로 다른 일상을 보냈지만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며 바뀐 일상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경험하며 비슷한 일상을 보내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 마을에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들, 서로 무언가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경험과 생각을 나눴다.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사회의 지표들 외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코로나 우울증에 마을활동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안전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 함께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도 풀어내며 활기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수많은 대화의 한 편엔 언제나 동네에 함께 만나고, 함께 만나 일을 만들고, 풀어냈던 예전의 그리움이 계속 나왔다.

약속된 모임 시간이 지나고 헤어질 때 즈음에 모임에 함께 했던 활동가 모두가 "다음에 만나기"를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마을의 활동에서 정작 활동하는 이들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활동가이야기 주간이 시작이 되어 정기적으로 만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힘들 활동의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서로 같아 활동가 이야기 주간이 끝났지만 정기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지려 한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의 이야기 주간이 계속된다면 이번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 모임의 한 해를 정리하는 모임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서울 #자유주제 #11.3

마을주민들에게 펼칠 재미있는 놀거리 생각하기

체리별론 노원구마을지원활동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실생활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개인 활동에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지원활동가로써 주민과 환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기.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진 않지만 재미있게 노는 건 누구보다 잘하고 일 만드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하니 마을에서 환경을 주제로 너도 재미있고 나도 재미있는 놀거리를 만들어보자.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우리의 실생활 돌아보기 (플라스틱 사용, 1회용 사용) 플라스틱과 1회용품은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금금증과 대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1회용품 줄이기, 플라스틱 줄이기는 개인이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더 확실하고 빠르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자.
-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모였을 때 방향이 생기고 가능성이 커진다.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지속하고 싶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환경을 생각하고 지키는 생활은 힘들지만 함께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이다.

- 의식 있게 행동하자. 알고 행동하자.
- 환경을 위한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어도 혼자 실천하기는 쉽지 않기에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고 함께 방법을 나누는 것이 좋다.
- 날마다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약속해보자.
- 좋은 방법을 공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보고 알리는 것이 좋기에 작은 방법부터 직접 시작(실천)해 보자.
-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실천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살림(환경을 생각하는)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일회성이 아닌 이런 모임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후에 또 만나서 환경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기대되어요.

후기 에세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과 우리의 실생활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자. 개인 활동에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지원활동가로써 주민과 환경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보자.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진 않지만 재미있게 노는 건 누구보다 잘하고 일 만드는 것 또한 누구보다 잘하니 마을에서 환경을 주제로 너도 재미있고 나도 재미있는 놀거리를 만들어보자.

우리의 실생활 돌아보기

오늘 아침부터 모임에 오기까지 (또는 어제 하루) 우리는 쓰레기를 얼마나 만들었을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서로 노하우를 공유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분리하기 살짝 고민되는, 아리송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게임 같은 것을 마을축제나 모임에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난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홍수열 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닭뼈, 양파껍질을 음식물쓰레기에 버려도 동물들 먹이로 가지 않고 퇴비로 사용되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책감이 많이 없어져서 시원하였다. 일반 주민들도 쓰레기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죄책감을 덜고, 더 잘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강의나 마을행사에서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예전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계를 설치했었는데, 어느 시기에 냄새가 너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기계를 폐기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도는 좋은데, 기계 내 환경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상황이 역전되어 지속하기가 힘들어 안타까웠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적게 사는 것, 대형마트를 안가고 동네 슈퍼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에너지과잉시대에 살고 있다. 신체활동과 1차 산업을 많이 안하는 요즘에도 많이 먹는 습관이 남아있다. 싸고 양을 많이 사서 버리는 것보다 정성껏 만들어진 좋은 음식을 적게 먹는 습관, 캠페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참기름병, 들기름병을 버리려고 물에 헹구는데, 오히려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 같고, 잘 안 닦이던데 재활용은 알면 알수록 할 일이 많고 불편하다. 개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 기업이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빨대 어택, 스펀뚜껑 어택처럼 소비자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소비자에게 빨대 선택권을 주면 되는데, 왜 안 주고 일반적으로 공급을 할까? 빨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 필요없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접수시켜 요구하자.

요즘 오푸기 브랜드파워, 수익이 농심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푸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올바른 길로 가니 소비자가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치 판단으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제 소비자도 비싸더라고 경제적 측면보다 가치판단은 더 중요시하고 소비를 한다. 생리대파동 이후 작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났다. 생리대도 1회용이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안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리컵이 환경에도 좋고 내 몸에도 좋다는데 기존의 방법이 편하고 시도해 볼 엄두도 안난다. 주변에 먼저 이용해 본 선배들을 찾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함께 이용해보고 과정을 공유해보면 혼자 할 때보다 더 시도해 볼 생각이 들 것 같다.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아도 서로 갖고 있는 것만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어도 방법이 생기고 길이 만들어지고 함께 갈 사람들이 생기니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벽차다. 미니멀라이프를 하고 싶은데 물건을 못 버리겠어. 나도 못 버리는데 지난번에 기증할 일이 생기니 안 쓰는 물건 정리가 되더라. 주변에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기증 캠페인을 벌여 기회를 만들어주면 우리집도 정리가 되고, 주인없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보물처럼 쓰이니 정말 좋겠다. 아파트, 주택단지마다 생수페트 분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택배 박스가 1번 쓰고 버려지는게 너무 아깝다. 행사 때도 1회용컵 말고 머그컵 대여업체가 와서 보증금 받고 대여하는 것을 보았다. 가능한 대안이 있으니 불편하더라도 시도하면 좋겠다. 환경을 생각하라고 소비자들에게 요구하면 지속하기 힘들어진다. 멋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 힙한 곳이 되어야 한다. 엄마는 이런사람이야! 라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포스터문구, 캠페인이 필요하다.

#창원 #자유주제 #11.4

새내기 활동가들의 고충과 고민, 앞으로의 방향

bin lee 사회혁신가대학



사회혁신활동가의 역할과 준비, 활동방법 및 노하우,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사회 활동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집밖을 나서면서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합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언택트 시대에 걸으면서 지역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쓰레기줍기를 청소년에게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동네 줍깅,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지역 사회에서 활성화하기
- 운동과 환경보전, 청소년 교육 등 모든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 초보자

도 이렇게 사회 활동가가 될 수 있다. 그 활동이 바로 걷기이다. 지역 사회를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집에 있는 자녀들과 걸어보세요.

- 사소한 활동 하나가 사회를 위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재활용하기. 아름다운가게 활용하기. 환경문제가 이슈인 이 시대에 작은 활동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활동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구가 아프지 않게, 나의 건강에 좋게, 좋은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활동가입니다.

#부산 #자유주제 #11.5

온택트 시대, 2021년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마을 수다방

이승민 하루마을문화교실



온택트 시대, 2021년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을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마을 수다방입니다. 참석자 인사 및 활동 소개하고, 2021년 사하구에서 청소년들과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주제 토론을 합니다. 우선 순위 정하기 투표를 하고, 2021년 실행 방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하는 모임입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 결과까지 도출해서 좋았다.
-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를 통해 나와 동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청소년 놀이학교를 제안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내년에 꼭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천 #자유주제 #11.2

작은 단체에게 가중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이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진행



코로나시대에 일자리, 생계의 위협을 받다보니 작은 단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부담은 점점 크게 느껴진다. 조직의 확대를 통한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 확충만을 바랄 수는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작은 비영리단체 활동에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재정에 대한 고민과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자생력을 키워야한다.' 그러나 사실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후원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더욱 그런 것 같다.

-
- 가난한 활동가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필요한 물자 마련을 위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도 필요하고 비영리 단체의 활동도 해야 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야기모임으로 인해 마음 편히 이야기하는 자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지자체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곳에서 더 필요한 곳으로 물자가 순환되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작은 단체의 재정부담은 활동가 개인(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설정이다. 활동가 개인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에 공적, 사회적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 작은 단체로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들 경우 큰 규모로의 확대로 재정 부담을 줄이거나 단체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
- 본 주제도 주제이지만 카드를 통해 이야기 나누었던 점이 새롭게 느껴지고 재미있었다. 이야기 분위기를 한결 좋게 만들어 주었다.
-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닌 교육적인 콘텐츠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이런 주간이 있는지 몰랐다. NGO 활동가의 권유로 처음 진행해보는데 괜찮은 것 같다.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
- 이런 모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자유주제 #11.5

청년NGO활동확산사업과 청년활동가 이야기

이태욱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NGO활동확산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대구시민센터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인턴사업이 아니라, 공익활동단체를 통해 청년의 '공익활동 경험'을 증진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NGO활동 확산사업에 참여한 청년활동가들을 만나서 어떤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지, 청년NGO활동 확산사업이 본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청년NGO활동 확산사업과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청년NGO 사업은 활동을 원하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 처음 이야기모임을 주최해보았다.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
- 누군가에겐 이 사업이 신세계였고 터닝포인트였다고 한다. 자역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신세계와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청년NGO 활동의 지속성, 피드백 등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청년NGO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 청년NGO 사업을 단체친화적 성격에서 청년친화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 NGO사업이 지속되려면 예산과 기간이 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속보다 발전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 단체는 활동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 바쁜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고 의미 있었습니다.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오만가지 것들을 고안하고 모아보는 과정을 잠깐이나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청년NGO사업의 담당자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자부심과 좋은 경험을 채우고 갔으면 좋겠다.
- 청년NGO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 #자유주제 #11.3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생활 즐기기

임현영 한울모아-마을활동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위축되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다문화 여성들과 문화 알아가기 방법을 모색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이야기카드를 이용해서 회원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다문화 여성들의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별, 문화 등의 이야기와 마을공동체에 함께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문화, 환경이 달라도 우리는 이웃사촌, 한 마을에 사는 가족이라고 정리하였다.
- 회원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앞으로 사업하면서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반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가 이야기 모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편견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들과 소통을 하기위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어울려야 한다.

- 함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과거, 현재, 미래의 발전된 한울모아가 될 것 같다 .
- 한울모아 하길 잘했다. 역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다가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만남이 지속될수록 공감되어지는 생각들이 많아 좋았다.
-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한울모아 공동체가 나아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기대된다. 다문화를 통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즐거움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 이야기카드의 질문들이 인상 깊었다.
- 다문화여성들의 한국생활 이야기 들어주고 해결할 문제 같이 의논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 계획이 좋았다.
- 한해 공동체 활동을 회고하면서 함께하면서 걱정하고 웃고 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했던 이주여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으나 일정이 안 되어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 내년의 활동으로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대한 문화를 알아보고 싶다.
- 다문화 가족들의 행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같이 공동체로 묶여 도움을 바라는 다른 가족들의 참여로 활발한 활동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후기 에세이

한국어교원자격을 얻어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결성된 모임으로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를 해왔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얻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외출도 안하고 위축되어있는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제일 우리모임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을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생활즐거기라는 제목을 얻게 되었다.

우리 모임이 딱히 장소가 없어서 주로 커피숍에서 모임 활동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회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사무실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날짜는 모든 회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정했다. 모이기 전 이런 회의진행이 처음이라 걱정되기도 했지만 모임 하는 날 회원들이 하나 둘 모여 얼굴보니 너무 좋아서 회의진행에 대한 긴장감이 풀어졌다.

간단히 안부를 묻고 회의진행에 앞서 회원들간에 사이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 이야기카드를 이용했다. 활동가이야기를 자유주제로 진행하는 거라서 이야기카드는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를 받았다. 이 이야기카드 안에는 세 분류로 나뉜 내용으로 각각 20장씩 들어있었다.

첫 번째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질문카드는 '만약 내일이 없다면? 오늘 가장 하

고 싶은 일은?’에 대한 질문에 나온 회원의 대답은 이제까지 나에게 서운하게하거나 무시한사람들 찾아가서 하고 싶은 말 맘껏하겠다라는 답이 나와서 회원들 모두 의외의 답이라고, 그런데 진짜 내일이 없으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긍정적인 호응이 있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질문 카드는 '나의 가장 행복했던 과거의 어느 날은?' 회원들의 대부분이 20대를 꼽았다. 세 번째 활동과 관련된 질문카드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대답은 용기, 마음가짐,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회원들의 마음을 확인후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우리아파트에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한글을 몰라서 그리고 문화를 몰라서 집밖으로 못나오고 있는 다문화여성들이 많이 있다. 모임취지에 맞게 다문화여성들과 어떻게하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는데 공모사업을 통해 다문화여성들을 모집해서 회원들의 재능을 나누자 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문화여성들과 친해지려면 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다문화여성들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이러한 의견을 갖고 회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회고록과 회의 기록지를 정리하고 회원들과 나머지 수다도 나누었다.

결론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으면 더욱 더 홍보하여 다문화여성들과 많은 시간을 갖자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더욱 체계적인 회의진행으로 인해 긴장감 없이 수월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원들과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주 #자유주제 #11.5

경남에서 청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사는 걸까?

조지훈 어찌다 경남청년



경상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정책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 데 비해 청년활동에 대해서는 미진했다. 청년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청년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 청년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청년활동가와 일반(대중) 청년의 구분법이 지나는 함의가 무엇인지, 청년활동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볍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청년활동, 청년활동가 그리고 경남'이라는 주제로 청년활동과 청년활동가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청년활동은 공익활동이나 지역혁신과 교차하여 대체로 이루어지나 청년정책이 등장하며 '만들어진 개념'에 가깝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청년활동을 하게 된 계기들을 공유하며 우리가 왜 이 활동들을 하는지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청년활동과 청년활동가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도 각자가 가진 목표를 향해 내딛는 한걸음을 소중히 여기자.
-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쩌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셔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자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청년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겠다.
- 청년 활동을 한다는 것에 색안경이 없기를.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 활동을 당당하게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다양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하는 이유들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 우리들의 활동이 더 발전하려면 우리들이 더 이어지고 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지방정부, 정권, 권력의 흐름에 관계없이 재생하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활동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연결된 우리가 즐겁다. 각자의 자리를 언제나 응원하고 싶고 작은 시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 이야기가 휘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지 고민입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즐겁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자유주제 #11.2

환경활동가들의 정서적 연결과 활동 연대

연&결 개인환경활동가, 비폭력대화 강사

환경관련 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받으며 정서적 안정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비슷한 비전을 가진 활동가들끼리 생각을 공유하여 환경활동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후기 에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에 앞서 이야기박스 안에 있던 이야기카드를 활용했다. 온라인 모임이다보니 즉석으로 카드를 뽑기는 어려워 미리 3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1) 현재 배우고 싶은 한 가지, 2) 소속된 단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3)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변화 한 가지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들이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제들과 연결되면서 활동가로서의 고충을 나누게 되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쉽다는 평들이 있었다. 이야기 중 흥미로운 발견은 활동가들의 현재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미래의 환경활동에 쓰임이 있는지를 고려한 답변들이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래하는 시위를 꿈꾸며 우쿨렐레 배우기, 귀농했을 때 마을 잔치 초대를 꿈꾸며 해금 배우기 등 타인과의 융화, 공감을 염두에 둔 취미생활이라니, 큰 그릇의 사람들이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조금씩 활동에 대한 고충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은 활동가를 관두고 싶은 순간에 관한 고백이었다. 환경운동(이라고 칭하니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거창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적인 색채도 풍기는 듯하다) 내지 환경보호 실천을 하다보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행동을 바꾸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이 사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좌절감과 분노가 자꾸만 활동가들을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눴던 대화의 골지는 환경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라는 흑백논리가 아닌 이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분법적 사고는 상호이해를 모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서로가 가진 선입견들이 투영되면서 언쟁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낭비인데 환경활동가들이 생각하기에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할까?

이에 대한 답은 공교롭게(?)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나 자신이 만들어낸 변화라니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아니냐는 피드백이 있었지만 결국엔 “내 자랑 타임”이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그 순간을 벗어나니 다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답변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화내는 모습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킨 것, 2) 채식인들 모임의 장을 만들었던 것, 빅웨이브나 비폭력대화 그룹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 3) 플라스틱 뚜껑열기 활동에 주민 한 분이 함께 행동으로 실천해준 순간, 4)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는 것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언급되었다.

네 가지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동력은 “지지”가 아닐까 싶다. 나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의 연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큰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환경활동가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활동가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는 목표에 빨리 다가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독이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든지 방향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야기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이 궁금했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환경보호 활동을 하면서 겪는 고충에 대해 마음 편히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해당 주제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거나 내 선택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보니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는 버릇이 생겼는데 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후련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서로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연결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공간에서 모니터 속 상대방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임방식이 점점 익숙해진다.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도 국내외 코로나 추세를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은가. 단순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잃어버린 것에서 비롯된 슬픔이나 그리움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2020 활동가 이야기 주간 덕분에 전국의 여러 분야에 걸친 활동가 분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바위와 같은 세상에서 변화를 꾀하는 계란들이 모여 다이아몬드 계란이 되는 그 날까지 용기와 지지를 보낸다.

* 아무래도 환경활동가들의 모임이다보니 주최 측에서 보내주신 이야기박스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모임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보조 도구들도 있

있는데 다음 회차부터는 필요/불필요 체크란을 만들어서 수량만큼만 이야기박스를 제작하는 건 어떠신지라는 의견을 남긴다. 자원사용 제로가 아닌 불필요한 자원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최다연 문화예술교육및 기획



성교육이 먼저인지, 인성교육이 먼저인지.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어떤 해결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예전부터 문제제시된 사건들은 무엇이 있고, 현재는 어디까지 성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족함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문제점의 원인을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좀 더 각자의 활동에서 유용한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교육(성교육)과 범치는 크게 영향이 없다. 성범죄자들이 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이들의 부재는 인식이다. 그럼 우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우리는 모두 소중한. 소중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자.
-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모여 생각과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일상생활에서의 성평등 의식 갖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가능하며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가정에서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디지털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 올바른 성인식과 올바른 성평등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이고 부모로부터 시작된다.
- 세상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러한 올바른 조기교육이 없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오늘 특수반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너는 3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야라는 이야기에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부모, 성인, 교사들이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여섯 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라고 했을 때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보았다는 현장에서 일한 선생님의 증언이 인상깊었다.
-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습니다. 타인을 경시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으로 여길 때 모든 폭력, 성폭력, 심리정서적 폭력이 일어나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규범과 에티켓을 지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아니! 어떻게 이런 활동이 있나? 놀랐다. 추죄 측에게 감사하다. 어떤 조건도 없이 식사비를 주며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토론을 한다는 것이 너무 멋지고 귀하다. 아쉬운 점은 없다. 감사할 뿐!

후기 에세이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최다연입니다. 지난해 저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그동안 문제제기 되었던, 하지만 불거지지 못했던 은연의 사건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동료들의 아픔을 함께 하였고, 이런 성문제를 어떻게 나의 위치에서 나 나름대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마침 여성회관에서 진행했던 '유아동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을 들으면서 저의 가치관, 나의 의식, 인식에 문제가 있음 또한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시간 외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성평등 의식을 갖는게 제일 중요하죠.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도 가능합니다.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가정에서부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자기만 소중히 여기다 보니 이기적인 모습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열등감입니다. 진정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알아요. 내가 소중한지 모르니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예절, 에티켓을 실천하고 가정에서 배워야죠. 부모 또한 자신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동,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시다. 오늘 특수반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너는 3억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야라는 이야기에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부모, 성인, 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어린이집 성교육 수업을 갔던 곳에서 여섯 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고 했을 때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키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혼났던지 귀찮아했던 그런 모습이 자주 비춰진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없게 되겠죠.”

“유아동 성교육은 그런 부분을 중점삼아 진행이 되는군요. 그럼 연령을 바꾸어 청소년, 성인들의 성범죄 문제를 대비, 또는 재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떤 성교육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법 교육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다연샘보다 신실샘보다 더 전문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한 두번 죄를 짓고나면 일반 변호사만큼의 전문가가 되어 있죠. 내가 이러면 이런 벌을 받겠고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건 인성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니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무딘거죠. 이 분들 대다수가 어릴 때 가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성교육과 올바른 성평등 교육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이고 부모로 부터 시작됩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러한 올바른 조기교육 없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의 반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인성, 인권교육이라고 여깁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서 있다면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더 나아가 사회의 건강과 이어 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시는군요. 저는 이번 만남과 지난 여성회관의 유아동성평등강사 양성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단체들의 사업들이 저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를 느꼈어요. 캠페인도 그냥 흘러넘겼고, 시청에서 사람들의 외침 등은 저에게 나와 상관없는 소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들었던 수업들은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전달 방식으로 매

우 확실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보는 계기도 되었구요. 이번 모임 또한 공적으로 나누지 못했던 각자의 입장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가로서, 시민활동가로서, 예술가로서 각 기관으로써의 각자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건강한 성인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천 #자유주제 #11.4

학생이지만 활동가, 대학에서 인권활동하기

아현 가다:가톨릭대 인권 다시 찾으러 가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하는 우리. 한 손에는 활동을, 다른 손에는 과제와 시험, 진로준비를 들고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다. 우리 정말 괜찮은걸까? 워라밸(work/life balance)아니고 워스밸(work/study balance)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라이프(life)는 또 어떻게 채워야 할까?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 조절을 실패했던 경험도, 번아웃 경험도 있어서 더 시스템을 만드려했던 것 같다. 그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게 된다. 다들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깊고 좋은 시간이 됐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활동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인 것 같다. 이 점을 개인과 단체가 항상 유의해서 나 자

신을 챙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활동해나갈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스스로를 돌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일의 질과 그에 대한 열정은 나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피로하다는 것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함인 것을 느낀 것 같다.
- 모임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티타임을 갖는다. 우리 모임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도록 끈임 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가다’를 함께 만들어야겠다.
- 번아웃이 오거나 활동을 하며 매우 지치는 순간들이 올 때, 혹은 그런 순간들을 예방하는 데에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같이 일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각자가 각자의 일로 힘들고 지쳤을 때 ‘가다’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가다’가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길 노력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진 것 같다.
- 서로의 사정과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할까?"했던 질문의 답을 찾았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그만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 ‘가다’ 활동을 할 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가다’ 일 이외에도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알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좋았지만, 그 전에 이야기카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특히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두들 건강하게, 지칠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즐겁게 활동해나갔으면 좋겠어요.
- 그간 일을 하거나 개인 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쉽게 꺼내지 못했다 얘기들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 더 긴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꼭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안다. 그러나 모임 사람들에게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시간의 깊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한 기회가 더욱 많이 왔으면 한다.
-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잠시 쉬어가고 평소알지 못하던 모습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가다 파이팅!
- 서로를 보듬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따뜻하고 좋았다. 이야기 카드가 좋았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후기 에세이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19로 활동 방식이 달라졌다. 같이 밥과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활동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던 방식에서 지금은 온라

인으로 모여 일 이야기만 하고 헤어진다. 새롭게 시작한 회의 전 마음 나누기 혹은 회의 마무리에서 회의 소감을 추가했지만 어쩐지 정착이 잘되지 않은 것 같다. 팀으로 활동하지만, 공동체보다는 각자 일하는 기분이 드는 올해였다. 그러면서 (대)학생은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명제를 개개인이 오롯이 저항해야 했다. 활동가 하면 성적은 놓는 거지라는 우스갯소리로는 신입 활동가를 모집할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니 성적은 더 잘 챙겨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학업과 활동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까 라는 덮어두었던 문제를 꺼내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다 같이 한 번도 모이지 못했는데 이야기 모임을 이유로 디지털이 아닌 현실로 만나게 되었다.

조용하게 함께 모임 곳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었다. 학교는 대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카페는 너무 열려있는 공간이라 마음을 나누기에 꺼려진다. 우연히 지역사회에 공간을 열어두는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간을 3시간 정도 대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흔쾌히 가능하다고 답해주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 카드를 열어보았는데 오!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다. 이야기 모임이 더욱 기대됐다.

모임에서는 말 그대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학업과 활동을 고군분투했던 개인적인 노력을 꺼내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있지만 차마 못 물어봤던 일들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더 알게 됐다. 학업과 활동, 알바와 활동, 학업과 알바와 활동, 취미와 활동과 학교 사이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들을 들으면서 우리 왜 이렇게 바쁜 걸까, 바쁘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너무 많은 일에 번아웃이 왔지만 다시 한 번 활동을 놓고 싶지 않아서 조율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동료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다.

1학기 때는 일 중심으로 활동 방식이 구성되었었다. 새벽 2-3시에도 사람들이 업무 피드백을 요청하곤 했다. 1학기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이미 다른 단체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번아웃 위기를 빠르게 감지했다. 일 중심 활동 방식을 우리 사회에서 주되게 접해왔었고 그만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성과가 아니라 과정, 멀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동감하는 지금,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2학기에는 사람은 늘리되 일은 더 줄였다.

이런 회고도 같이 하면서, 신입 활동가에게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일이 너무 적어서 성취감을 적게 느끼진 않나요?” 사람을 잡는 건 적은 일이 아니라 성취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한 질문이었다. 여타 회사나 단위가 큰 활동 단체라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 모를까, 대학이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는 활동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모임마다 내기 바쁜 경우가 많으니까.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소속감과 성취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내 질문에 신입활동가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일이 적어서 학업과 병행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면서도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 조금 해소되었다. 이미 우리는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안심이 되면서도 이런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잠시 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활동을 쉬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갖지 않으면서 동료 활동가와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식이 고민된다고 한 활동가가 털어놓았다. 그러자 다른 활동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했다.

일급제,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 휴식 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 상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평가하는 태도는 멀리합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휴식하고,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1.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에게 혹은 전체구성원 채널에 말합니다.
2. 어떤 이유로 얼마 동안 휴식을 하고자 하는지 포함해 말합니다.
3. 대표는 휴식을 원하는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율합니다.

- 가다 약속문 중

우리는 이미 휴식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약속문이 생기고 나서 업무를 줄이고 나서 휴식하고 싶다고 하는 구성원은 없었지만 많은 구성원이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힘들다면 쉬 수 있고 쉬고 나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모임을 진행하는 게 부담이 컸었다. 동시에 신입활동가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대면 전체 모임에 설레기도 했다. 활동가이야기 모임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서로를 믿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동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다. 이야기모임을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순간에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학업과 활동의 병행은 사실 요즘 나에게 가장 큰 화두였다. 대표로서 우리의 업무 방식이 정말 맞는지 불안했다.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곳에서 다들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했고, 내가 흔들리면 내가 들고 있는 업무들이 전부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었다.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걱정할 것보다 잘하고 있었고, 서로를 소중히 대할 줄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가다'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걸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하며 알았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과 오래 알고 싶고 이번 이야기모임처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온라인 #자유주제 #11.6

장애,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당당하게 맞서라!!

태태엄마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훌륭한 부모님들 & 조력자



모임의 특징은 모두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열정적이고 훌륭한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내 자녀의 장애를 알기 전의 삶과 알고 난 후의 삶에서 변화되어 가는 가족의 삶, 그리고 평범했던 삶에서 코로나 19로 평범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니 버텨가고 있다. 아프지만 강하고, 냉정하기도 해야 하지만 열정적이고, 행복하지만 진정 행복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우리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과 이야기를 우리 사회의 '장애'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한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장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잘하는 점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 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지적 능력을 위해 너무 힘을 빼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예쁜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 장애의 틀에서 벗어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자.
- 나는 '소동, 공감, 실천'이라는 가치를 두고 꾸준히 5년, 10년 살아가 볼 생각이다. 작년부터 시작해 온 사회복지공부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며, 더 뚜렷해 진 장애와 복지의 세계. 2020년 올 해의 첫 걸음이 코로나로 힘들게 시작되었지만, 나는 이미 이루어 낸 것이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당당하게 중심에 서길 원하는 나의 열정이다.
- 나는 이미 쌍둥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나의 실천가치를 풀어나가 보려고 노력한다. 많이 힘들고, 맞지 않는 생각이고, 그건 안될걸?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이미 아이들을 통해 경험한 것이 아주 많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회적 가치를 풀어 나가는데 나와 아이들 또 우리 모두의 아이들과 가족 그리고 지역, 멀리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것도 바램 중에 하나이다. 희망이 있다. 절대 우리는 뒤쳐지지 않는다.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하루를 잘 시작해보자!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저는 2학년, 1학년 일반학교 도움반을 다니고 있는 남매 자폐성장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못하다 보니 아이들의 생활이 많이 혼란이 왔어요. 2학년인 딸아이는 작년에 학교에 가서 적응을 했고, 둘째는 올해 학교는 갔지만,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거나,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둘째 남자아이에게 일반학교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특수학교로 가야할까? 고민중입니다.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보는 중인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요.
- 저의 아이는 일반 초등학교 5학년이고, 자폐성장애를 알고 난 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유치원을 갈 수 있을? 학교를 갈 수 있을까?'였고 그 후 학교를 가고 현재 고민은 '중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먼 미래를 고민하기 보다는 학령기 고민에서 선택하는데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아이한테 좋은 것인지? 스트레스나 부담되지 않는 것인지? 부모로서 부담스럽다.
- 저는 아들 둘이다. 비장애와 장애를 같이 키우는 것도 힘들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미래의 생각한 것은 장애이지만 특별하지만 인정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가장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없나? 피아노도 칭가키 예민해서 들어가지도 않는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저의 아이가 어디서나 예쁜 아이로 사랑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다. 제 공부를 하면서도 지친다.
- 올 해 코로나가 오면서 막연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다. 아이가 어릴 때는 마음을 잡기 힘들었다. 그때 아이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주고, 찾아줘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 일상 생활 기술들을 가르쳐야 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고민이 달라졌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20살 후에 아이의 삶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하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보통 아이들은 주말에 또래나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데 우

리 아이는 부모와 가족과만 보낸다. 친구 교류가 없다. 학교에서는 통합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 장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잘하는 점과 좋아하는 것을 찾아 주어야 하며,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위해 너무 힘을 빼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예쁜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 서포트북은 환경과 아이를 알리기 위한 거였는데 생애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보고 성인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11살이고, 자폐성 3급입니다. 현재 5학년이고 중학생이 되어 갈텐데 진로나 미래를 부모가 찾아가면서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윤곽이 잡히지 않았습니니다. 미술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희망을 갖아보려고 합니다.
- 제가 10년 후,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고 3, 고 2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카페를 하나 차려서 같이 해볼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 저는 행동치료, 언어치료복수전공 중이다. 내 아이들을 위해 공부를 했지만 내가 배운 것을 우리 아이들이 덜 힘들지 않게 가도록 돕는 치료사가 되고 싶다. 10년 후면 성인이고 부모가 목이 매어있다. 엄마의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제가 10년 후면 아이가 고 3이네요. 지금까지 나는 아이에게 삶이 구속되어 있다. 남편과 나는 시골에 폐교를 사서 장애인을 고용도 우리 아이들의 직업도 갖고 가족들이 모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더 힘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야겠다.
- 우리 후배 부모님이나 선배 부모님들도 같은 공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는 있지만 버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두려운 삶에 연속이라 서로 의지가 되어야 한다.
- 사실 오늘도 직원들과 10년 후를 생각하고 모임에 참석했어요. 제가 10년 후면 아이는 20살이겠고, 제 아이가 나사렛대학교 재활학과 다녔으면 하는 꿈이 있고 저는 전직을 버리고 사회 복지 분야로 바꾸고 싶다. 지역의 복지를 개선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후기 에세이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은 나를 설레이게 만든다. 우리 모임은 온라인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1년 후만에 줌에서 만난 우리 장애자녀와 또 다른 형제자매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밝았다. 5년쯤 되어 '장애'라는 이름으로 만난 특별한 부모들이지만, 내가 아는 부모들은 그저 평범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부모들이었다. 그

때도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안타깝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부모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조금씩, 천천히, 잘 해나가고 있다.

장애라는 말을 접하면 무슨 생각부터 드는가? 어쩔까.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나 제대로 갈려나? 등등 힘들겠다. 이런 말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번 이야기주간을 통해 꼭 말을 하고 싶다.

그건 사람들의 편견이고, 관점에서 오는 차별이고, 무의식속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장애든 비장애든 나는 그런 장애라는 말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느리지만 천천히 서툴게 가는 장애를 안고 가는 이들은 아주 격렬하고 힘든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엄마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이들이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모두들 같은 사람이다! 구분을 지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저 환경의 변화, 사람의 인식변화만이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중심의 사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게 사회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구미 #자유주제 #11.5

구미지역 활동가들의 공감모임

홍현옥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다양한 지역활동가가 모여 자유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진행방식이 있다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일상생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서로를 알아가는 카드를 이용하여 자유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고마웠던 사람으로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자유주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힘든 부분과 그럴수록 이웃,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가족애로 푹푹 뭉쳐 더 사랑하며 살것이라는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타인을 배려하고, 가족들과 더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다.
- 활동가들의 훈훈한 가족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사는 맛,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며 주최한 제가 더 힐링되었습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마법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제 소원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올해 2월 달에 처음 코로나19를 방송에서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 같아서 하던 일을 멈추고 24일 가게 문을 닫았다. 쉬는 동안 주변의 식구들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남편과 항상 똑같이 사랑해주는 친정엄마, 그리고 엄하게 키웠는데도 엄마 고마워하고 불평불만 한번 안하는 나를 제일 많이 닮은 큰 딸이 있어 나는 행복하다. 내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이다.
- 저도 코로나로 인해 강의를 없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께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힘들수록 가족사랑으로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 평소 하는 일에 바빠서 부모와 자식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자주 못냈는데 막상 거리 두리고 이동을 제한하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
- 사회 변화를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모임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 활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카드가 좋아요. 그냥 아줌마들의 수다가 아닌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도 할 수 있는 이야기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인간의 공동인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과 인류에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인간의 자만이 코로나19를 만든 것 같다.
- 내일이 없다면 오늘 가장하고 싶은 일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전화 걸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평상시처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카드로 또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후기 에세이

저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꽃이 줄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모임 초대된 사람은 자영업, 마을활동가, 아동요리 강사이며 명함 하나씩 가지고 지역 활동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 모임에서 모두가 한결 같이 느낀 것은 가족사랑이었지요.

자연스럽게 이야기 모임이 진행 될 수 있게 한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카드'인 듯 합니다. 내 인생에서 고마운 사람 이야기, 내일이 없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코로나로 힘든 순간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만 미열이 있어도 영업을 하지 않으며 수업이 단절된 시간에는 가족과 함

게 하는 것으로 나를 돌아 보는 시간으로 승화하며 보낸 활동가들의 진솔된 이야기,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되고,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서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기도 했다는 이야기, 동료가 열이 있었는데 혹여나 코로나 확진이면 임신한 딸, 어린 손녀,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며 단순 감기라는 확답을 받고 귀가 했다는 이야기 속에서 친정 아버지의 딸사랑을 느꼈습니다.

함께 한 이야기모임이 코로나로 힘든 모두에게 활력소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후기에 전해왔습니다. 이야기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새내기 사회혁신활동가의 활동시작이야기

Sue Choi 사회혁신활동가대학

사회혁신활동가의 역할, 활동방법, 네트워크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는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초보 활동가로서의 방향성 찾기, 어려운점, 궁금한 점 함께 나누기, 선배활동가의 생생한 현장이야기, 다양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었다.
- 활동가는 실천이다. 활동가는 봉사다. 첫발을 내딛었다. 활동가는 의혈단이다. 활동가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활동가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 이야기는 계속 되어야 한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혁신이라는 활동이 쉽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게 하고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에 초점을 주고 싶다.
-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서로를 알아가는 계단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배움은 끝이 안 보인다.
- 많은 선배들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활동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 찾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활동가로서 활동에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길을 가야죠.
- 목표보다는 목적에 맞다면 두려움없이 적극적 활동해보자.
- 시작이 반이다. 한 걸음들이 모여서 더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 작은 소모임이라도 꾸준히 연계되어 서로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 모임을 자주 한다면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활동가로 나아갈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모임으로 쪽 이어졌으면 합니다. 좋은 에너지 넘쳐요.

#대구 #자유주제 #11.6

자발적 비영리 활동가는 지속가능한가?

윤 어나더스, 비영리 문화활동그룹



경제적 이익 없이 자발적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서로가 지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토론합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좋아하는 일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먹고 살기 위해 활동가 외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서 오는 피로와 일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지속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각자의 노동에 필요 이상으로 기대지 않고 밸런스를 맞춰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 같은 소속 혹은 영역 안에서 일해 오면서 일적인 부분의 서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는 듯하다. 이야기모임을 통해 모처럼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 고민은 또 다시 가치를 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의 현실, 오늘을 할 수 있는 것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의 이야기와 활동이 내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비영리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영리활동이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 육아로 인해 한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영리 혹은 프리랜서 활동가는 가구 내에서 수익의 비율이 낮은 편이라 쉽게 가사와 육아를 도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한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제도적 혜택이 주어져야 활동이 지속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당장 수익이 나오는 영리사업에 비해, 비영리사업은 눈으로 바로 확인되는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먼 미래를 상상하며 활동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견 쉽게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먹고, 자고, 사고 하는 모든 일은 지속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함께 자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자발적 비영리 활동가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자본이 적다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연대와 활동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비영리, 여성, 활동가. 각자의 소수(?)적인 단어들이 모여서 더 소수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결론과 가정을 이룬 후에도 활동가로서 삶을 이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혼여성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며 '좋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큰 활력을 얻었다. 가사와 육아를 즐기는 편이지만 결코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른 즐거움과 에너지가 느껴졌다. 모두 각자의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아이와 함께 하는 모임참여자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아이가 스스로 한 몫을 해낼 긴 시간동안 엄마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 이야기 모임으로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이야기모임 자체가 큰 부담이(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되기를 바란다. 특정 주제가 아닌 자유 주제로 진행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서로를 시간내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 듯해 좋았다.
- 이야기모임 덕분에 시간을 애길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이번에는 처음이라 아쉬움과 좋은 점을 얘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모임을 자주하고 싶다. 시기적으로 활동이 종료된 후 활동후기와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아쉬웠던 일을 나누고 싶다. 이번 모임은 아직 활동이 남아 있는 일들이 있어 심적으로 편하게 임하진 못했던 것 같다.

#창원 #자유주제 #11.4

50대 이후의 문화활동가인 우리들의 미래

김영민 문화기획



50대 이후의 문화활동가인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좌담회 형식으로 진솔한 속마음 드러내는 모임입니다.

운영자 이야기 _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운영자 소감

- 은퇴 이후의 삶,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나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시민기자로서 작성한 기사 중 핵심적인 문장이 통편집당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관객들과의 소통은? 모든 문제에는 건설적인 희망이 있다.
- 모든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 평소 알고 지내는 분들이었지만 주제를 정하고 진지한 대화를 가졌다는 데 대해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질 것이란 즐거운 상상을 가지게 되었다.

참가자 이야기 _ 모임주제에 대한 생각, 인상 깊었던 이야기, 참가자 소감

- 정년퇴직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고 각자 자신이 희망하는 일거리,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해보았다.

-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 양성평등에 대한 다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모든 이는 성평등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 성평등 문제에 대해 양성만 인정하는 법률과 우리네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 부문에서도 다양한 문화, 즉 다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 예술가들의 공적인 만남의 공간이 많았으면 한다.
- 은퇴 후의 불안한 감정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나 문화활동에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이 형성되는 시간이었다.
- 1시간 동안 진행된 50대 구성원들 간에 오간 두어 가지 주제 토론은 유익했다. 향후 삶에 도움이 될 듯하다. 차후 토론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공간과 그 활용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후기 에세이

2020년 11월 04일 저녁 7시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76-1 공유 공간 ‘충무로 76-1’에서 네 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현직 모 신문사 문화체육부 부장과 프랑스 파리에 20 -30여년을 살다 이번 코로나 19로 귀국한 재불 예술 감독과 조형예술가 그리고 문화기획자인 나, 이렇게 네 남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신문사 부장은 정년퇴임 후 오히려 일상이 더 바빠질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프랑스에서 귀국한 극단 예술 감독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거나 얼마 뒤에 있을 자신의 개인전이 진주와 창원에서 열릴 것이라는 조형예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시보 시민기자이기도 한 내가 작성한 기사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나눈 대화 중 단연 공통의 관심사는 내가 작성한 기사에서 잘려져 나간 글귀에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는 창원 마산 창동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 운동가이며 마산 태생인 여성 독립가인 김명시 장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명시 장군이 어릴 적 다녔을 법한 골목길을 김명시 장군 학교길이라 이름 짓고 개장식을 하는 행사에 대한 취재였습니다. 이번 행사 주최는 창원시가 ‘여성친화거리-도시재생, 젠더로 기록하다’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기획단과 함께 구성하였고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친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남녀 차별적인 생물학적 성(sex)가 아닌 남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내포하는 사회적 성(gender)이 녹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말미에 ‘ 여성주의 시각에 한정하지 않고 양성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음 한다.’라는 기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네 명의 남자들은 여러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옮겨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모임이 다들 너무 좋다 말하며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부록

활동가이야기모임 운영자 설문조사 결과

_ 전체 95명 운영자 중 70명이 답변 (74%)

1. 올해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어떤 경로로 알고 참여하셨나요?

지역중간지원조지의 홍보 및 안내	17명	24.3%
2019년 모임운영자	16명	22.9%
단체 동료 및 지인의 소개	16명	22.9%
활동가이야기,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페이스북	8명	11.4%
2019년 모임참가자	7명	10%
더이음,아름다운재단 뉴스레터	3명	4.25%
기타	3명	4.25%
	70명	100%

2. 활동가이야기모임을 개최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알려주시겠어요?

21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는데 다과도 없이 모임을 하기도 죄송하고, 후원으로 꾸려지는 비영리단체 특성상 예산이 넉넉치 않아 고민하던 차에 활동가 이야기주간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학부모모임을 고민하던 중 이야기모임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건강이란 주제어를 보자마자 저에게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 보드게임이 생각났고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면서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해소해보고 싶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활동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함께 모이는 계기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활동가이야기모임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에 꼭 필요한 모임을 구상하던 중에 활동가이야기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카드를 매개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특히 흥미를 끌었습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을 통해 저희 모임을 홍보하고 싶어서. 작은 모임이지만 마을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모르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조직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서로 이야기할만한 공식적인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올해 새로 오신 동료와 화합하고 조직 안에서 수평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가 일을 지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활동가이야기모임을 신청했습니다.

소속된 단체에서 모임운동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어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활동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더 존중하지 못하고 고마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모임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비공식적이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해요. 게다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것도, 혼자서 삭이는 애환을 털어놓기도 어렵죠. 조금 편한 사이로 만나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작은 지역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활동가들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더이음이 다양한 활동가인터뷰나 모임을 주최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지난해 모임에 이어 두번째 모임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바쁜 활동가들이라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미루어 두었거나 외면했던 그러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싶었습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끌어내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지역 내 관심이 높아져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활동가들 스스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작은 모임은 활동가들의 친목질로 폼하되어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작은 이야기 모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주변 활동가들과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보통 만나는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평소에 마을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활동가들과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야기카드를 통해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느꼈습니다.

1인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해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주제를 공론화해서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사업회의만 1년 내내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네요.

주변 동료 활동가들과 서로의 일상을 점검하고 응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통해 힐링하고자 참여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이야기도 알고 싶고 제가 속한 활동 모임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회의 이외에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별도의 자리가 필요했는데 마침 활동가이야기모임 공지가 떠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참가했습니다. 그 때의 기억이 좋아서 올해 운영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주간 기획이 좋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참여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알고 싶었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고 싶었구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려고 참여했습니다.

저처럼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인식개선이나 사회복지의 변화, 우리의 미래 계획들을 이야기나누고 알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지역의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신청했습니다.

3.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개인 및 단체 활동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도 많이 되었고 새로운 의제를 찾았습니다. 단순 통역이 아닌 상담, 노무, 의료 많은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한결 가까워져 나이를 초월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참여했던 분들 중 일부와 자기 돌봄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을 꾸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지가 되었기에 지속하자고 했었거든요.

진짜 동료들의 속마음을 조금은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된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해소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 행사에 개인활동가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서로의 활동을 더 알아봐주는 등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의제를 찾았습니다. 동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후속모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활동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서로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활동가의 고민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습니다.

일 중심에서 각자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세대를 뛰어넘어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연구해보고 싶은 과제가 생겼어요.

현재 우리가 가야할 길을 진단해보고, 내년에는 실천해 보자는 결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고, 도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는지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모임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또한 활동하면서 함께하는 활동가들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의제를 찾았습니다.

동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가 확장되었습니다. 내년 지원사업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 다른 모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방식의 활동계획을 세우고 모임의 성격을 결정했습니다.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되었고, 지자체와 민간이 같이 하는 모임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평범한 것들이 알고 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활동분야에서 겪는 일을 이해하며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활동가이기 전에 오롯이 한 개인으로 공감을 나누고 울다 웃다가 너무 속 시원하고 든든해진다는 소감을 확인할 때였어요. 보이는 에너지와 달리 속이 여리고 허전함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활동가 간에 서로 다른 색을 멋지게 봐주고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었지요.

활동가들의 모임을 통하여 단체에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계기와 앞으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기본소득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봐 온 지역활동가들과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열어놓고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체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회원 및 후원자들과 이야기모임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짐작되었던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높아지고 친밀감도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야기모임 구성원이 주축이 되어 스터디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다 활동에 관한 서로의 철학과 활동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해체해보고 재구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활동을 특정한 분야로 얽매기 보다는 '하고 싶은 것' 내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비슷한 모임과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활동이 만들어져서 12월에도 모임을 갖고 마음치유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후속 활동 이후 스터디모임이 결성되어 활동가로서의 필요한 모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좀 더 끈끈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에 좋은 모델이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활동 동기들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동료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임에 대한 불안함도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동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차이에 대해서 같은 조직의 활동가, 다른 조직의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느꼈고, 다른 사람들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을 통해 좀 더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공통의 고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의논했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추후 어떻게 해야 할 지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후속활동에 대한 욕구를 확인했고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동료의 속깊은 이야기들도 들 수 있었어요. 현장의 노동문제,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몰랐던 고민거리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근황을 들으면서 이것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하는 법에 대한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지역기록 작업을 하게 되는 후속활동이 이루어 졌고, 타인을 이해하고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시간,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의 나름대로 네트워크 구성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4. 활동가이야기주간이 지속가능한 활동가의 일과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활동가들이 많이 웃고 즐겁게 수다시간을 가져서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모임에 참여한 이후 독서, 자녀교육실천, 고민상담, 부모코칭의 소모임을 만들어 가는 리더와 멤버들의 역할 모습을 보며 지속성 뿐 아니라 얼마나 양육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환경운동을 함으로써 지칠 때 든든한 동료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활동주제에서 벗어나서 활동가인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시간이 되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삶 속에서 궁금해하던 서로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 달려가다 잠시 멈춤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활동가이야기주간이 해준 것 같습니다.

활동가 인터뷰를 하면서 활동가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다양한 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로 배우고 의지할 수 있으니 슬럼프가 오거나 장애에 부딪혀도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역할을 해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지원사업 활동가로 재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활동가이야기주간 동안 새로 온 팀장님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뤄져서 가능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주간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었을 뿐 아니라 관심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이후의 삶의 계획 또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가는 고집스런 개인 혹은 색깔 있는 일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개인의 생각과 삶을 편히 들여다봐주는 주변의 지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2년에 걸쳐 서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동가들은 어쨌든 하고자 해서 하는 일들인데 누군가가 따뜻하게 마련해주는 작은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받는듯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더 다양한 활동가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활동가들은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하는 식의 불필요한 논쟁을 하곤 합니다. 어떤 형식인가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시도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막연한 활동 의지에서 체계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저 목표를 향해 걷기만 하다보면 본래 의미와 방향을 잊기 쉬운데 활동가이야기주간은 잠시 멈춰 되돌아볼 수 있도록 촉진해주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에 있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느라 지친 우리가 대접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디. 우리도 배려를 받고 싶었구나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주간을 통해 더 알 수 있었고, 회의가 아닌 편한 이야기모임으로 활동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삶을 더 풍부하게 해 주었습니다.

활동가모임에서 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걸 통해 현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힘들었던 것이 의사소통 부족이거나 함께 바뀌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훨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같이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 있는 자리를 늘 고민하는 활동가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안도감을 줍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런 과정이 결론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긴 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한다는 게 활동가들한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저는 활동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또 하고 있는 일이 활동가의 역할인 것 같아서 이 일과 앞으로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지속가능이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있을거라 생각하고, 그 중 하나가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이나 시너지를 주고 받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5. 이야기카드는 모임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나요?

마음을 열고 드러내보이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야기에 물꼬를 터주고 이야기에 이야기를 더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샘솟게 했습니다.

이야기의 틀을 제시해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말로 하기보다 카드를 뽑아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뿐만 아니라 이야기 주제를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최자의 철학이나 생각에 따른 발전적이지 않은 이야기모임이 되지 않고, 이야기카드에 있는 여러 글귀들을 바탕으로 편견없이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친숙한 사람들과의 모임이라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고 가볍게 읽고 넘어갔습니다. 의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카드 활용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다소 사적인 주제들도 있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야기카드를 통해 직접적인 단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함으로써 명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선뜻 떠올리기 쉽지 않은 질문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야기카드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자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꼬집어 내는 도구로 유용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이야기카드가 만들어 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음나누기할 때 각자가 고른 카드로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다음 이야기의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카드(플리는단어)는 의사표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감이 되는 역할을 카드가 해주었고 궁금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던 소소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카드가 보이지 않는 퍼실리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중구난방일수 있는 대화를 잡아주고 촉진시키는 효과가 높았습니다.

준비를 위해 애쓰신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고 이야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네요.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주변의 일들을 이야기 하느라 이야기카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할 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공감하는 데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었고, 긍정적 카드가 부정으로 해석되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바램을 담기도 해서 '내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A-Z까지 늘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B로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어요.

일적으로야 서로들 알고 지내지만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현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연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의 쑥스러움이나 말문을 이끌어 내는데 참 좋은 도구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적절했고 특히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알맞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참기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카드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야기카드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탐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를 통해 미처 깨닫지 못한 상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질문으로 이야기모임의 진솔함을 더해줬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물어본 적 없었던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은 단체의 특수성 때문인지 잘 맞지 않아 이 부분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대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생각해내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주제 제안을 통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카드가 좋다고 생각하여 조직 내 워크숍에서도 사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음풍경 이야기카드를 봤는데 주제가 마음돌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같이 표현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감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야기카드는 정말 히든 카드였습니다. 회원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카드의 예시가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임의 경우 활동가로 참여하면서 각 단체의 주먹구구식 조직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잘 모르던 사이였다면 도움이 되었을 거 같지만 이번에는 소규모로 알던 활동가끼리 만나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타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막상 진행하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도구로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6. 모임을 등록하고 개최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든 걱정스러운 것 빼고요.

구성원들 간 바쁜 일정 속에서 조율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5인까지 한정이라 공개모집을 하기도 비공개모집을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다행히 처음 고민을 나눈 지인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지인들을 초대하다보니 인원이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장소라든지 시간 등이 신경쓰였습니다.

사실 많은 단체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며 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사교의 유연성이 있는 활동가들과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활동가들이 지역에 생각보다 적어서 멤버 구성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임을 등록한 후 선정절차를 거치는 것인지, 혹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지 안내가 없는 것 같아 그 점이 불편했습니다.

처음 운영자로서 신청하다보니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입금이 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안내가 없어 불안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미흡해서 걱정되었는데 동료가 장소를 마련해줘서 무척 편하게 진행했어요.

이번엔 지인들끼리만 했는데도 모객은 늘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진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마침 모임 날에 다른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더 피곤하더라고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하고 스캔해서 보내는 작업이 번거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챙기는 여러가지 불편이 있기는 했지만 당연히 공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었습니다. 후기 등록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전에 약속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생기는 일처리때문에 참석을 취소하신 분도 있고, 이야기 후에 밥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소규모 모임이다 보니 한 분이 약속이 있으면서 결국 이야기모임과 밥모임을 따로 하게 되었지요.

특별히 없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공지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소를 물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읽을 때 모임을 등록하고 선정되면 진행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과정도 많이 간소화되고 절차상 어렵지 않아 좋았습니다

세상 제일 간단하며 편한 공모사업이며 많은 위로가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평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해야하다보니 조금 조급했습니다. 만남을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조급했습니다.

이야기주간을 진행하기 위한 상호 약속 시간을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11월 첫 주가 진행 기간이었는데 날짜를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남자체가 조심스럽긴 했지만 마스크까지 챙겨주신 세심함에 고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제가 이야기의 주된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함께 공유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7. 모임지원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원 (현재 지원금액)	43명	61.5%
20만원	14명	20%
15만원	12명	17.1%
기타 : 모임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 (1인당 2만원)	1명	1.4%
	70명	100%

8.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네트워크와 심리지원인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 도서 지원. 문화적 체험과 교류가 가능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활동비 지원. 업무량 대비 인건비 재정이 열악합니다.

관계 맺거나 갈등 다루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요. 꼭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더라도 활동판이 좁아서 어쩌다 마주칠텐데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경우를 봅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속한 조직의 역량 여부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힐링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해서 체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액티비티라던지 말을 뛰어넘는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카드 또는 그림카드 같은 깔끔한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으면 퍼실리테이션이나 여러 주제로 이야기할 때 든든한 재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활동가들에 대한 여러 교육지원 및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활동가이야기모임의 지원처럼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에만 맞춰져 있어 오히려 활동가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기금을 위한 사업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쉽을 위한 지원과 정기적인 활동가 모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공간을 좀 알려주거나 지역 내 모객 홍보를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각자 너무 자기 일에 매몰되어 있어 쉬과 휴식을 못하는 듯 합니다.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활동에 치우치다 보면 많은 놓치고 살아가기 쉬운데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와 응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야기카드와 다양한 프로그램 도구가 필요합니다.

놀이카드같이 사람들과 모여 함께할 수 있는 도구와 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은 외지에 있고 면적이 넓어 지역 현안이 다양한데 활동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비활동가와 주민역량을 위한 교육, 활동가간 연대를 위한 정기적 모임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과정 좋습니다. 비용, 주제, 카드가 모임을 제안하기에 적합합니다.

섬과 자기 여백.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가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출가분함의 필요였습니다.

지역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교육(재정이 어려우니 만나고 싶은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고 임원들은 크게 욕구를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과 실무자 휴식(1~2인 상근체계이다 보니 쉬는 것도 어렵지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 그나마 단체 소속은 일정 수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비 등 지출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 적은 금액이라도 서로 눈치 보지 않으며 활동비 지출을 통해 연대의 끈을 놓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상담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활동가주간 지원 좋았습니다.

시민사회의 기반이 약하고 민간재단이나 민간단체에서 펀드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다보니 행정과 공공영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 또는 수도권 재단이나 단체가 지역의 활동단체 또는 활동가에게도 펀드를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나 팟캐스트, 영상 제작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자기 성찰과 역량강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관성에 갇히지 않고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감수성을 얻기 위한 도구나 회의 진행 방식 또는 약속문 같은 시스템을 잘 구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일 걱정 안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모임, 활동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부여받을 기회와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모임!! 스스로의 활동을 믿고 맡겨주는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힘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각자 단체에서 활동하는게 우선이다보니까요. 활동가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네트워크를 통한 배움이란 것도 지역사회에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해요.

심리상담도 좋지만 이렇게 비슷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만나서 이야기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또는 역량강화의 시간도 좋습니다.

단체를 떠나 서로의 경험이나 어려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나눌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역 NGO 사회는 젊은층이 많이 없습니다. 젊은층을 끌어들이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젊은 활동가들끼리 이를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의 교육. 즉, 이미 시민으로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활동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수시로 만나고 공유하는 밴드나 카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은 네트워크 구성이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은 그러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지만 이제 막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은 개인 별 격차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9. 내년에도 활동가이야기주간 행사를 한다면 모임운영자로 참여할 생각이신가요?

참여한다	63명	90%
모르겠다	6명	8.6%
아니오	1명	1.4%
	70명	100%

10. 마지막으로 활동가이야기주간행사에 대해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혹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운영진에게 전하는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일회가 아니라 시리즈로 연이어 진행되는 것과 일회성이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활동가 안내지를 재생지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활동가들이 바쁜 시기이다 보니 주간이 아닌 월간으로 진행하면 어떤가 해요. 참여하고 싶은 다른 모임도 참여하고 주말을 이용해 참여해보고도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카드는 정말 좋았어요. 받지 못한 이야기카드 세트도 꼭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고민을 통해 활동가 이야기주간 행사를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민들이 느껴져서 좋았고 함께 하는 친구들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처음 참여했는데요. 무척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더 많은 활동가들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시간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매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상의 모임 개설들이 홍보

되지는 않고 단순 기록용에 가까워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활동기록 노트를 선물받고 싶습니다. 모임후기 작성을 하면서 기록지가 노트로 되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꼭 활동가이야기주간 행사를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 조직과의 협업과 지원을 해보는 것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지않을까요? 예로 아이쿱생협은 매월 전국에서 2천여개의 마을모임,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지 않으면서도 지지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에 늘 마음이 느껴져서 지역에서도 활동가들에게 이런 현대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킹 활동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각 자리의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기록을 잘 부탁드립니다.

활동가이야기를 계기로 하나의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아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 동안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 제출할 때 생각한 날짜와 시간이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일들이 생기면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분기별로...자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 2회 정도 진행하면 좋겠고 지원금을 소폭 높이 책정해주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이야기모임을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영상 인터뷰로 활동가를 만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텍스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활동가의 육성과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영상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인터뷰를 진행한다면 지원금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활동가님들도 격식 없는 이 모임을 너무 좋아하셨고, 후속모임을 약속하게 된 점은 큰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야기모임때문에 서로의 사는 이야기와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담없이 활동가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문화 활동도 나누며 동아리처럼 봉사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단 한 번, 몇 시간의 이야기나눔으로 끝나기보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로부터 뭔가 지속가능한 연결점이 만들어지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시대를 감안해 온라인 모임도 모임지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모임을 기획하고 새로운 기회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준별, 계층별 분류 모임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생각이 확장되고 혼자 고민했던 일들이 해결된다고 느낍니다.

이번 활동가이야기모임 프로그램을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활동가이야기주간 꼭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증빙을 안해도 되는 자유로움을 그간 느끼지 못했으며, 서로 다른 영역과 단체에서 활동하며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은 가졌습니다. 소중한 시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주어 좋았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간이 조금 길었으면 싶기도 합니다.

활동가이야기주간행사 덕분에 즐겁게 이야기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주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같은 권역(or 지역)에 있는 단체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 주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순수하게 활동가들을 위해 이야기주간을 행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중앙의 메이저 NGO단체들이 지역 사회 기반을 둔 소규모 NGO 단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일찍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게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경우 활동가모임 전에 활동가들의 정체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강의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장애분야 공모전에 올렸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각 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아마도 진심이 보였던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너무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활동가인터뷰 목록

※ 아래의 인터뷰는 활동가이야기주간 홈페이지 [활동가인터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activistweek.net/interview>

제목	지역
페미니스트 동네친구와 마을정원을 가꾸고 싶은 박신연숙	서울
사람, 마을, 자연을 품고 이으며 지키는 환경운동가,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제주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연구하는 기획자 청춘연구소 최정원	통영
나의 장래희망은 행동하는 연구자,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박수연	통영
활동가에게 곁이라는 상담실을 건네는 오현정	서울
중간지원조직에서 조직가로 활동하는 남길현	화성
마을과 교육을 연결하는 활동가, 대안학교 교사 전성일	과천
동네에서 주민들과 재미있게 노는 사회운동가, 김광원	수원
활동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잠시 쉬고 있는 화려한 경력의 활동가, 진경아	천안
우직하고 꾸준한 마을활동가, 지리산이음 임현택	남원
자유하는 달팽이의 집요한 달리기, 심리상담사 김지연	서울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밀고 있는 평화활동가 최성희	제주
'기획하는 활동가' 공공활동기획자를 꿈꾸는 왕꽃, 김지현	광주
"데이터로 세상을 바꿉니다." - '누구나데이터'의 김자유 활동가	서울
"인문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에 대한 실험, 활동가 김고은	용인
"제가 활동가인가요?" - 실개천 마을학교 이은숙	옥천
30여년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투쟁의 현장에 서면 힘이 솟는 김정임	제주
가치에 따라 흘러온 세월의 어느 여울에서 흠을 보듬고 있는 할부지. 김훈배	구미
간사 32호봉을 꿈꾸던 시민단체활동가, 임가혜	천안
공적인 일과 봉사하는 일이 행복한 강선임 활동가	나주
관심이 적은 공익 영역에서 신입활동가로 활동을 한다는 것 - 논산YWCA 조이	논산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외쳐온, 활동가 김기홍	제주
그가 헛발질할망정 후회하지 않는 이유 - 대전시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대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젊은 엄마들의 육아와 생활문화를 고양하는 활동가 정은옥	순천
내일로 향해 가는 희망 자전거, 두바퀴랑위드 안경남	광주
니 일 내 일이 어딴노? 같이 하면 내 일이지! - 우리동네 빵집 아저씨 이채섭	울산
다시 태어나도 '활동가'로 살래요 - 정치발전소 유의선	서울
돌봄공동체, 원주를 꿈꿔요! 위드커문 천혜란 활동가	원주
두 발을 담그는 사람, 부산 <신나요 도서관> 안소희 활동가	부산

따오기'의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보네트워크센터 덩야평 활동가	서울
마을공동체 매개자로 즐겁게 살아가기! - 화천 상서리 마을카페 박현수 활동가	화천
마을이 내집이죠. - 건강한 마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활동가 조미경	나주
반짝 반짝 빛나는 사람, 늘 새로운 것이 궁금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서울
배려하는 마음과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활동가, 아름다운가게 혜영	서울
사회 운동의 적정기술 - 프로그램 개발자, 홍영기	서울
사회가 더 시끌시끌 했으면 좋겠어요 - 다산인권센터의 사월 활동가	수원
생협운동에서 재난구호 공익활동가로. 운디드 힐러(wounded healer) 정미정 활동가	경주
생활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모임을 찾고 싶은 보육활동가 임소미	구미
슬픔을 아는 사람, 미래를 꿈꾸고 싶은 활동가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신재욱	서울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하는 이유 - 나눔과나눔의 김민석 활동가	서울
실천하는 사람의 선을 믿고 따르는 청년활동가, 도라지	전주
아름다운 글씨로 그려내는 생각과 마음 - 문화예술인 비영리단체 [나들그림] 김미숙	순천
앞만 보고 온 청년예술인 종현, 각산마을에서 청년예술인들과 만나다.	구미
어느 환경활동가의 고향살이 - 김팔곤 활동가	구미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작당, 십년 후를 연구하는 활동가 송성희	서울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_월간 <작은책> 정인열 활동가	서울
조직에서, 또 개인의 삶에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청년활동가 - 내일상회 이혜림	강릉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 용산시민연대 이원영	서울
주민들의 보호자로 병원에 갈 때가 제일 좋아요. -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박승민	서울
치열한 삶을 벗어나 사회적기업가로의 새로운 삶 - 털보의 커피놀이터 최영진	광주
페미니즘을 잘 아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성단체 활동가 복동환	대전
하고 싶은게 너무 많아 지칠새가 없는 활동가 -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정순영	옥천
활동을 통해 비전을 찾은 활동가 - 우리동네 이지윤 활동가	천안
희망을 심는 '모두의 숲밭' 의 일꾼, 숲밭 디자이너 황다혜	구미

활동가이야기주간2020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1.2.20.

발행인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주관

더이음 | 아름다운재단

공동주최

더이음 | 아름다운재단 | 빠띠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시민센터협의회 | 인권재단 사람 | 민주주의기술학교 | 사단법인 시민

협력

광주NGO센터 |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부천희망재단 | 서울시NPO지원센터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 천안NGO센터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 충북NGO센터

공동주최

더이음

아름다운재단

빠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기술학교

사단법인 시민

협력

광주NGO센터

경기공익활동지원센터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천희망재단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등남권NPO지원센터

서울시등북권NPO지원센터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

천안NGO센터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북NGO센터